ARKO 수시연구 2021-02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21. 12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주 관 기 관: **비(B) 파운데이션**
연구 책임자: **최지혜**
참여 연구원: **우아름**
호경윤(연구 감수)

연구 요약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연구 목적 및 과제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각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아르코미술관 리브랜딩 추진과 연계하여 아르코아카이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장점을 살린 차별화 방안 마련

○ ‘아르코미디어(ARKO media)’를 시각예술 분야 연구자원으로 조성하여 아르코아카이브가 연구 지원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 구축

○ 동시대 미술 현장 및 이론 동향 탐구를 통해 열람환경의 변화와 기술, 매체의 다변화에 따른 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에 대한 향후 대안 모색

○ 수집, 보존 관리 체계 수립, 저작권 협의 체계 정리 등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및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 현황 파악 및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점 도출

○ 아르코미술관 전시 및 프로그램과 아카이브 간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설정하여 아르코미술관만의 차별화된 특징 마련

■ 연구 추진 방법

○ 관련 자료 전수 열람 및 추진 현황 분석
- 아르코미술관 미디어컬렉션 관련 행정 문서 및 연계 출판물 열람, 분석(2006~2015)
- 아르코미술관 작가 포트폴리오 관련 행정 문서 및 자료 열람, 분석(2006~2020)
- 아르코아카이브 추진 경과 및 자료 관리 현황 분석

○ 동시대 미술관 및 아카이브 개념에 대한 현장과 이론적 측면의 동향 연구

○ 아르코아카이브가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유관기관 사례 연구 및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진행, SWOT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

○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추진 전략 도출 및 과제 제시

■ 미디어컬렉션 환경 분석

○ 추진 현황
-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인사미술공간이 주체가 되어 IASmedia라는 명칭으로 한국 현대미술 비디오 작품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컬렉션을 통한 국내 및 해외 배급 및 상영을 추진하였음
- 2009년 인사미술공간 아카이브가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로 통합되면서 IASmedia 역시 ‘아르코미디어(ARKO media)’로 사업명이 변경, 배급뿐 아니라 아카이브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스크리닝 행사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
- 2015년까지 아르코미디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2016년 이후부터는 신규 작품 공모

및 활용프로그램, 배급사업 등을 포함한 미디어컬렉션 사업이 잠정 추진 중단된 상태임. 현재 총 212점의 미디어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르코미술관 2층 아카이브 실 공간에서 열람 가능

○ 소결

- 인사미술공간에서 아르코미술관으로 아카이브가 이관되며 미디어컬렉션 사업 방향성 및 정체성 변화와 이에 따른 사업의 소극적 운영 및 중단 현안
- 배급과 작품공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미디어컬렉션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성 및 정체성 수립의 필요 제기
- 과거 아르코아카이브가 싱글채널 비디오를 중심으로 하는 영상 예술 생태계 육성의 선제적 역할을 해온 가치를 되살려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가치를 제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꾸준한 시도 촉구

■ 작가 포트폴리오 환경 분석

○ 추진 현황

- 2006년 인사미술공간 기획초대전 참여 작가를 중심으로 외국기관 및 큐레이터를 위한 국내작가 포트폴리오 DB의 리서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짐
- 미디어컬렉션과 마찬가지로 2009년 인사미술공간 아카이브가 아르코미술관으로 이관되면서 사업 및 소장 자료에 대한 추진 기관이 아르코아카이브로 변경되었음
- 2010년부터 아르코미술관 2층 아카이브실을 통해 상시 열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획자, 작가 및 관심 있는 미술애호가들에게 연구기능을 알리고, 공공성을 확장시키고자 했음
- 2019~2020년 한 작가의 실물 포트폴리오 파일을 여러 세트로 보유하고 있거나 실물자료 보관함의 형태 및 크기의 불일치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여 현재 재정비 및 업데이트 된 자료를 기준으로 553명 작가 포트폴리오 574세트 보유

○ 소결

- 국내 예술 아카이브 초창기 구축기관으로서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자산으로 기능하는 아르코아카이브의 작가 포트폴리오의 가치와 신뢰도를 회복할 필요성 제기
- 기존 자료의 현황 파악 및 재정비를 위해 작가와의 계약관계(저작권, 소유권, 디지털 매체 전환에 따른 추가 갱신 필요성 등) 정리, 기존 자료 업데이트 및 신규 제작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아르코아카이브의 정체성에 맞춘 작가 포트폴리오 제작 및 작가 선정 기준의 마련이 필요
- 최근 온라인을 통한 공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작가 포트폴리오 목록의 메타데이터 구축 필요 및 온라인 공유 가능성 제안

■ 사례연구 및 분석

○ 시각예술 전반을 범위로 한 작가 포트폴리오와 싱글채널 비디오 기반의 미디어컬렉션으로 이루어진 아르코아카이브 구성을 고려하여 동시대미술관과 아카이브의 화두를 선정함

- 동시대 시각예술/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관련 화두 및 미술관 공공성 개념 고찰
- 시각예술 매체 노후화와 다변화, 변화하는 패러다임 추세 속 대응과 방법론 논의
-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AMI) 소장과 유통의 시스템 부재에의 대응 방법론 논의

○ 사례 현황 및 분석

- 아카이브와 연구 :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이니바, 테이트 리서치, 스테델릭 미술관
-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육성
  - 제작지원 : 카디스트, 필름&비디오 엄브렐라, 시티 프로젝트
  - 기타지원 : 오귀스트 오르츠, 스파이크 아일랜드, 리좀
  - 배급 : 럭스, 일렉트로닉 아츠 인터믹스, 비디오 데이터 뱅크, 리마, 루프 바로셀로나, 아르고스 센터, 아스날 필름 앤 비디오 연구소, AV-아르키, 식스팩 필름
- 아티스트 무빙이미지 활용
  - 상영 : 하버드 필름아카이브,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 온라인 스크리닝 : 닥 얼라이언스 필름, 브이드롬, 워치 앤 칠
  - 공유 : 우부웹, NTT 인터커뮤니케이션 센터, 더 스트림,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 소결

- 기관 의제 중심의 컬렉션 구축과 현재적 관점의 소장자료 재해석 프로그램 경향을 반영한 아카이브 프로그램의 기획 필요성 제기
- 매체 다변화에 따른 대응에 있어서 온라인 공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기획의 방향 아래 이를 해소하는 방식 참고
- 기관의 어젠다를 바탕으로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의 제작 지원부터 수집, 소장, 활용에 이르는 연계 시스템 요구
- 미디어 재생 및 관람의 경험과 배급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함에 따라 직접적인 배급 사업의 추진보다는 이를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도모하는 방향성 제기

■자문위원회 운영 및 분석

○ 개요

- 작가그룹, 기획/비평그룹, 아카이브 운영 기관 실무자 그룹,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배급 관련 실무자 그룹 등 4개의 그룹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
- 1대1 심층 인터뷰 및 FGI를 통해 전문가의 상세하고 밀도 높은 제안을 수렴, 개선안 도출에 반영

○ 논의 내용 및 시사점

- 아카이브 전문 인력의 필요성과 장기적 관점의 아카이브 예산 계획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확보 필요
- 미디어 아카이브 수집, 자료관리, 운영방식에 있어 기관 특성을 살린 큐레이션을 통해 확산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 수립 필요
  - (수집 전략) 제작 지원을 통해 수집부터 활용까지 연결시키는 방식 논의
  - (자료관리) 데이터 손실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 (아카이브 운영) 기관사 컬렉션, 보유 자료의 배급, 홍보 등을 통한 가시성과 가치의 제고 등 논의
- 활용 방식에 있어 특징을 살린 차별화 전략 수립 필요
  - (상영) 컬렉션 선정 작품 상영 프로그램 상설화
  - (연계전시/ 프로그램) 기관 키워드와 어젠다 설정을 통한 홍보 및 활용 기획 수립

• (출판) 자료 간의 관계성을 고려한 출판 기획
• (열람)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하는 아카이브 개방
• (온라인 플랫폼) 자료의 온라인 공유 및 통합 DB 구축

- 아르코의 미디어 배급 및 유통 방향성 설정에 있어 기존 생태계와 공존하며 아르코아카이브의 변별점을 특화할 수 있도록 간접 배급의 형태, 비독점적 이용 허락의 방식 등 플랫폼으로서 지향점 제안
- 온라인 스트리밍을 위한 저작권 협의의 필요성, 소장과 유통 등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 필요
- 생태계 육성 : (제작 지원) 영상 제작만을 위한 지원 필요성 논의, (제작 외 지원) 제작 환경 및 인프라 구축, 작가 대상 촬영 윤리 및 저작권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
-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 DB 운영 및 교류 활성화 필요

■ 설문조사 운영 및 분석

○ 개요

- 아르코아카이브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미술계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 진행
- 아르코아카이브에 대한 이용 경험 및 관심이 있는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아르코아카이브에 대한 이용 경험의 양적, 질적 상황을 파악하고 연구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설문 결과 및 시사점

- (응답 대상 및 외부자료 정보 획득의 경로) 전체 응답자의 83.4%가 기획과 창작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대부분이 학술데이터베이스, 온라인 플랫폼 검색, 직접 컨텍 등의 방식으로 외부 자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르코아카이브가 보편적인 전문 연구 플랫폼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르코아카이브 서비스의 질과 홍보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기
- (아카이브 열람 경험) 응답자 중 80%가 아르코아카이브 열람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70%가 작가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았다고 응답, 연구자 및 창작자에게 작가 포트폴리오 활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아카이브 실 개방 시간 및 운영 축소로 인해 이전보다 이용 빈도가 줄어든 측면을 살펴보며 향후 사업 추진에 참고점 제시
- (작가 포트폴리오) 한국 현대미술 작가 포트폴리오를 작가별로 구축했다는 점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응답자 중 37.5%로 높았으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의 협소함 등에 대한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도 33.3%로 나타났음. 따라서 아르코아카이브 이용객들이 자료의 가치 및 활용도에 대해 높게 평가함에 반해 자료의 양적, 질적 개선 및 열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미디어컬렉션) 영상 작가들의 초기 작업을 볼 수 있어 유익하다는 의견도 52.4%로 높았으나 미디어컬렉션에 대한 자료의 양과 질, 열람 환경의 불편함에 대한 의견이 81%로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미디어컬렉션의 자료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운영 정책 마련 필요성 제기
-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싱글채널 비디오 영상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의견이 압도적이나, 유통 생태계나 저작자의 창작 의도를 해치지 않

는 선에서 접근성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 시사

- (배급 및 작가지원 서비스 형태) 아르코아카이브의 역할에 대해 영상 작업의 유통을 위한 담론 조성 및 매뉴얼 배포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가 66.7%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 전시 등 비영리 목적의 배급 대행도 56.7%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아르코아카이브가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창작 생태계에 대한 선제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지점을 알 수 있었음

■ 개선안 및 전략과제 도출

○ 자문위원회 운영, 설문조사 진행 및 SWOT 분석을 종합하여 5대 핵심 전략과제 도출

- 아르코아카이브 비전 제시
- 사업추진 기반 확보
- 커뮤니티 구축
- 창작 생태계 육성
- 비전 가시화 및 전문성 강화

■ 중장기 발전방안

○ 전략 목표에 따른 과제 추진 방안

- **공공성을 보유한 시각예술 플랫폼 - 아르코아카이브 비전 제시**
  - ‘문화예술현장의 파트너’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 아래 아르코미술관은 예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각예술의 가치 발굴과 공유를 위해 연구, 창작, 전시, 교류 활동이 선순환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집중할 수 있는 아르코아카이브 비전 구축 전략과제로서 **‘비전 설정 및 제시’, ‘기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설계’, ‘연구 기능 확대’, ‘고유 브랜드 구축’, ‘인지도 강화’**를 제안함
  - 특히 ‘미술관 활용성 및 사회적 역할 확대’라는 아르코미술관 운영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아르코아카이브의 비전을 설정, 제시하고 더불어 내부적으로 기관 아카이브를 구축, 이를 통한 향유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브랜드를 공고히 하고 인지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확보**
  -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할 조건으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아카이브 재정비’, ‘조직 전문성 강화’, ‘안정적 예산 계획 수립’**이라는 전략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조직 운영 차원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재정비를 실행함으로써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의 소장자료 활용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 또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자료를 파악하고 관련 사항을 재정비하는 과정은 아르코아카이브 활용을 위한 필수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기관 비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구축**
  - 기관의 비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구축을 목표로 두며 아르코미술관이 지향하는 ‘유용, 포용’의 가치와 ‘협업, 공유’의 방안으로 **‘기관 협력 체계 구축’, ‘작가 커뮤니티 구축’, ‘연구자 커뮤니티**

구축'이라는 3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함

- 아르코아카이브 소장자료를 활용하여 아르코미술관의 비전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작가 및 연구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냄으로써 '학제 간 협업을 통한 미술관 담론생성'과 '공유와 소통을 위한 예술 공동체 형성'이라는 아르코미술관 운영 전략을 실천하고 미술관의 공공성을 제고

- **창작 생태계 육성을 통한 시각예술 플랫폼 위상 강화**
  - 공공성을 보유한 미술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각예술 창작자의 안정적 창작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는 창작 생태계 육성을 통한 시각예술 플랫폼 위상 강화를 전략 목표로 설정함
  - 시각예술 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제작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례화 추진'** 을 전략과제로 제시하고자 함
  - 예술 창작부터 향유까지의 지원을 도모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아래 시각예술 창작 제반 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 인프라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각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아르코미술관의 역할과 위치를 보다 공고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아카이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비전 가시화 및 전문성 강화**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각예술 플랫폼'이라는 아르코미술관의 중장기 리브랜딩 추진방향에 의거 하여 아카이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앞서 목표로 설정한 아르코아카이브 비전을 가시화하고 전문성 을 강화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설정함
  - 이를 위한 전략과제로 '**아카이브 프로그램 상설화 추진', '소장작가 붐업 추진', '아카이브 자료 온라인 공유**'를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활용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아래 아카이브 프로그램의 상설화를 도모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미술관 내부 기관 및 전시,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 연구 배경 및 목적 02
1. 연구 배경 02
2. 연구 목적 05

제2절 : 연구 범위 및 방법 07
1. 연구 범위 07
2. 연구 방법 08

제3절 : 연구 추진 체계 및 일정 11
1. 연구 추진 체계 11
2. 연구 추진 일정 12

제2장.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환경 분석

제1절 : 아카이브 소장자료 현황 및 분석 - 미디어컬렉션 14
1. 현황 및 분석 14
2. 소결 24

제2절 : 아카이브 소장자료 현황 및 분석 - 작가 포트폴리오 26

1. 현황 및 분석 26
2. 소결 30

제3장.
사례 연구

제1절 : 동시대 미술관과 아카이브의 화두 33
1. 미술관 공공성의 제고 33
2. 시각예술 매체 노후화와 다변화 34
3.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AMI) 소장과 유통의 시스템 부재 36

제2절 : 사례 현황 및 분석 37
1. 분석 범위와 방법 37
2. 사례 현황과 분석 39

제3절 : 소결 71

제4장.
개선안 도출 및 분석

제1절 : 자문위원회 운영 및 분석 74
1. 자문위원회 운영 개요 74
2. 논의 내용 및 시사점 78
3. 소결 90

제2절 : 설문조사 운영 및 분석 93
1. 설문조사 운영 개요 93
2. 설문조사 결과 95
3. 소결 102

제3절 : SWOT 분석 104
1. SWOT 분석 104
2. SWOT MIX 전략 106

제4절 : 개선안 및 전략과제 도출 108
1. 개선안 도출 108
2. 전략과제 도출 110

제5장.
중장기 발전방안

제1절 : 전략목표 및 과제 추진 방안 113
1. 전략목표 및 과제 제시 113
2. 전략목표에 따른 과제 추진 방안 117

제2절 : 중장기 로드맵 128

참고문헌 130

〈부록 1〉 설문조사 질문지 134

표 목차

[표 1-1]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소장자료 현황
[표 1-2] 연구 추진 일정표
[표 2-1] 기간별 주요 운영 특징
[표 2-2] 아르코미디어 리스트 상세 현황
[표 2-3] 사업별 구분에 따른 운영현황
[표 2-4] 아르코아카이브 소장자료 연계 전시 리스트
[표 2-5] 아르코 비평 총서 발간 리스트
[표 2-6] 연도별 세부 추진 사업 분석표
[표 2-7] 연도별 작가 포트폴리오 사업 추진 현황
[표 3-1] ICOM의 박물관 미술관 개념 변화(2007/2019)
[표 3-2] 미디어아트 보존 전략의 유형
[표 3-3] 미디어아트 보존 복원을 위한 이니셔티브
[표 3-4] 사례 연구 리스트
[표 3-5] 아시아아트아카이브, 〈이동형 도서관(Mobile Library)〉
[표 3-6] 테이트 익스체인지의 연간 주제와 주요 내용
[표 3-7] 참고사례 〈디스트리뷰션 모델즈〉 행사 구성
[표 3-8] 리좀이 제공하는 보존 복원 기술의 도구들
[표 4-1] 분야별 자문위원 명단 및 진행 일정
[표 4-2] 설문지 질문구성 세부사항
[표 4-3] 3-2번 문항(자료 접근 방법) 응답 결과
[표 4-4] 8번 문항(아르코아카이브에 바라는 제안) 응답 결과
[표 4-5] 현재/이슈 및 개선안/제안 도출 구조
[표 4-6] 추진전략에 따른 과제 도출 구조
[표 5-1] 추진전략에 따른 목표 및 과제 도출 구조

[표 5-2] 연도별 전략목표 및 과제 실행 구조도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목적에 따른 세부 목표
[그림 1-2] 연구 방법론 설계
[그림 1-3] 연구 추진 체계도
[그림 3-1] 사례연구 분석 구조
[그림 3-2] 2019 온앤포 제작과 배급, <디스트리뷰션 모델즈>
[그림 3-3] 사례연구 분포도
[그림 4-1] 자문위원단 기획 및 진행 프로세스 4단계
[그림 4-2] 1번 문항(활동분야) 응답 결과
[그림 4-3] 2번 문항(연령대) 응답 결과
[그림 4-4] 3-1번 문항(외부자료 취득 방식) 응답 결과
[그림 4-5] 4번 문항(열람경험) 응답 결과
[그림 4-6] 4-1번 문항(이용 횟수) 응답 결과
[그림 4-7] 4-2번 문항(이용 시기) 응답 결과
[그림 4-8] 5-1번 문항(작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견) 응답 결과
[그림 4-9] 5-2번 문항(미디어컬렉션에 대한 의견) 응답 결과
[그림 4-10] 6번 문항(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의견) 응답 결과
[그림 4-11] 7번 문항(배급 및 작가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견) 응답 결과
[그림 4-12] SWOT 분석표
[그림 4-13] 전략과제 도출 구조도
[그림 5-1] 5대 추진전략
[그림 5-2] 테이트 익스체인지 활동 장면
[그림 5-3] 온앤포 배급과 제작에서 공유된 유럽 AMI 배급사별 상영료 정보
[그림 5-4] HIVE의 메인 화면
[그림 5-5] HIVE의 추천 페이지

[그림 5-6] ICC x 미디어아트 연대기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시각예술 아카이브와 공공성

■ 시각예술 아카이브[1]와 미술관

○ ‘아카이브(archive)’라는 용어는 17세기 초 프랑스에서 사용되기 시작. 기원으로는 라틴어 ‘아르키바(archiva)’, ‘아르키아(archia)’, ‘아르키붐(archivum)’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고대 그리스어의 공공기록물, 정부 등을 뜻하는 ‘아르케이아(arkheia)’, ‘아르케이온(arkheion)’에 뿌리를 두고 있음. 이러한 기원에 따라 아카이브는 공적인(public), 정부 (government), 기록(records)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별하여 보관하는 장소, 보존기록물 그 자체,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뜻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짐

○ 시각예술 분야에서 다루는 아카이브 개념은 기록학에서의 아카이브 개념인 공적인 기관 기록(문서, 서류 등)을 포함하여 예술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시각예술 아카이브는 관련 문서를 비롯하여 사진, 메모, 스케치, 필름,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파일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구성될 수 있음

○ 시각예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연구에서부터 수집, 보존을 기반으로 이를 활용, 공유하는 미술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시각예술 아카이브는 미술관 및 미술기관의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과 소장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 미술과 관련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료를 수집, 평가, 분류, 보존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미술관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있어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술관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기능과 영향력

○ 시각예술 아카이브는 창작의 영감을 제공하며 시각예술 분야뿐 아니라 예술 전반의 창작자에게 자료의 가치 이상의 역할을 제공하며 영향력을 행사함. 더불어 연구자와 미술 애호가에게 미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성과를 비롯하여 시각예술 전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높이고, 전시와 소장품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을 만들어 내고 있음

○ 아카이브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층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아카이브와 연계된 전시의 경우 자료를 통해 풍성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로의 확장을 만들어 내며 결과적으로 시각예술 분야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데 매개 역할을 함

---

1) 아카이브 및 시각예술 아카이브 개념 서술은 다음 논문을 일부 참고하여 서술하였음. 이호신, “미술관 기관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과 정리에 관한 사례연구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2018): 3.

나.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관심과 수요 증가

■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최근 10여 년 사이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됨.[2] 이러한 움직임은 문화예술 분야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공고히 하며 공공영역뿐 아니라 민간영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문분야에서뿐 아니라 공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이슈임을 시사함

○ 국내 국공립 및 사립 미술기관에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도서관(Library)과 아카이브(Archives),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복합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개념인 '라키비움(Larchiveum)'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음. 사회적으로 예술 아카이브의 필요와 향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도 평창동에 2022년 개관예정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를 통해 이러한 개념을 현실화하고자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소이자 도서관(서고), 전시공간을 함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디지털 아카이브의 확산과 미술관의 자료 공유 및 디지털 열람에 대한 수요 증가

○ 디지털 환경에서는 아카이브 기관이 더 이상 현장 방문자에게만 열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보유자료를 공개, 공유하면서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음

○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권리 보호 문제에 대해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관련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공개 과정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함

다. 아르코아카이브[3]의 기능 회복 및 정체성 재정립 필요성 대두

■ 인사미술공간 아카이브의 탄생과 역할

○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1세대 대안공간은 한국 미술계에서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젊은 작가를 발굴, 지원하고 실험적인 미술을 촉진했고, 200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는 '대안적 성격의 공공기관'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사미술공간을 개관하였음

○ 인사미술공간은 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젊은 작가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육성,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음. 또한 전시 참여 작가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제작, 아카이빙하며 2006년부터는 외국기관 및 큐레이터를 위한 국내 작가 포트폴리오 DB의 리서치 기능을 추가하여 작가 포트폴리오 아카이브를 구축

○ 또한 2006년부터 프로젝트 컨설팅과 출판기획 활동을 결합하여 복합, 교류, 지속형 기능체제를 마련하고자 IASmedia(인사미술공간 아카이브) 라는 이름으로 싱글채널 비디오 중심 아카이브를 구축, 배급하기 시작

○ 『IASmedia』프로젝트 (IASmedia - Artist Video Archive & Distribution of IAS, Seoul)는 전문 외국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비디오아트 작품의 아카이빙과 컬렉션, 작품 배급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다양한 역할의 에이전

---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와 국회가 공동주최로 2021년 11월29일 "국가 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포럼을 개최하였음.

3) 본 연구에서는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아르코아카이브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보며 문맥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아르코미디어와 미디어컬렉션 역시 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같은 의미임을 밝힘.

트 역할을 개척했고, 싱글채널 비디오아트에 대한 국내 관객의 이해와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했음

■ 아르코아카이브로 업무 이관 및 통합

○ 2009년 인사미술공간에서 아르코미술관으로 아카이브 자료 및 업무가 이관되면서 아르코미술관은 아카이브 소장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추구하면서 정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 미디어 컬렉션은 배급 중심에서 아카이브 활용 중심으로 싱글채널 비디오 상영, 출판물 제작, 전시연계 프로그램, 심포지엄, 인터뷰 지원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였음

-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 미디어 프로젝트(언바운드 아카이브/ 인터뷰 아카이브/ 스크리닝 등)
-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

○ 아르코아카이브의 대표 소장 자료 중 하나로 작가 포트폴리오는 국내 시각예술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수집, 보관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국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각예술 작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아르코아카이브로 이관되면서 2010년부터 아르코미술관 2층 아카이브 실 공간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운영되었고 2021년 현재 553명의 작가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상시 열람이 가능

■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기능 회복 및 정체성 수립 필요

○ 2015년 이후 아르코미술관은 관장의 부재와 기관 내 조직 체계 변경(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로 통합 운영)으로 인해 미술관 본연의 기능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관련 사업 역시 활발히 추진되기 어려웠음. 꾸준히 명맥을 이어온 비평 총서 출간이 2019년 이후 발간 중단된 상태이며, 작가 포트폴리오의 경우 불규칙하지만, 현재까지 수집을 이어오고 있음. 따라서 이 시기부터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는 이후 수집, 보존 관리, 활용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아카이브 실의 물리적 공간에서의 '열람' 측면에서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 2019년 조직개편 이후 지원 부서의 소속 구조가 아닌 미술관 운영부서로 다시금 분리되어 운영되기 시작했음. 더불어 2020년 아르코미술관 전문 관장제도 도입 후 아르코미술관은 미술관으로서의 주요 기능 재정비 및 정체성 재수립의 필요를 요구받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각예술 플랫폼'으로서의 미술관 리브랜딩을 추진

○ 이러한 변화와 흐름 속에서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는 다양한 방식의 아카이브 방향성에 대한 정체성 모색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시각예술 창작,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각예술 분야 전문 아카이브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정립해야 할 필요를 요구받게 됨

○ 미술관의 주요 업무 중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연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아르코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 자료를 기반으로 아카이브 운영 체계를 정립하여 활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르코미술관 사업과의 연동을 전제로 소장자료 연구지원 중심의 중장기적 사업 운영 방안 도출 필요

○ 아르코아카이브의 주요 자료 중 하나인 싱글채널 비디오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컬렉션', 즉 '아르코미디어(ARKO media)'의 저장 매체 노후화로 인한 보존 문제 발생 및 디지털화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반 환경 연구 전략 수립 필요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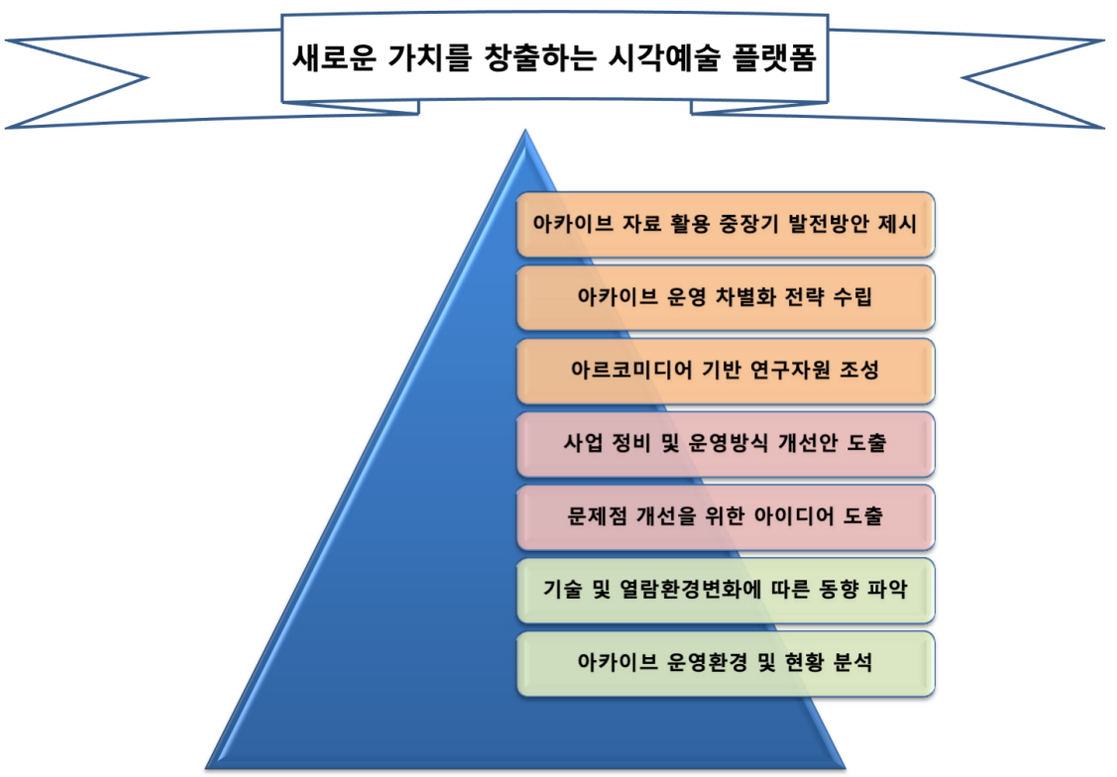
○ 작가 포트폴리오의 경우 2016년부터 업데이트 작업이 진행 중이나 매해 모든 자료가 빠르게 업데이트, 구축되고 있지는 않으며 기존 자료의 정기적 업데이트, 그리고 신규 작가의 꾸준한 업데이트와

이에 대한 명확한 선별 기준과 큐레이팅이 부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작가 포트폴리오의 경우 국내 많은 기관에서 시각예술 아카이브를 조성하기 전 시작한 초창기 시도로써 많은 기관의 모델이 되었던 점에서 그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나갈 명목이 있음

2. 연구 목적

[그림 1-1] 연구목적에 따른 세부 목표



■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소장 자료의 특장점을 부각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각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아르코미디어(ARKO media)'를 시각예술 분야 연구자원으로 조성하여 아르코아카이브가 연구 지원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 구축

■ 동시대 미술 현장 및 이론 동향 탐구를 통해 열람환경의 변화와 기술, 매체의 다변화에 따른 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에 대한 향후 대안 모색

■ 사업 정비 및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수집, 보존 관리 체계 수립, 저작권 협의 체계 정리 등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및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함

■ 아르코미술관 프로그램 연계 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함으로써 추후 아르코미술관 전시 및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설정하여 아르코미술관의 차별화된 특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

■ 유관기관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아이디어 및 추진 전략을 도출, 이에 대한 세부 실행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으로 설계하여 오랜 역사를 보유한 국내 시각예술 아카이브 기관으로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좋은 모델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4)]

1. 연구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현황 분석 : 2006년 - 2020년, 15개년 자료 기반

■ 계획 기간 : 2022년 - 2026년, 5개년 계획 수립

나. 공간적 범위

■ 아르코미술관 및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실

다. 내용적 범위

[표 1-1]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소장자료 현황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소장자료 현황				
단행본	정기간행물	**작가 포트폴리오**	**미디어컬렉션 (싱글채널 비디오)**	합계
2,721권	1,538권	**574세트**	**212점**	5,330건

(2021.6 아르코미술관 제공자료 기준)

■ 미디어컬렉션 및 작가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수집 소장 자료 현황 및 사업 추진 현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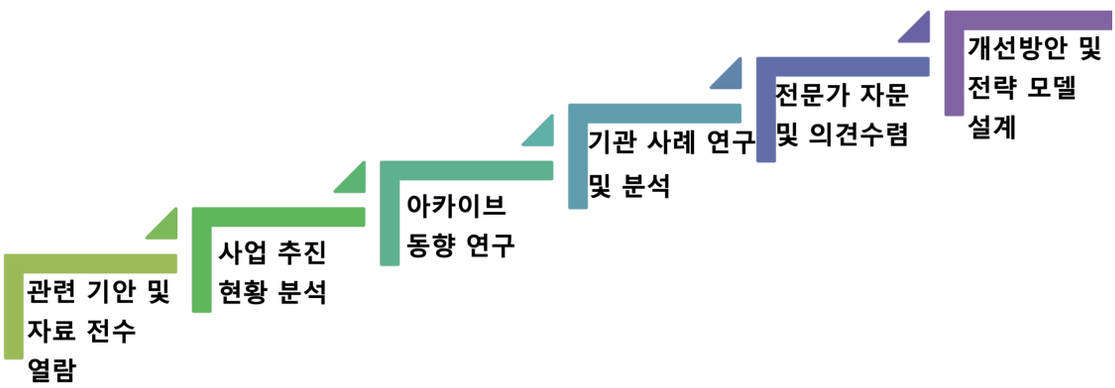
■ 아르코아카이브와 유사한 성격의 국내외 전문기관 조사 및 분석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용역 자문위원단을 구축하여 외부자문 및 아르코미술관 내부 의견 수렴을 병행

4) 본 연구는 아르코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을 위한 방안 연구로써 아르코미술관이 제공한 행정 문서 및 관련 자료, 출판물 전반에 한정하여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음을 밝힘.

2. 연구 방법

[그림 1-2] 연구 방법론 설계



가. 관련 기안 및 자료 전수 열람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각예술 플랫폼'으로서의 미술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방안 기초 조사

-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미디어컬렉션 관련기안 및 결과 자료 전수 열람 분석(2006~2015)
- 아르코미술관 작가 포트폴리오 관련 자료 전수 열람 분석(2006~2020)
-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미디어컬렉션 리스트 및 연계 전시 목록 파악(2006~2015)
-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관련 비평 총서 및 연계 출판물(도록, 배급 카탈로그) 열람 및 분석

나. 사업 추진 및 현황 분석

○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분석

○ 미디어컬렉션 운영 및 관리 현황 분석

○ 작가 포트폴리오 운영 및 관리 현황 분석

○ 저작권, 계약 등 문제점 파악

다. 아카이브 동향 연구

○ 동시대 시각예술/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관련 화두 및 미술관 공공성 개념 고찰

○ 시각예술 매체 노후화와 다변화, 변화하는 패러다임 추세 속 대응과 방법론 논의 조사

○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위한 소장과 유통의 시스템 부재에의 대응 방법론 조사

라. 기관 사례 연구 및 분석

1) 아카이브와 연구

○ 시각예술 아카이브 기관 중 연구 분야 특화 기관 운영 프로그램 및 시스템 분석

- 연구 특화 아카이브 기관 사례 분석
  - 아시아아트아카이브(AAA), 이니바, 테이트 리서치, 스테델릭 미술관

2)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육성

○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특화 아카이브 기관 현황 및 시스템 분석

- 제작 지원 기관 사례
  - 카디스트, 필름&비디오 엄브렐라, 시티 프로젝트
- 기타 지원 기관 사례
  - 오귀스트 오르츠, 스파이크 아일랜드, 리좀
- 배급 기관 사례
  - 럭스, 일렉트로닉 아츠 인터믹스(EAI), 비디오 데이터 뱅크(VDB), 리마, 아르고스 센터, 아스날 필름&비디오 연구소, AV-아르키, 식스팩 필름

3)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활용

○ 국내외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활용 특화 기관 사례 분석

- 상영 사례
  - 하버드 필름 아카이브,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닥얼라이언스, 브이드롬, 워치앤칠
- 데이터베이스 공유 사례
  - 우부웹, NTT인터커뮤니케이션센터(ICC), 더 스트림,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마.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1) 사업 개선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심층 1:1 인터뷰를 통해 사업 개선의 솔직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전문가 집단 인터뷰(FGI) 진행을 병행

○ 자문위원단 구성에 있어 아르코미술관 추천 명단 및 사전 조사를 통한 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전문가를 섭외함으로써 사업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 도출

○ 작가/ 기획자/ 유관기관 실무자/ 유통 및 배급 전문가 등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자문위원단 명단을 구성함으로써 분야별 전문가의 경험과 제안 수렴

○ 자문위원의 경험 및 관심사, 기관의 특성에 맞춰 각각의 사전 질문지를 구성하여 전달함으로써 깊이 있는 논의와 제안을 유도

○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추후 협력체계를 위한 방향성 모색

2) 설문조사 운영

○ 시각예술 분야 기획자, 연구자, 창작자 등 아르코아카이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용자 니즈를 파악하여 전달 할 수 있도록 그간의 이용 경험 실태조사 및 제안 수렴

바. 개선방안 및 전략 모델 설계

○ 아르코아카이브 현황 분석 및 자문,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SWOT 분석을 통해 아르코미술관 특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모델 연구 제시

○ 아르코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에 대한 추진 과제 및 실행과제를 설정하여 5개년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한 단계별 추진안 구체적 제시

○ 아르코미술관 사업 특화 및 연계할 수 있는 연례 프로그램, 전시 등에 대한 상세한 과제 제안

제3절 연구 추진 체계 및 일정

1. 연구 추진 체계

본 연구는 아르코미술관 실무 담당자와의 꾸준한 방향성 논의, 일정 관리, 조정 및 협의, 피드백을 거친 종합관리 체계 아래 자문위원회와의 의견 수렴을 정리 및 분석하며, 기관 사업의 운영 현황 조사, 사례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소장자료 중장기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구조로 설계함

[그림 1-3] 연구 추진 체계도



2. 연구 추진 일정

■ 연구기간 : 연구 착수일로부터 120일 (2021.7.28. ~ 2021. 11. 24)

[표 2-1] 연구 추진 일정표

단계	연구 방법 및 절차	2021년			
		8월	9월	10월	11월
1단계	착수보고회 진행 및 사업계획 수립	●			
	아카이브 관련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	●		
2단계	아르코미술관 및 아카이브 운영 현황 자료검토 / 환경 분석	●	●	●	
	아르코미술관 내부 담당자와의 실무협의, 주요현안 및 과제 논의	●	●	●	●
	관련 문헌 및 자료수집 분석	●	●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3단계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운영 차별안 도출 및 중장기 발전방안 전략 구축		●	●	●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 조사 및 분석		●	●	●
	1:1 심층 인터뷰 및 FGI 자문회의 진행			●	●
	중간보고회 및 아르코미술관 내부 실무진 의견 수렴 회의			●	
4단계	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 연계 프로그램 계획 구체화 연구			●	●
	자문회의 내용 분석 및 결과 도출			●	●
	5개년 중장기 로드맵 설계 및 심화 연구			●	●
5단계	결과보고회 개최 및 피드백 / 내부의견 수렴				●
	최종 보고서 제출				●

제2장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환경 분석

제1절 아카이브 소장자료 현황 및 분석 - 미디어컬렉션

1. 현황 및 분석

가.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2000년 유망작가를 지원하는 미술전시공간으로 출발한 인사미술공간은 2005년 특화된 아카이브와 지속적인 워크숍 활동을 기초로 시각예술 프로젝트 연구개발의 토대를 갖추었으며, 2006년 프로젝트 컨설팅과 출판기획활동을 결합하여 복합-교류-지속형 기능체제를 마련. 이를 기반으로 2006년 8월부터 'IASmedia'라는 이름으로 싱글채널 비디오를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구축, 배급하는 전문프로그램을 시작

○ 예술작품으로서 복제와 대량 배포라는 기술적인 장점과 유통의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디오아트'에 대한 국내 수용방식은 미술관이나 화랑의 화이트큐브에 전시되는 전통적인 방식을 위주로 진행되어왔다는 점에서 비디오아트의 잠재적 파급력을 고려한 관객-작품의 새로운 매개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러한 취지에서 IASmedia는 영상 작품의 유통환경을 보호하며, 국내외 배급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아카이브 컬렉션을 구축하고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운영함으로써 국내 미술 현장의 비디오 분야를 대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기획되었음

○ 특히 비디오아트의 특성을 고려한 유통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유통망 확보 및 관객층 확대를 꾀하고자 했으며 전문 외국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작가군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더불어 싱글채널 비디오에 대한 국내 관객의 이해 및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9년 이후 인사미술공간 아카이브와 아르코미술관의 전시, 연구 자료들이 통합되면서 미술관의 주요 활동과 연결하기 위해 '아카이빙', '연구', '창조적 활용'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싱글채널 비디오 컬렉션의 신작 공모를 통한 신규 소장, 연구, 배급과 전시를 통해 아카이브 콘텐츠 확충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관 프로그램과의 긴밀한 연결 프로젝트 개발하여 활용 범위와 목적이 다양한 관점에서 아카이브의 올바른 모델을 제시하고 그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함

2) 추진현황

○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인사미술공간이 주체가 되어 IASmedia 사업을 추진. 한국 현대미술 비디오 작품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컬렉션을 통한 국내 및 해외 배급 및 상영을 추진하였음. 외부 기획자 및 선정위원단의 작품 선별을 통해 다양한 국제영화제 및 국내 상영기회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배급 활동을 추진하였음

○ 2009년 인사미술공간 아카이브가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로 통합되면서 IASmedia 역시 '아르코미디어(ARKO media)'로 사업명이 변경됨. 아르코미술관 2층의 아카이브 실을 통해 자료 열람을 상시

개방했고, 배급뿐 아니라 아카이브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스크리닝 행사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

○ 2015년까지 아르코미디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2016년 이후 신규 작품 공모 및 활용프로그램, 배급사업 등을 포함한 미디어컬렉션 사업이 잠정 추진 중단되었고,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컬렉션을 기반으로 2019년까지 비평 총서가 발간되었음

○ 아르코미디어 컬렉션 내 작품 수는 아르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아르코미디어 리스트'[5]를 기반으로 총 212점 보유하고 있으며 아르코미술관 2층 아카이브 실 공간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함

[표 2-1] 기간별 주요 운영 특징

명칭	주요 운영 특징	기간
IAS media	- 2006년 8월부터 IASmedia 라는 이름으로 싱글채널 비디오 중심 아카이브를 구축, 배급 . 비디오 아카이브와 컬렉션 구축 . 비디오 및 디지털 영상 작품의 유통환경 보호 . 청년작가 육성, 지원, 운영 목적	2006~2008
ARKO media	- 아카이브 활용 중심으로 전환 - 배급 공모 추진 및 작가 인터뷰 및 워크숍 등 관련 행사 진행 - 전시 및 프로그램 연계 운영 - 비평 총서 출판	2009~2015
	- 기존 미디어컬렉션 열람 가능 - 신규 공모 및 스크리닝 행사 등 진행하지 않음 * 비평 총서는 2019년까지 출판되었음	2016~현재

나. 미디어컬렉션 리스트 현황 및 분석

○ 2006~2007년 IASmedia 컬렉션 수집을 시작하면서 총 13명의 작가의 28점 작품을 아카이빙하였음. 고승욱, 김성환과 레이디프롬 더 씨, 임민욱, 함양아 작가의 작품이 2점씩, 김홍석 작가의 작품은 4점, 안세권, 노재운 작가는 각각 3점씩 포함되었음. 2007-2008년의 경우 총 5명의 작가의 작품 12점 이 포함되었음

○ 2008~2009년 기점에 9명의 작가 중 김두진 작가의 작품 2점을 제외한 나머지 작가의 작품이 각각 1점씩 포함되었으며 2009년 아르코미디어로 이관되면서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1명의 작가 작품 52점이 컬렉션된 것으로 파악됨. 육태진 8점, 장지아 5점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 작가는 각각 1점씩 포함되었음

○ 2010년도는 12명 작가 중 5명의 작가는 각 2점씩, 나머지 작가는 각 1점씩 총 17점의 작품이 포함되었음

○ 2011년도에는 세포르마(seforma) 컬렉션의 일환으로 변시재 작가를 제외한 13명 작가의 작품 14점이 아카이빙되었고, 아르코아카이브 프로젝트 참여 작가 12인의 작품이 1점씩 총 12점이 아카이빙되었음

---

5) "아르코아카이브 미디어 리스트(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board/view/5966?bid=&cid=1600460&sf_icon_category=.

○ 2012년은 작가 15인의 23점의 작품이 아카이빙되었으며, 이 중 정은영과 안정주 작가 작품이 3점, 노재운 작가의 작품 5점이 아카이빙되었음

○ 2013년도는 유비호 9점, 함양아 10점의 작품을 비롯하여 6인의 작품 23점이 아카이빙되었음

○ 2014년도는 미디어컬렉션 수집 기록이 없으며 2015년 박준범 작가 작품 15점을 포함하여 작가 6인의 작품 총 21점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2016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는 추가 수집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표 2-2] 아르코미디어 리스트 상세 현황

연도	작품 수	작가 수	작가 명단 및 컬렉션 작품 수 (2점 이상 부터 표기)
2006 ~ 2007	28	13	고승욱(2), 김성환과 레이디프롬 더 씨(2), 김성환, 김홍석(4), 노재운(3), 박주연, 박찬경, 안세권(3), 윤진미(2), 이주요, 임민욱(2), 함양아(2), 함혜경
2007 ~ 2008	12	5	김세진(3), 김신일, 박준범(3), 안정주(3), 정은영(2)
2008 ~ 2009	10	9	김동령, 김두진(2), 김상돈, 남대웅, 남화연, 박찬경, 윤진미, 전지인, 조나현
2009	52	41	강혁, 구자영, 김기라, 김용호, 김창겸, 김해민, 김희선, 릴릴, 문경원, 뮌, 박용석, 박정혁, 서동욱, 서보형, 석성석, 송기원, 송차영, 수경, 신상호, 심철웅, 양승수, 유비호, 육태진(8), 이배경, 이부록, 이승준, 이윤정, 이재이, 이한수, 임선희, 임흥순, 장지아(5), 전수현, 전준호, 정강, 정상현, 조혜정, 제레마이어 타이펜, 진시영, 천경우, 최원정
2010	17	12	권아람(2), 김영실, 김용호, 뮌, 보통미술잇다, 이영민(2), 이영호(2), 전소정, 정성윤, 정혜정, 차지량(2), 최성훈(2)
2011 seforma 컬렉션	14	13	김재남, 김정한, 김은남, 김현주, 박혜성, 변시재(2), 오용석, 유지숙, 이현진, 임혜진, 장윤성, 최수진, 최재훈
2011	12	12	곳엉훈(고성훈), 김상균, 김세진, 김시헌, 박은영, 박준범, 석성석, 신기운, 안성석, 장지아, 정은영, 황선숙
2012	23	15	김도희, 김태은, 김혜지, 노기훈, 리금홍, 무진 브라더스(무진형제), 박민하, 박성연, 신정균, 임선희, 장규정, 장종완, 노재운(5), 안정주(3), 정은영(3)
2013	23	6	김다혜, 노영미, 박광수, 옥인콜렉티브, 유비호(9), 함양아(10)
2014	-	-	-
2015	21	6	권혜원, 무진형제, 박준범(16),윤향로, 조현아, 태싯그룹
2016 ~ 2021	-	-	-
합계	212점	132명(팀)	

* 작가수의 경우 연도별 수집된 작가 수를 살펴보기 위함으로 매해 작가수 책정에는 중복되는 작가를 제외하지 않았음

다. 사업별 운영 현황 및 분석

[표2-3] 사업별 구분에 따른 운영현황

사업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수집	배급	선정																
		공모																
	작품 공모																	
활용	상영																	
	연계 전시/ 프로그램																	
	출판 (비평 총서)																	
	열람																	
육성	배급 활동																	

1) 배급

■ 주요 추진 실적

○ IASmedia 프로젝트 (IASmedia - Artist Video Archive & Distribution of IAS, Seoul), 2006년

○ 인사미술공간 IAS미디어 배급작품 해외 비디오 페스티발 참가 추진, 2007년

○ IAS 인사미술공간 미디어 국내 스크리닝 행사 추진, 2007년

■ 추진 내용과 특징

○ 2006년부터 『IASmedia』프로젝트 (IASmedia - Artist Video Archive & Distribution of IAS, Seoul)사업 추진을 통해 전문 외국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소개. 비디오아트 작품의 아카이빙과 컬렉션, 작품 배급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함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IAS미디어 프로젝트의 경우 선정위원단의 추천 및 논의를 통해 선정된 배급 작품에 대해 활발하게 해외 영화제 출품 및 홍보를 진행하며 배급 활동을 추진. 배급 선정 작품에 대해서는 배급 카탈로그를 발행함

○ 2009년 아르코아카이브로 이관, 2010년부터 아르코미술관 미션인 개방성과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작품 선정방식 개편하였음. 이에 따라 작품선정의 공정성을 더하였고, 아르코미디어 사업 진행방식을 오픈하며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었음

○ 아르코아카이브로 이전 이후 배급 활동보다는 전시연계, 프로젝트 진행 등의 활용 부분에 보다 집중하였음을 결과 자료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었으며 2014년 이후 작품 공모에 있어 '배급' 부분이 제외되고 수집으로만 진행되었음

2) 작품 공모

■ 주요 추진 실적

○ 2012 아르코미디어 작품공모

○ 2013 아르코미디어 작품공모

○ 2015 아르코미디어 작품공모

■ 추진 내용 및 특징

○ 국내 싱글채널 비디오 컬렉션 구축을 위한 작품 공모로 아르코미디어 컬렉션 수집

○ 2012년부터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프로젝트 일환으로 작품 활용계약을 맺고 스크리닝 및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진행하였음. 이에 따라 선정 작가 1인과 작품 활용 계약을 맺으며 3점에서 많게는 10점까지 컬렉션에 포함됨

○ 아르코미디어 작품공모(2015년) 공고에 따르면 선정된 작품은 아르코미술관 미디어프로젝트, 스크리닝 프로그램, 기획 전시 등을 통해 공개되며 아르코아카이브 컬렉션으로 등록, 관리되는 것으로 진행되었음

○ 선정 작가 중 비평 총서 시리즈 작업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 미디어 비평 연구 사업과 연계하여 아카이브 자료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음

○ 작품공모 대상에서 중요한 것은 타 기관 소장품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작품을 위주로 공고 기준 전년도 1월 이후 제작된 작품으로 제한하였음

○ 또한 2012,2013년도에는 싱글채널 비디오 방식의 미디어 작품을 공모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후 2015년에는 사운드아트 등 융복합 예술까지 대상 범주를 확장하였음

3) 활용

(1)연계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 운영 방식

○ 총 10회의 전시가 미디어컬렉션과 연계되어 진행되었으며 주로 미디어컬렉션 작품을 상영하면서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 등 다양한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음

○ 2009년 아르코아카이브 이관 이후 아르코미술관을 기반으로 연계 전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2층 아카이브 실, 복도 공간 및 마로니에 공원 등 미술관 건물 내 외부 부대 공간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표2-4] 아르코아카이브 소장자료 연계 전시 리스트

NO	전시기간	전시 명	참여 작가	특징
1	2008.09.17~ 2008.10.12	무빙 이미지 아카이브	매튜 킹엄, 크리스토프 지라르데 & 마티아스 뮐러, 아니카 라슨, 마크 루이스, 크리스텔 르뢰, 앤리슬레가드	현대 예술 영역의 영화적 실험의 결과물을 전시, 상영, 강연 및 포럼으로 소개
2	2009.09.04~ 2009.09.04	VIDEO : VIDE & 0	구동희, 구민자, 김구림, 김순기, 남화연, 박용석, 박현기, 서동욱, 임흥순, 정상현, 조혜정, 함혜경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3-40대 작가들의 비디오 작품 전시
3	2009.11.12~ 2009.12.05	2009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뮌, 최상철 댄스프로젝트, 성기문재즈밴드, 웅산	인사미술공간으로부터 자리를 옮긴 ARKO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영상-미디어아트 맵 그리기 시도
4	2010.10.15~ 2010.11.06	2010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권아람, 김영실, 김영호, 뮌, 보통미술잇다, 이영민, 이영호, 전소정, 정성윤, 정혜정, 차지량, 최성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10년 아르코 미디어 신작 스크리닝
5	2011.10.05~ 2011.10.30	2011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곳엉훈(고성훈), 김상균, 김세진, 김시헌, 박은영, 박준범, 석성석, 신기운, 안성석, 장지아, 정은영, 황선숙	아카이브 자료를 통한 한국 비디오 및 미디어아트 흐름 전시 및 미디어 아카이브 활용 모색 심포지엄, 미디어 워크숍 진행
6	2012.10.11~ 2012.11.02	2012 아르코미술관 미디어 프로젝트 : 언바운드 아카이브	노재운, 안정주, 정은영, 김도희, 김태은, 김혜지, 노기훈, 리금홍, 무진브라더스(무진형제), 박민하, 박성연, 신정균, 임선희, 장규정, 장종완	2012년 신작 스크리닝, 전시, 세미나, 강연
7	2013.11.28~ 2014.01.19	2013 아르코미술관 미디어프로젝트 VIDEO LOGUE	유비호, 함양아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출간 기념 스크리닝, 세미나, 포트폴리오 전시
8	2014.02.25~ 2014.04.27	2014 아르코아카이브 프로젝트 1 : New Archive Materials	김다혜, 노영미, 박광수, 유화수, 서영란, 손정은, 최수앙, 하차연, 옥인콜렉티브, 코드프레스, 파트타임스위트	2013년 신작 스크리닝, 전시

9	2014.04.29~ 2014.07.31	2014 아르코아카이브 프로젝트 2 : 드로잉 애니메이션 Moving Lines	김세진, 박성연, 장규정, 장종완, 정혜정, 조나현	애니메이션 Moving Lines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아카이브와 아르코미디어 영상 전시
10	2015.12.15~ 2016.02.28	2015 미디어 프로젝트 아카이브 리뷰 Archive Review	권혜원, 무진형제, 박준범, 윤향로, 조현아, 태싯그룹	작품공모 선정작 및 인터뷰 영상 스크리닝

■ 주요 추진 내용

○ 2009년도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는 개방성, 다원성, 소통을 중시하는 향후 미디어-아카이브로서의 정체성을 모색함으로써 스크리닝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영상미디어 작품에 대한 쟁점들을 도출하고, 관람객, 작가, 전문가의 소통과 해석의 가능성 확인

○ 2010년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는 특정 공간을 기반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스크리닝 방식과 개념을 뛰어넘어 모바일을 활용해 이동 가능한 스크리닝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디어아트의 공간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주제별로 펼쳐지는 4회의 워크숍을 통해 미디어아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였음

○ 2011년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비디오+캐스트)는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팟캐스트에 업로드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허물고,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쉽도록 구성. 한국 비디오아트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전시로서 비디오 아카이브로서의 정체성과 확장을 모색하고자 추진함

○ 2012년 아르코미술관 미디어프로젝트는 당시 국내 미술관 중 선행적 미디어아카이브 소장처로 아르코미술관의 정체성을 내세우며 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프로젝트로 추진되었음.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 사이에 흩어져 있어 아직은 불안정한 개별적 사건들을 관람객 스스로 그 의미를 교차하고 편집하고 재해석 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아르코아카이브의 활동을 미디어 스크리닝, 비평 총서 출간, 전시, 특별강연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보여주고자 노력함

○ 2015년 아르코미디어 프로젝트는 아르코미디어 작품 공모에 선정된 총 6개 팀 작가들과 6명의 비평가의 1:1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각자의 작업에 대한 토론,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미디어아트 작업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생산했으며, 6인의 작가 작업을 중심으로 동시대 미디어아트의 흐름을 살펴보았음. 싱글채널 비디오뿐만 아니라 영상퍼포먼스, 설치, 사운드 등 다양한 영역의 국내 미디어작가 들을 대중들에게 소개하여 작가와 작품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음

(2)출판[6)]

■ 추진 내용 및 특징

-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필요와 미디어아트에 대한 학제 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평론 생산과 출판을 통한 국내 미디어아티스트 육성 및 평론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함
- 2012년부터 아르코미술관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발간. 아르코미디어 컬렉션 작가 중 선별하여

6) 미디어컬렉션 운영의 활용 차원에서 출판은 출판물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활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비평 총서에만 한하여 다루었고 그 밖의 전시연계 도록 및 배급 카탈로그는 제외함.

비평가와의 1 대 1 매칭을 통해 깊이 있는 미학적 고찰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론을 집필하여 출간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음

- 2012년 첫해 3인, 2013년 2인의 비평 총서 출간 이후에는 매해 1명의 작가 비평 총서 출간
- 2012, 2013년의 경우 비평 총서를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볼 수 있는 프리뷰 형식의 e-book으로 제작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에 대한 파일이 현재 홈페이지에 공유되고 있지는 않음
- 2018년 비평 총서(정연두 작가)의 경우 2인의 비평가가 참여하여 2개의 비평 총서 출간
- 2018년 이후 '미디어 챕터'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1명의 작가에 대한 작품론을 집필하는 방식이 아닌 젊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다루는 방식으로 총 2권의 미디어 챕터가 출간되었음
- 2019년 미디어챕터 2를 끝으로 비평 총서 출간은 중단된 상태임

■ 주요 추진 실적

[표 2-5] 아르코 비평 총서 발간 리스트

NO	출판연도	제목	필자
1	2012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1-노재운	노명우
2	2012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2-안정주	임산
3	2012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3-정은영	진수미
4	2013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4-유비호	이택광
5	2013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5-함양아	강수미
6	2014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6-박현기	이원곤
7	2015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7-박준범	정현
8	2016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8-문경원과 전준호	장 막스 콜라르
9	2017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9-김해민	정용도
10	2018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 10-1 정연두	윤율리
11	2018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 10-2 정연두	김민아
12	2018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 - 미디어챕터1	김미정, 유지원, 이한범, 김신재
13	2019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 - 미디어챕터2	이광석, 허호정, 정세라, 유운성, 이나라

라. 연도별 세부 추진 사업 및 특징[7)]

[표 2-6] 연도별 세부 추진 사업 분석표

연도	추진 사업 명	특징
2006	『IASmedia』프로젝트 (IASmedia - Artist Video Archive & Distribution of IAS, Seoul)	- 싱글채널 비디오아트에 대한 국내 관객의 이해와 저변확대 및 전문 외국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자 의욕적으로 출발하였음 - 해외 네트워크 활동 및 배급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외부 전문 기획자(김현진)위촉 및 사업 추진 - 다양한 형태의 대중매체로의 판매 에이전트 역할을 개척하고자 했음. 비디오아트 작품의 아카이빙과 컬렉션, 작품 배급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시도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 및 논의를 통해 배급 및 컬렉션 작품 선정 - 배급 계약(13인 작가, 29점) 및 컬렉션 계약(8인 작가, 8점)을 구분하여 진행
2007	• IAS미디어 배급작품 해외 비디오 페스티발 참가 • IAS미디어 국내 스크리닝 행사 • 『미디어아트 프로모션』 프로젝트	- '파리 국제 페스티발'과 같은 국제 영화제 참여하여 국내 작품 출품 및 홍보 등 배급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음 - 출품작의 경우 DVD로 제작하여 출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제반 비용은 아르코에서 추진하였음 - 외부 전문 기획자(강유미) 위촉 및 사업 추진 - IAS미디어 배급 대행 작품 및 소스통일 작업추가 추진 - URL: www.insaartspace.or.kr/iasmedia (2007. 1. 7 오픈) -'VIDEO in SEOUL 2007' (2007.02) - VIDEONALE 11 및 오버하우젠 영화제 초청(2007.03)
2008	시네마틱, 무빙 이미지의 확장-아티스트 필름 & 비디오 쇼케이스 2008	- 인사미술공간의 원서동 이전에 따른 전시 공간 확보와 이를 통해 IAS미디어 활용을 높이고 홍보하고자 진행 - 해외 영상 아카이브 중 20세기 실험 필름을 중심으로 영상 아카이브 60여점 구입 후 상영 - 외부 프로젝트 기획자(김지훈)를 통해 사업 추진
2009	2009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 커뮤니티 프로젝트 • ARKO 아카이브 프로젝트 • ARKO 스크리닝	- 개방성, 다원성, 소통을 중시하는 향후 미디어-아카이브로서의 정체성을 모색 - 영상 미디어와 퍼포먼스, 마임, 공연 등 타 장르 간 통섭 시도를 통해 아르코미술관이 설정한 장르 간 융합과 소통의 확장을 이루고자 하였음 - 세 개의 프로젝트가 연계성을 가지면서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 - 보다 나은 접근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미술관 관객참여와 개발을 모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 스크리닝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영상미디어 작품에 대한 쟁점들을 도출하고, 관람객. 작가. 전문가의 소통과 해석의 가능성을 확인
2010	2010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 아르코미디어 스크리닝 • 아르코미디어 워크숍	-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정체성 확립하고자 노력. 새로운 아르코미디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스크리닝 및 담론장을 만들고자 추진 - 특정 공간을 기반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스크리닝 방식과 개념을 뛰어넘어 모바일을 활용해 이동 가능한 스크리닝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디어아트의 공간성을 새롭게 정의

2011	2011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비디오+캐스트)사업 • 전시(비디오 스크리닝) • 학술 심포지엄 • 미디어 워크숍	- 아르코아카이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국 유일의 미디어 아카이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기획 -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시작과 전개과정을 팟캐스트에 업로드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허물고,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쉽도록 구성 -한국 비디오아트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전시로 구성 하였고 아르코아카이브의 홍보효과를 높임
2012	2012 아르코미술관 미디어프로젝트: 언바운드 아카이브 • 미디어 스크리닝 • 아카이브 전시 • 세미나 및 강연	-2009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르코아카이브의 대표적 프로젝트 - 언바운드 아카이브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 사이에 흩어져 있어 아직은 불안정한 개별적 사건들을 관람객 스스로 그 의미를 교차하고 편집하고 재해석 할 수 있음을 강조함 -국내 미술관 중 선행적 미디어아카이브 소장처로서 아르코미술관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 -아르코아카이브의 활동을 미디어 스크리닝, 전시, 특별강연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보여주고자 함
	아르코미디어 아카이브 분류·분석 연구	- (한시적)연구 코디네이터 채용, 싱글채널 비디오 컬렉션 200여점 분류 및 분석 - 세부 작업 내용 : 예술적, 미학적 분석요약(abstract)/ 시간대별 내용 기록(script)/ 장르별, 내용별 분류/ 비디오 기술(technique) 분석/ 키워드(keyword) 구분
	아르코미술관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발간	- 기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아르코미술관의 융복합예술 확대의 일환으로 미디어 및 IT와 결합한 미디어아트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매년 시리즈로 비평 총서 출간 계획 수립 - 영상문화학, 문학, 과학, 인문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작품비평으로서 학제간 비평 방식을 지향 - 비평 총서 제작 작가인터뷰 및 촬영을 진행해줌으로써 작가의 작품에 대한 핵심적 해석과 설명으로 이루어짐 - 시리즈 1(노재운), 2(안정주), 3(정은영) 발간
	2012년 작품공모	- 수익배분: 작가(70%),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30%) - 계약사례비: 기존 2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조정 - 계약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2013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 출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아르코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는 아르코미디어 작가군 120여 명 중 선정, 미디어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스크리닝과 더불어 비평 총서 함께 출간 - 시리즈 4(유비호), 5(함양아) 발간
	2013 아르코미디어 작품공모	총 73점 중 4점 선정
	2013 아르코미술관 미디어프로젝트 ARKO MEDIA PROJECT 2013 Videologue: 유비호 & 함양아 추진 • 스크리닝 • 세미나 • e-포트폴리오	- '2013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참여 작가 인 유비호와 함양아 작품중심 -비디오아카이브 상영, 세미나, 출판, e-포트폴리오 등으로 구성하여 아르코아카이브의 주요 활동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자 함 -일반 관객과의 다양한 다이얼로그를 개발하여 단선적인 작가 평가를 탈피하고 소통을 통한 새로운 담론 생성에 초점을 맞춤 - 관객과의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제안

2014	아르코아카이브 미디어 스크리닝 및 자료전시 • 영상 아카이브 스크리닝 • 아르코미디어 스크리닝 • 아카이브 전시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 출간	- 시리즈 6 발간 : 박현기
2015	아르코미디어 작품공모	-비디오아트, 디지털아트, 퍼포먼스, 사운드아트 등을 기반으로 한 아르코미디어를 구축하여 차별성 추구 -싱글채널 비디오에서 퍼포먼스 사운드아트 등으로 공모 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장르는 골고루 접수되었으며 선정 작품 가운데 사운드아트를 1건 선정
	2015 아르코미디어 프로젝트 : 인터뷰/아카이브	- 2015년 아르코미디어 작품 공모에 선정된 총 6개팀 작가들의 작업을 중심으로 동시대 미디어아트의 흐름을 살펴봄 - 6팀의 작가들과 6명의 비평가의 1:1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각자의 작업에 대한 토론,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미디어아트 작업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생산 - 싱글채널 비디오 뿐 아니라 영상퍼포먼스, 설치, 사운드 등 다양한 영역의 국내 미디어작가 들을 대중들에게 소개하여 작가와 작품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
	아르코미디어 비평 총서 시리즈 출간	-시리즈 7 발간 : 박준범

○ 2016 ~ 2021(현재)

- 내외부적으로 미디어컬렉션의 방향성 재정립의 필요성 요구에 따른 신규 사업 중단
- 미디어컬렉션의 상설 열람만 가능한 상태

2. 소결

■ 아르코미디어 컬렉션 사업 방향성 및 정체성 변화에 따른 소극적 운영 및 중단 현안

○ 미디어컬렉션은 인사미술공간의 신진 작가 육성 지원의 취지와 함께 출발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싱글채널 비디오를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했으며 배급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음

○ 2009년 인사미술공간 아카이브가 아르코미술관이 관리하는 아카이브로 이관, 통합되면서 IAS media 역시 아르코미디어로 명칭이 바뀜. 이를 통해 아르코미술관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미술계 안에서 요구하는 지원 방식의 변화를 내세우며 미디어컬렉션의 설립 취지였던 유통과 배급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아카이브의 활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음

○ 즉, 배급을 위한 컬렉션이 IAS미디어의 큰 특징이었다면 아르코미디어는 싱글채널 비디오 작품의 상영 및 연계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어 미술관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성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2012년부터는 미디어컬렉션 내 작가 작품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한 비평 총서를 발간하며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음

○ 2015년 이후 미디어컬렉션 내 신규 작가 및 작품이 추가로 업데이트되고 있지는 않으며, 관련 프로그램도 열리지 않고 있음. 관련하여 비평 총서의 경우 2019년까지 꾸준히 발간되었으나 이후 잠정

7) 세부 사업별 특징은 내부기안 및 결과보고 등 행정문서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했으며, 아르코미술관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2006 ~2015년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이외 사업 추진 내용은 도록 및 기타 리서치를 통해 보완함.

중단된 상태로 현재 아르코미술관 2층 아카이브 실 공간에서 2015년까지 수집된 212점의 싱글채널 비디오 작품을 열람할 수 있음

■ 미디어컬렉션 수집 전략의 부재, 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성 및 정체성 수립의 필요 제기

○ 미디어컬렉션의 연도별 수집 작품 및 작가를 살펴보면 아르코미디어 내 특정작가 편중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한 해마다 수집되는 작가 당 작품이 보편적으로 1~2점 내외임에 반해, 특정 작가의 컬렉션이 다른 작가에 비해 두드러지는 경향이 2012년, 2013년, 2015년의 아르코미디어 작품 공모 시기에 주로 나타남. 이는 특정 작가나 개별 작품의 소장이나 배급을 목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며, 연도별 선정 작가의 작품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계약'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됨

○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아르코아카이브 구축은 장기적인 계획 아래 추진되기보다는 연도별 상황에 따라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음. 2012년에는 배급과 작품공모가 모호하게 같은 계약 안에서 추진되었고, 이후 2015년에는 배급에 대한 내용 없이 '작품구축 및 활용'에 대한 계약으로만 추진된 것을 알 수 있었음

○ 인사미술공간의 IASmedia로 출발한 초기 미디어컬렉션이 배급을 중심으로 수집되었다면 이후 아르코미술관 아르코미디어로 이관되면서 미술관 프로그램과의 연계, 활용에 집중했던 것을 알 수 있음. 배급과 함께 이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예산 및 인력 문제로 미디어컬렉션에 대한 신규 구축 및 배급 활동에 대한 성과는 초창기보다 훨씬 미진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성을 세우고 아르코아카이브만의 정체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싱글채널 비디오를 중심으로 영상 예술 생태계 육성의 선제적 역할을 살린 꾸준한 시도 촉구

○ 초기에는 싱글채널 비디오의 발전과 비디오아트 생태계 육성 및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배급을 중심으로 싱글채널 비디오 작품 및 관련 작가를 선정하였고 작품이 자연스럽게 아카이브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 현재 많은 작가들이 싱글채널 비디오에 한정하지 않고 다채널 작업을 선보이면서 싱글채널 비디오 중심의 미디어컬렉션의 위상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디어컬렉션 연계 프로그램은 소장자료 활용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2010년부터 2012년의 아르코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통한 담론의 장을 형성하고자 시도하였고 보유하고 있는 싱글채널 비디오 컬렉션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영상예술 아카이브와 관객과의 접속방식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고 함께 고민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음

○ 이렇듯 영상 작업을 하는 작가, 작품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초창기 IASmedia사업의 취지를 살려 아르코아카이브가 영상예술,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예술 생태계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아르코아카이브가 담당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가치를 제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및 앞으로의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아르코아카이브가 2009년 인미공과의 업무 통합 이후 많은 시도와 변화를 추구하면서 정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던 것처럼 현 시점에서 아르코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 방안의 기초 조사와 미술관 연구 기능의 재정비를 보완한다면 향후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시각예술 플랫폼으로서의 미술관 리브랜딩과 재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제2절 아카이브 소장자료 현황 및 분석 - 작가 포트폴리오

1. 현황 및 분석

가. 개요

1) 자료 보유 현황

○ 총 574세트, 553명의 작가 포트폴리오 보유(2021년 7월 기준)[8)]

2) 추진 배경 및 목적

○ 2006년 '인사미술공간 포트폴리오 서가' 구축이라는 명칭으로 국제 미술계에서의 국내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분위기 아래 외국 기관 및 큐레이터들의 방문 시 국내 작가의 기본적인 리서치를 인사미술공간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포트폴리오 제작 시 계약서에 명시한 자료를 작가가 직접 구축하여 제작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작 비용을 아르코미술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아르코아카이브로 이관 이후 아르코아카이브의 대표 컬렉션 중 하나로 신규 구축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작가 군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동시대 시각예술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수집 보관함으로써 아르코아카이브 이용객들에게 작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음

○ 아르코미술관과 인사미술공간 전시 작가들의 경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작가 프로모션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국내 시각예술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수집, 보관함으로써 아카이브 이용객들에게 작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기존 컬렉션 자료 외에 아르코미술관 인사미술공간 전시와 관련된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신규 구축하여 자료의 범위를 확대함

3) 운영 개괄

○ 2006년 인사미술공간 기획초대전 참여 작가를 중심으로 '인사미술공간 포트폴리오 서가' 프로젝트로 출발, 외국기관 및 큐레이터를 위한 국내작가 포트폴리오 DB의 리서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마련

○ 미디어컬렉션과 마찬가지로 2009년 인사미술공간 아카이브가 아르코미술관으로 이관되면서 작가 포트폴리오 사업 및 소장 자료에 대한 추진 기관이 아르코아카이브로 변경되었음

○ 2010년부터 아르코미술관 2층 아카이브실을 통해 상시 열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획자, 작

8) 본 연구에서 파악하기로는 작가 1인에 대한 작가 포트폴리오 1세트가 아닌 일부 작가들의 경우 작가별 파일박스가 여러 개이며 이에 따라 작가 수와 파일 세트 수의 상이함을 보이고 있음. 선정 작가 명단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어 있으나 작가별로 몇 개의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같은 상세 정보는 아카이브 실에서 직접 확인 가능.

가 및 관심 있는 미술애호가들에게 연구기능을 알리고, 공공성을 확장시킴

○ 2018년까지 총 538명 작가의 819세트(점) 포트폴리오가 수집되었고 한 작가의 실물 포트폴리오 파일을 여러 세트로 보유하고 있거나 실물자료 보관함의 형태 및 크기의 불일치 등을 개선하고자 2019~2020년 재정비 및 박스 통일 작업을 진행함

○ 재정비 및 업데이트 된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553명 작가의 포트폴리오 574세트를 보유 중이며 온라인을 통해 작가 포트폴리오 선정 작가 명단을 공유하고 있음[9)]

나. 연도별 작가 포트폴리오 사업 추진 현황

[표 2-7] 연도별 작가 포트폴리오 사업 추진 현황

연도	주요 내용
2006	○ 100여점 포트폴리오 제작
2007	○ 1,2차에 걸쳐 총 100여명 작가 신규 포트폴리오 구축 - 1차 : 2000-2005년 인사미술공간 기획초대전 참여 작가 70명 - 2차 : 추천작가 30명 - 선정기준 : 2000-2005년 인사미술공간 기획초대전 작가 및 국내 기획자 추천 - 선정 작가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제작 의뢰서 및 포트폴리오 제작 동의서, 계약서를 받아 포트폴리오의 내용과 형식을 표준화함 - 작가가 직접 정확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제작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례비(20만원)를 지급. 제작된 자료는 실물자료와 디지털 자료로 구성, 원하는 방식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함
2008	○ 총 50여명 신규 포트폴리오 구축 - 진행 방식 : 2006년 신진작가수첩 프로젝트 진행 큐레이터 및 인사미술공간 큐레이터 추천 - 선정 작가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제작 의뢰서 및 포트폴리오 제작 동의서, 계약서를 받아 포트폴리오의 내용과 형식을 표준화함 - 작가가 직접 정확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제작 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작된 자료는 실물자료와 디지털 자료로 구성, 원하는 방식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함
2009	○ 사업 추진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 문서 및 자료 없음 *사업 이관으로 관련 업무인수인계 진행으로 추측됨
2010	○ 현황 : 아르코아카이브로 이관된 자료 총 350여명의 작가 포트폴리오 352점 ○ 총 50여명 신규 포트폴리오 구축 - 진행방식 :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선정(아르코미술관 및 인사미술공간 전시 연계 작가 중심), 외부전문가의 추천 - 선정 기준 : 2010-11년 아르코미술관의 전시방향 및 전문가 성장 워크숍과 연계되는 작가/ 2009-10년 인사미술공간 전시 참여 작가/ 아르코미디어 컬렉션 작가 및 미디어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 2009-10년 기준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진, 신진 작가 중 중복 추천된 작가 우선
2011	○ 현황 : 576세트(2011.5.7.기준) ○ 총 50여명 신규 포트폴리오 구축 - 1차 : 내부 큐레이터 추천 및 업데이트 필요한 기존 작가 30명 - 2차 :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등 사업과 연관된 20명 선정 - 선정 기준 : 2011년 아르코미술관 전시 참여 작가 및 전시방향과 연계되는 작가/ 아르코미디어 컬렉션 작가 및 미디어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 2010-11년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진, 신진 작가 중 중복 추천된 작가 우선/ 2006-2007 선정 작가 중 자료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작가 신규 제작 의뢰

9) "작가 포트폴리오 리스트(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board/view/5040?bid=&page=&cid=1602749.

2012	○ 현황 : 427명 작가 포트폴리오 623세트 (2012.4.23.기준) ○ 총 50여명 신규 포트폴리오 구축 - 1차 : 아르코미술관 전시참여 작가 중 추천 36명 - 2차 : 큐레이터 3인 추천 14명 - 진행방식 :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가 기관 내 전시와 연계되는 작가 선정 - 선정기준 : 외부 전문가 평가를 고려하여 한국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20-40대 젊은 작가군 위주로 선정/ 2011-12년 전시참여 작가가 및 앞으로의 방향과 연계되는 작가/ 미술관 전시방향과 부합하는 작가 군 중 중복 추천된 작가 우선
2013	○ 현황 : 489명 작가 포트폴리오 698세트 (2013.2.19.기준) ○ 총 42여명 포트폴리오 제작 의뢰, 융복합(다원)예술작가 16명 제작 - 업데이트 30명 - 신규 12명 - 진행방식 :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및 아키비스트 추천 선정 - 선정기준 : 2012년 참여 작가 중 현 미술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20-40대 젊은 작가 위주 선정/ 기관 비전과 연계하여 융복합예술작가 선정
2014	○ 융복합(다원)예술작가 5명 포트폴리오 신규 제작 - 융복합 예술 작가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아르코미술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함 - 아르코미술관 방문객들에게 동시대 예술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2015	○ 현황 : 총 514명 작가 포트폴리오 754세트(2015.3.25.) ○ 총 30명 - 1차 : 21명(2015년 아르코미디어 선정작가, 2013-14 아르코미술관 및 인사미술공간 전시 참여 작가로 구성) - 2차 : 10명(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아키비스트 리서치를 통해 국내외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신진작가로 구성)
2016	○ 현황 : 총 535명 작가 포트폴리오 795세트(2016.3.24.) ○ 총 20명 기존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추진(2010년 이전 제작된 포트폴리오 우선으로 작가들의 제작 동의 후 진행)
2017	○ 현황 : 총 536명 작가 포트폴리오 807세트(2017.2.8.) ○ 총 22명 작가 포트폴리오 제작 추진 - 1차 : 12명 - 2차 : 10명
2018	○ 현황 : 총 538명 작가 포트폴리오 819세트(2018.4.기준) ○ 총 30명 작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추진 - 1차 : 13명 - 2차 : 17명
2019	○ 현황 : 총 538명 작가 포트폴리오 819세트(2019.4.8.기준) ○ 총 32명 작가 포트폴리오 제작 추진 - 1차 : 18명 (신규 6명, 기존 컬렉션 업데이트 12명) - 2차 : 14명 (신규4명, 기존 컬렉션 업데이트10명) *1차 재정비 추진
2020	○ 현황 : 552명 작가 포트폴리오 600세트(2020.2.25.) -> **총 553명 작가 포트폴리오 574세트** ('작가 포트폴리오 목록(~2020)' 내부 자료 기준) ○ 총 32명 작가 포트폴리오 제작 추진 - 신규 구축 : 11명 - 업데이트 : 21명 * 중복되는 작가의 경우 실물자료 박스 통일 등 2차 재정비진행

* 위 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행정 문서 추진기안 및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연도에 따라 추진 결과 기록물을 찾기 어려운 경우 추진기안을 바탕으로 작성, 세부적인 수치는 실제 추진 결과값과 상이할 수 있음

다. 작가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영방식

1) 작가 포트폴리오 구성

■ 실물 포트폴리오(A4 Size로 출력하여 스크랩 파일로 제출)

○ 작가약력 (국문/영문)

○ 작품이미지 (출력물, 미디어 작품일 경우 CD, DVD 포함)

○ 작품설명, 작가노트, 비평문 (국문/영문)

○ 기타(작업과정 등 작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

■ 디지털 포트폴리오(CD 혹은 DVD)

○ 실물 포트폴리오 자료와 동일하게 첨부

○ 사진, 영상, 사운드 작품/공연 자료 포함

■ 출판물

○ 전시도록, 리플릿 등 관련 출판물

2) 연도별 선정 방식 및 기준

■ 신규 제작에 따른 작가 선정 방식 및 기준

○ 초창기 구축단계에서는 인사미술공간 기획전시에 참여한 작가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제작을 추진하였고, 선정 당시의 신진작가 및 유망작가 위주로 내 외부 큐레이터의 추천을 받아 작가를 선정

- (2007년)2000~2005년 인사미술공간 기획초대전 참여 작가 선정
- (2008년)2006년 신진작가수첩 프로젝트진행 큐레이터와 인사미술공간 큐레이터 추천
-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가 아르코미술관 및 인사미술공간 전시 참여 작가 중 작가 선정
- 외부전문가 추천

○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로 이관되면서 작가 포트폴리오와 미디어컬렉션이 연동될 수 있도록 미디어컬렉션 내 작가를 선정하였고, 아르코미술관 내 참여작가 및 전시방향과 연계되는 작가를 위주로 선정

- (2010년)IASmedia 작가 등 미디어 아카이브를 지향하는 아카이브의 성격에 맞는 미디어 작가
- (2011년)2010~2011년 아르코의 전시방향 및 전문가 성장 워크숍과 연계되는 작가
- (2012년)2011-2012 아르코미술관 전시 참여 작가 및 앞으로 전시방향과 연계되는 작가
- (2012년)아르코미술관 전시 방향과 부합하는 작가군 중 중복 추천된 작가를 우선으로 선정
- (2013년)2012년 참여작가 중 현 미술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국제성과 실험성을 갖춘 20-40대의 젊은 작가군 위주로 신규 포트폴리오 컬렉션
- (2014년)2013년~14년 아르코미술관 인사미술공간 전시 참여 작가 및 2015년 아르코미디어 공모 선정작가 우선

○ 1-2년 내 한국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망 작가(중진 및 신진)를 우선으로 하며, 특정 연도에는 융복합 예술을 지향하는 당시 기관의 비전과 연계하여 영상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작가를 선정

-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중진작가 및 유망한 작가로 판단되는 작가(2010년)
- (2011년)2010~2011년도 한국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중진작가 및 신진작가 중 중복 추천된 작가를 우선으로 선정
- (2012년)외부 전문가 평가를 고려하여 현 미술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국제성과 실험성을 갖춘 20-40대의 젊은 작가군 위주로 선정목록을 구성
- (2014년)2014년 현재 융복합 다원 예술 창작을 통해 예술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작가 군으로 아르코미술관의 <TRADITION (UN)REALIZED>사업과 연계된 작가군 5명을 최종 선정
- (2015년)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아키비스트의 리서치를 통해 현재 국내외 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신진작가

■ 작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추진 및 기준 주요 변화

○ 2006-2007년까지의 선정작가 중 자료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작가들을 선정하여 신규제작 의뢰(2011년)

○ 2010년 이전 제작/제출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료 업데이트 우선 추진(2016년)

○ 2010년 이전 제작/제출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료 업데이트 우선 추진(2017년)

○ 작가 포트폴리오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 컬렉션 자료들 중 최근 자료들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작가들을 우선 추진(2017년, 2018년, 2019년)

2. 소결

■ 국내 예술 아카이브 초창기 구축기관으로서의 가치 및 신뢰도 회복 필요

○ 작가 포트폴리오는 전시, 작품과 같은 결과물 중심이 아닌 작품을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결과까지의 추진과정, 작가 관련 연구 자료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이를 수집하고 열람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작가 및 미술 생태계 육성으로 이어지는 아르코아카이브의 방향성을 보여주었음

○ 작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미술계 및 창작자, 연구자들의 신뢰도가 과거에 높았던 만큼 이러한 가치를 지닌 아카이브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아르코아카이브만의 비전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인사미술공간에서 출발한 '포트폴리오 서가 프로젝트'는 당시 많은 작가 및 큐레이터들의 호응을 받으며 추진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보다 접근이 용이한 실물자료에 기반하여 실제 공간에서 작가들을 조사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기능하였음

○ 또한 초창기 구축 단계에서의 작가 포트폴리오가 갖는 의미는 당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망 작가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2021년 현 시점에서 기 구축된 작가 포트폴리오는 한국현대미술을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하고 있음. 현 시점에서 유망한 신규 작가 포트폴리오 제작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간다면 작가 포트폴리오는 아르코아카이브만의 역사이자 자산으로 아르코의 특징으로 내세울 수 있음

■ 기존 자료 업데이트 및 신규 제작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작가 포트폴리오는 아르코아카이브 명칭 아래 가장 오랫동안 지속 추진해온 사업으로 작가 포트폴리오는 아르코아카이브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것이기도 함. 따라서 기존 자료 업데이트 및 신규 제작 등 사업의 꾸준한 추진 및 관리가 필요함

○ 작가 포트폴리오 구축 방식은 아르코미술관에서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작가가 직접 제작, 축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생존 국내 작가 포트폴리오의 특성상 꾸준한 업데이트 및 자료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업데이트 작가를 선정하고 연락하는 방식도 병행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작가가 직접 움직이고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작가와의 계약관계 내 저작권, 소유권, 디지털 매체전환에 따른 추가갱신 필요성, 보급 활용에 따른 법률적 보완 필요 등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보완해나가며 계약관계를 재정리하고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르코아카이브 정체성에 맞춘 작가 포트폴리오 제작 및 작가 선정 기준 마련 필요

○ 작가 포트폴리오의 작가 선정에 대한 주요 기준으로는 인사미술공간 및 아르코미술관 전시 참여작가에서 부터 연계 가능성이 있는 작가, 선정 시기 1-2년 사이를 기준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작가, 미디어컬렉션 작가 및 미디어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 등으로 살펴볼 수 있음. 기본적으로 아르코미술관 내 전시의 참여 작가를 우선으로 선정한다는 기준이 있으나 참여 작가라고해서 선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더불어 추후 아르코미술관 전시와의 연계 가능성이 있는 작가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은 추상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미디어컬렉션 작가를 포함하는 기준이 포함된 시기와 아닌 시기 등 명확한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더불어 작가 포트폴리오 구성 작가에 대한 선정 방식 역시 내부 큐레이터 자체 선정인 경우와 외부 전문가 추천 혹은 내외부 추천을 병행하는 방식 등 매해 상이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가 포트폴리오의 방향성 및 구성 계획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아르코아카이브의 비전과 정체성에 기반하여 작가 포트폴리오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선정 방식 및 기준을 명확히 수립, 공개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작가 선정 기준의 임의성과 불명확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편적이고 확장성을 보유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음

■ 작가 포트폴리오 목록의 메타데이터 구축 필요 및 온라인 공유 가능성 제안

○ 자료의 디지털화를 염두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물자료 위주의 구성을 통해 실제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던 초창기 작가 포트폴리오의 추진목적에 따라 작가 포트폴리오는 온라인 공유용이 아닌 실물자료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음

○ 최근 디지털아카이브, 디지털도서관 등 온라인을 통한 자료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현 시점의 아카이빙을 통한 미래지향적 물리적 자료 축적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료의 리스트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차후, 이를 백서출간 및 아카이브 전시 등으로 재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목록화 및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제3장

사례 연구

제1절 동시대 미술관과 아카이브의 화두

○ 시각예술 전반을 범위로 한 작가 포트플리오와 싱글채널 비디오 기반의 미디어컬렉션으로 이루어진 아르코아카이브의 구성을 고려하여 시각예술 전반과 미디어아트에 집중된 문제를 범위로 하여 동시대 미술관 및 아카이브의 화두를 선정함

1. 미술관 공공성의 제고

■ 미술관 공공성 개념의 변화

○ 과거 미술관의 공공성이 미술관의 기본 기능인 수집, 보존, 연구를 기반으로 전시를 통한 소통에 중점을 둔 '공유'의 의미였다면 최근의 미술관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민주적, 다성적, 포괄적인 공공의 장이 되기를 요청

■ 과거와 현재의 비판적 대화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미술관 개념 이행

○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2019년 개정안을 통해 박물관 미술관 개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박물관 미술관의 주요 개념이 인류의 문화적 자산을 수집 보존 전시 연구하여 공중에 개방하는 것에서 과거와 미래의 비판적 대화를 위한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다성적인 공간을 구성하여 인간의 존엄과 사회 정의, 지구적 평등과 안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변화함[10)]

[표 3-1] ICOM의 박물관 미술관 개념 변화(2007/2019)

2007년(1946년 이후 개정안)	2019년 개정안
"뮤지엄은 비영리 영구 기관으로 사회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며 공중에게 개방되며, 교육, 연구와 향유를 위해 인류 사회의 유형 및 무형 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하고 이를 전시하고 소통하는 곳이다."	"뮤지엄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비판적 대화를 위한 민주적이고 포용적며 다성적인 공간이다. 현재의 갈등과 과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며, 사회를 위해 유물과 표본을 수집하고 보관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다양한 기억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와 유산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뮤지엄은 비영리 기관이다. 뮤지엄은 참여적이고 투명하며, 다양한 공동체와 협력하여 수집, 보존, 연구, 해석, 전시하고 이를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인간의 존엄과 사회 정의, 세계 평등과 지구의 안녕에 기여하고자 한다."

■ 다양한 계층에의 미술 향유 가능성의 제고 요청

○ 21세기 초 담론적 전환이 이론화되면서 영국의 철학자 샹탈 무페(Chantal Mouffe)가 즐겨 인용됨. 무페는 '경합적 다원주의(agonistic pluralism)'를 위한 공간으로서 미술관을 이야기하며, 이제 사회는 사람들이 항상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으므로 차이들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전진을 위한 가장

10)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2020, "박물관 정의: 팩트 시트(The museum definition: A fact sheet)," ICOM, https://icom.museum/wp-content/uploads/2021/01/10-07-29_fact-sheet-museum-definitie_ENG.pdf.

건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함. 미술관은 이를 위한 궁극의 장소인 만큼 공공이든 사립이든, 사회 안이든 바깥이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임[11]

○ 암스테르담 유대인역사박물관 관장인 에밀 슈레이베르(Emile Schrijver)는 스테델릭 미술관이 미술관을 공공의 장소로 제공한 <스테델릭 스테이츠먼츠>에서 미술관을 "위험한 논의를 위한 안전한 장소"라고 표현함[12]

○ 2020년 9월, 한국박물관협회는 "평등을 위한 박물관: 다양성과 포용성"을 주요 화두로 내세워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미래 박물관의 역할을 모색하며 문화 다양성 확장을 위한 여러 시도들, 박물관에서 여성의 위치와 특히 한국 사회의 다민족화가 추동하는 박물관의 변화 등을 논의함

2. 시각예술 매체 노후화와 다변화

■ 시각예술 작품의 노후화와 관련한 작품의 생명 연장

○ 비디오 테이프의 화학적 변이, 미디어 재생 기술과 제반 환경의 변화에 의해 재생 불능 상태에 처한 미디어아트 작품의 생명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음

○ 넷아트의 경우 최초 창작 시 기반했던 웹 브라우저 서비스의 종료로 인해 재생 불능 상태에 처한 경우, 삭제한 경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웹상의 보존 문제도 있음

○ 구겐하임 미술관의 학예연구사였던 존 이폴리트(Jon Ippolito)는 시간 기반 매체의 노후화와 변형에 대비한 보존 전략으로 저장(Storage), 모방(emulation), 이주(migration), 재해석(reinterpretation)의 4가지 유형을 제시함[13]

[표 3-2] 미디어아트 보존 전략의 유형

전략	전략 내용
저장 storage	작품에 사용된 매체와 동일한 모델이나 여분의 장치를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사용
모방 emulation	작품 원본의 방식과는 다른 매체를 사용하여 똑같이 재현
이주 migration	기존의 매체를 현재 구동 가능한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외형이나 느낌의 변화 수용
재해석 reinterpretation	작품의 크기, 형태를 재구성, 새로운 장소 새로운 매체의 수용을 허용

○ 미디어아트의 보존과 복원은 미술관이 소장한 작품의 매체 노후화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진행되어 옴. 사례로 ZKM, VMN(가변적 미디어 네트워크/구겐하임미술관, 다니엘 랑글루아 예술과학기술재단), DOCAM(다니엘 랑글루아 예술과학기술재단), MMA(뉴 아트 트러스트, MoMA, TATE, SFMoMA)이 있음

---

11) 마르흐르트 셰버마커르, "판을 바꾸며: 미술관 연구와 포용의 정치," **큐레토리얼 사이와 변주,** 곽재은 외 역(서울: 국립현대미술관, 2018), 92.

12) Ibid., 92-93.

13) 배수빈, 한경순, "뉴미디어 아트 보존에 대한 고찰: 국내 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33(2018): 143.

[표 3-3] 미디어아트 보존 복원을 위한 이니셔티브

구분	활동시간	주관기관	주요 기능과 성격
가변 미디어 네트워크 (Variable Media Network, VMN)	2000-2004	구겐하임미술관, 다니엘 랑글루아 예술과학기술재단	[뉴미디어아트의 유형 분류] - 보존을 목적으로 매체의 성격에 따라 뉴미디어아트를 포함 - 설치 행위 상호작용 복제 교체기능 부호화 네트워크화로 8가지 유형 분류에 따른 보존 전략 제시 -시간 기반 매체의 노후화와 변형에 대비하여 저장, 에뮬레이션, 마이그레이션, 재해석의 4가지 뉴미디어아트 보존 전략 제시 [장기적 전시를 위한 질문서 작성]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보존 전략을 적용하여 작품별 장기적 전시를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중심으로 질문서 작성
DOCAM (DOCAM Research Alliance)	2005-2009	다니엘 랑글루아 예술과학기술재단	[보존 전략 제시] VMN과 동일한 4가지 보존 전략을 토대로 추가적 사례연구와 심화된 연구 내용 제시 [작품 수집 절차 제시] -작품 수집 전 작품의 저작권 및 보존처리와 관련하여 작가와의 협의를 강조 -작품의 원본증명서, 저작권과 에디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 양식 제공 [기록관리 매뉴얼 제시] -사례연구를 토대로 작품의 자료 분석과 수집, 설치 매뉴얼, 자료정리 등 기록관리 매뉴얼 제시 -작품의 구성품과 수량 및 내용을 기록하는 작품 구성요소와 기술적 설치 절차를 기재한 묘사 기록 사례 제시
미디어아트의 문제들 (Matters in Media Art, MMA)	2005-2016	뉴아트트러스트, MoMA,TATE, SFMoMA	[작품 수집 매뉴얼 제시] -작품 수집 전 필요한 문서 자료 항목 제시 -작품 수집 전 작품의 기술적 매체 확인을 강조하여 수집 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 마련 ex) 작품 매매계약서, 저작물 이용동의서, 기증의 계약서와 설치 지침서, 예산서

* [표 3-3]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 이셋별, "뉴미디어 아트 보존을 위한 기술적 보존 전략과 기록관리 연구 : 가변적 미디어 네트워크(VMN), 도캄연구협회(DOCAM), 미디어 아트의 문제들(MMA)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17), 9-10; 권인철·권희홍, "뉴미디어 아트의 보존 전략을 통한 보존처리 방법 연구," **국립현대미술관 연구논문** 9(2017), 99.

■ 시각예술 작품의 다변화와 관련한 새로운 미술 형식 기술 방법론 요청

○ 뉴미디어아트, 시간기반 예술, 비물질 예술의 기술을 위한 연구와 기록의 방법론이 요구됨

○ 미디어아트 기록에 있어 메타데이터 요소의 문제. 통합 데이터 구축을 위해 표준이 필요하나 현재 기관별로 상이하게 기록함

○ 작품 기술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경우 더블린 코어, CDWA, VRA, MPEG-7, MPEG-21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3.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AMI) 소장과 유통의 시스템 부재

■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작품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요청

○ 1960년대 중반 비디오아트의 등장 이후, 70년대 들어 미국과 유럽 각지에 비디오아트를 전문적으로 전시 및 배급해주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들이 등장함[14)]

○ 대표적인 기관으로 1971년 설립된 비영리 조직 EAI(Electronic Arts Intermix, NY, USA), 1976년 설립된 시카고 예술대학 내 비디오아트 아카이브 및 배급서비스 기관 비디오데이터뱅크(Video Data Bank, Chicago, USA), 현재 리마(LIMA)가 된 네덜란드의 몬테비데오(Montevideo)를 들 수 있음

○ 비디오아트의 유통에 있어 출판사나 극장과 같이 대중 시장을 겨냥할지, 갤러리와 소수 컬렉터 상대로 에디션을 붙인 제한된 수량의 작품을 제작해 판매할지 선택의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유효한 이슈임

■ 문화 영역과 산업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유통망에의 모색

○ 전통적인 미술 작품의 소장과 유통은 물질 기반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퍼포먼스, 디지털아트, 무빙이미지와 같은 비물질, 시간 기반 예술과 맞지 않음

○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퍼포먼스, 웹 기반 프로젝트와 같은 비물질 예술에 관한 주목과 비중이 커진 데 비해, 개별 작품을 제작하거나 유통, 소장하는 과정은 여전히 전통적인 물질 기반 예술에 맞추어져 있어 새로운 생태계 시스템이 고안될 필요가 있음

○ 비물질 예술을 위한 소장과 유통의 생태계, 미디어 산업과 관련하여 영상 기반 작품 유통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영역과 산업의 영역을 아우를 필요가 있음.[15)] 이는 미술의 영역이 미술계라는 문화의 영역과 미술 시장이라는 사업의 영역으로 각기 다른 범주의 활동을 포괄하기 때문임

14) 조정욱,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의 소장자료 온라인 공개 활성화 방안 연구-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5), 13.

15) 이임수, “공유경제 시대 미술관의 문화논리,” **한국예술연구** 25(2019): 95.

제2절 사례 현황 및 분석

1. 분석 범위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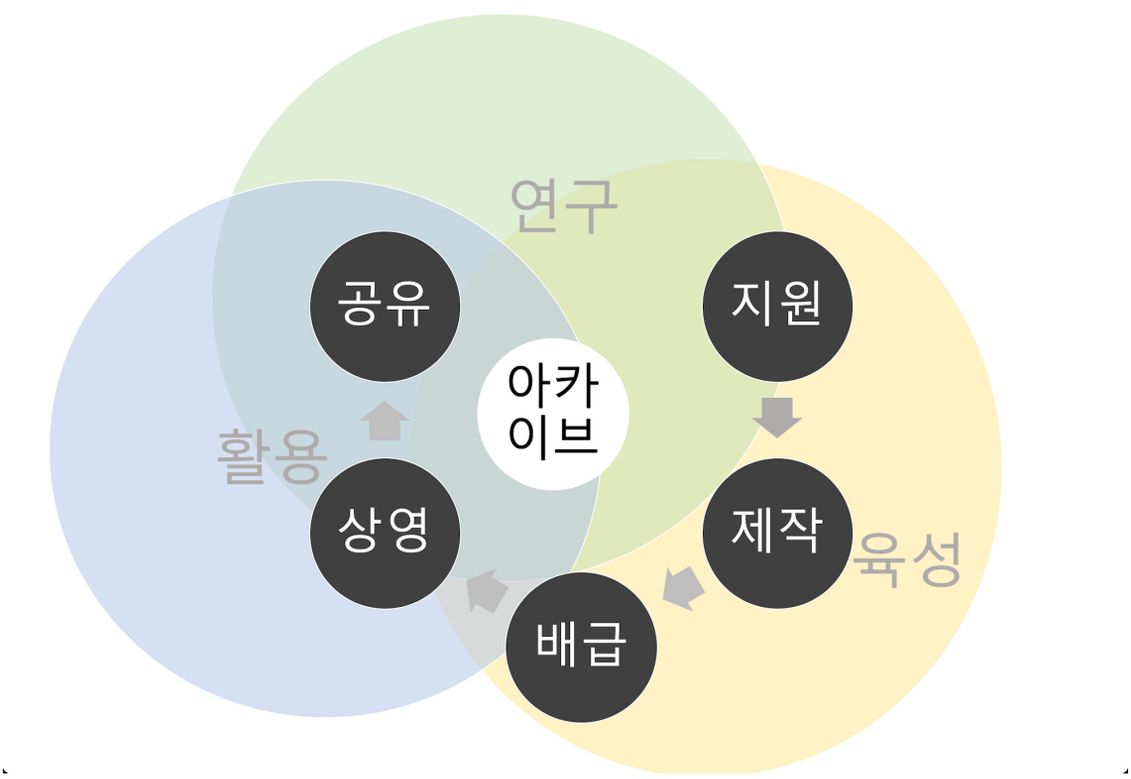
■ 사례 연구 분석의 범위와 방법

○ 아르코아카이브의 중장기 활용 계획 도출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아티스트 무빙이미지의 생태계 파악과 그 분석을 사례연구 목표로 설정함

○ 아티스트 무빙이미지 작품의 제작에서 소장에 이르는 생애의 각 과정(제작지원, 제작, 배급, 상영, 공유)별 행위 주체(예술가, 기관, 배급사, 영화관, 미술관, 포털)를 사례 조사 범위로 설정하고 기관이 수행하는 행위의 주요 3축을 연구와 육성, 활용으로 설정하여 분석의 구조를 도출함

○ 미술관의 주요 활동 분야인 연구, 육성, 활용의 3대 분야의 하위 분야로 육성에 제작지원, 기타지원, 배급을, 활용에 상영과 공유를 설정함

[그림 3-1] 사례 연구 분석 구조



■ 사례 연구 기관 리스트

○ 각 기관의 기관명과 설립년도, 위치, 홈페이지, 주요 특징과 참고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으로 조사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구성 항목으로 정리함

○ 사례 연구 대상 기관[16]은 어느 한 가지 분야에 특화된 기관이 아니며, 중점 분석 분야인 연구, 육성(제작지원, 기타지원, 배급), 활용(상영, 공유)은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관련 기관의 운영에 참조점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팀의 관점을 반영하여 도출함

[표 3-4] 사례 연구 리스트

중점 분석 분야		사례 기관	조사 항목
연구		아시아아트아카이브(AAA)	1) 기관명 2) 설립년도 3) 위치 4) 홈페이지 5) 특징 6) 프로그램 / 프로젝트 / 구성
		이니바(INIVA)	
		테이트리서치(TATE Research)	
		스테델릭 미술관(Stedelijk Museum Amsterdam)	
육성	제작지원	카디스트(Kadist)	
		필름&비디오 엄브렐라 (film and video Umbrella)	
		시티프로젝트(Cityprojects)	
	기타지원	오귀스트 오르츠(Auguste Orts)	
		스파이크 아일랜드(Spike Island)	
		리좀(Rhizome)	
	배급	럭스(LUX)	
		일렉트로닉 아츠 인터믹스(EAI)	
		비디오 데이터 뱅크(VDB)	
		리마(LIMA)	
		루프 바르셀로나 (LOOP Barcelona)	
		아르고스 센터(Argos Center)	
		아스날 필름&비디오 연구소	
		AV-아르키(AV-arkki)	
		식스팩 필름(Sixpack Film)	
활용	상영	닥얼라이언스(Doc alliance)	
		브이드롬(Vdrome)	
		워치앤칠(Watch&Chill)	
		하버드 필름아카이브 (Harvard Film Archive)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공유	우부웹(Ubuweb)	
		NTT인터커뮤니케이션 센터(ICC)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더 스트림(THE STREAM)	

16) 사례 연구 대상 기관은 FGI 자문회의를 통해 수집함. FGI 참여자에게 국내외 영상 아카이브와 배급처 참고 모델에 대한 추천을 사전에 요청한 뒤, FGI를 통해 파악한 참고점을 토대로 1차 리스트를 선정하고, 중점 분석분야를 중심으로 최종 리스트를 구성함.

2. 사례 현황과 분석

가. 아카이브와 연구

■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sia Art Archive, AAA)

○ 설립년도 : 2000년

○ 위치 : 홍콩

○ 홈페이지: http://aaa.org.hk/

○ 특징

- 큐레이터 클레어 수(Claire Hsu)와 존슨 창(Johnson Chang)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 단체. 예술은 지식이라는 생각에서 아시아의 최근 미술 지식의 수집, 생성, 공유를 사명으로 함
- 에디토리얼&리서치, 컬렉션, 커뮤니케이션&행정, 프로그램&교육 팀으로 조직이 구성됨. 전 세계 38명의 큐레이터와 비평가를 자문위원으로 두고 자료를 수집함
- 연구와 레지던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을 집합적으로 확장하고자 함
- 다양한 방법으로 컬렉션을 활성화하고 배포하며 예술 분야 연구자가 AAA의 자료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레지던시와 보조금을 제공하고, AAA 컬렉션을 비판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외부의 예술 이니셔티브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컬렉션을 사용하여 예술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함
- 초창기 AAA의 활동은 아시아 각국의 미술계 양상과 미술 기관의 활동을 최대한 많은 자료를 통해 수집하고 이를 맵핑하는 형태의 조사와 아시아적 차원의 조망하는데 초점이 있었으나 2010년 대부터는 아시아의 지리정치, 전통의 혁신, 여성 미술사 등과 같은 주제를 통해 아시아 미술 담론을 심화하고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함

○ 프로그램

- **모바일 라이브러리 :**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아시아 전역의 문화 협력자들과 협력하여 조직된 정기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AAA의 컬렉션의 일부를 아시아 로컬의 미술기관과 학교에 일시적으로 순환 또는 영구 기증하며, 자료가 머무는 동안 해당 프로그램을 공동 주최한 단체들과 현지에서의 아카이브 컬렉션 인쇄물의 유통과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지식의 형태로 접할 수 있도록 함
- **저널 운영**
  - 필드 노트(Field Note) : 이전까지 아시아 각국의 아트 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매월 발행하던 뉴스레터를 접고 미술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심도 깊은 저널을 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 매호마다 주제에 맞는 형식으로 저널을 구성함. 아시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질문, 미술 아카이브의 방법론 등 AAA의 기관 의제인 아시아와 아카이브를 주제화한 저널을 선보임
  - 아이디어 저널 : 온라인 출판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다루어져야 할 긴급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이메일을 통해 받아 내부 검토를 거쳐 온라인에 게재함. AAA는 이 저널을 위한 투고를 모집하는 페이지에 AAA가 주목하는 연구 분야에 대한 글을 받는다고 안내하는데, 이는 '예술 글쓰기', '복잡한 지리', '전통을 통한 혁신', '교육학, 전시의 역사', '퍼포먼스 아트', '미술사 속의 여성'등 으로 AAA의 지향점을 잘 보여줌

- **미술 페미니즘 위키피디아 에디터톤 2020 (Art + Feminism: Wikipedia Edit-a-thon)**

  M+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자들이 모여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온라인 정보 플랫폼에 여성 예술가들의 자료를 추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에디터톤 : 편집을 뜻하는 에딧(edit)과 마라톤(marathon)의 혼성어로 일반적으로 편집자들이 특정한 주제나 콘텐츠 종류를 편집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모이는 행사. 위키백과 에디터톤은 주로 위키미디어 재단 지부나 박물관, 기록 보관소와 같은 문화 기관에서 개최되고, 유적지, 박물관 소장품, 여성사, 미술, 페미니즘, 위키백과의 성 격차 문제 해소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여성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LGBT 커뮤니티는 성적, 인종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에디터톤을 이용하고 있음[17)]

[표 3-5] 아시아아트아카이브, <이동형 도서관(Mobile Library)>

2011(파일럿)	2013	2013	2014-2015	2021-2022
베트남	자프나, 스리랑카	콜롬보, 스리랑카	미얀마	네팔
				
- Open Edit: Mobile Library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파일럿 프로그램 - 6주간 이동, 여행, 교환 관련 AAA 보유 자료 180건을 전시 - 대중 대상으로 직접 책을 편집해보는 워크숍을 통해 자료를 재해석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그 과정을 전시에 공개함	- 400권의 단행본으로 구성된 모바일라이브러리를 3개월간 스리랑카에 운영 - 스리랑카 자프나 미술대학의 커리큘럼에 이동하여 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 스리랑카 소재의 미대를 초청하여 아카이브의 자료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	- AAA의 자료와 스리랑카 현대 미술, 건축, 디자인 아카이브 전시와 함께 스리랑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관한 에 관한 2일간의 영화 상영 및 대화 프로그램	- AAA 자료 450건을 미얀마예술자원센터(MARCA)에 기증 - 미술 교육 워크숍, 공연 예술 워크숍과 디지털 아카이빙과 보존을 위한 표준을 소개하는 패널 토크를 진행	- 네팔 지역 예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AAA의 도서 자료 제공 - AAA 컬렉션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카이브와 관련된 역량강화 워크숍, 교사 연수 프로그램, 대학 워크숍, 팝업 전시회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

17)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에디터톤.

■ 이니바(Institute of International Visual Arts, INIVA)

○ 설립년도 : 1994년

○ 위치 : 영국 런던

○ 홈페이지 : https://iniva.org/

○ 특징

- 영국 시각예술의 새로운 국제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전시 기획과 출판, 교육프로그램,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
- 아프리카와 아시아 예술사와 예술가를 주요한 주제로 다루며 이에 관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예술가와 큐레이터, 저술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프로필과 연구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아카이빙하며, 이를 온/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
- 각각의 전시와 프로젝트의 핵심 주제를 다룬 학술자료 및 전문 자료를 정리한 문헌정보 'Project Bibliographies'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 연구의 확장을 유도함

○ 프로그램

- **이니바 크리에이티브 러닝 (Iniva Creative Learning,ICL) :** A Space(예술 치료 서비스)와의 파트너십에서 발전한 학교 및 지역 사회와 함께 진행하는 학습 프로젝트와 통합 미술 및 미술 치료 워크숍. 감성과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는 새로운 방법론에 관심 있는 교사, 상담가, 치료사, 미술 교육자, 학생 및 부모를 위한 미술 중심 커리큘럼 생산 및 제공함
- **스튜어트 홀 라이브러리 (Stuart Hall Library) :** 이니바가 주목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독특하고 희귀한 컬렉션을 제공. 3500개 이상의 개별 예술가 작품집을 포함한 10000 여권 분량의 컬렉션. '영국 흑인 예술 운동(UK Black Arts Movement)' 자료 컬렉션을 포함한 다양한 원주민, 아프리카, 카리브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예술 및 디아스포라, 정체성, 인종, 계급, 젠더, 정치학에 관한 도서를 보유함. 이러한 분류 자체가 기관의 지향점을 보여줌

■ 테이트 리서치(Tate Research)

○ 위치 : 영국 런던

○ 홈페이지: https://www.tate.org.uk/research

○ 특징[18]

- 시각예술 리서치와 소장품 관리 지식을 조사 연구하는 부서로, 테이트에서 진행되는 전시 학술 교육 소장품관리, 보존, 교육 전영역의 구심적 역할을 함
- 테이트 소장품을 주제로 한 동시대 학자, 연구자, 학생의 연구 조사활동(Tate Research Project)을 지원하며, 미술사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예술작품을 통해 알게 된 동시대 문화 기술의 발전과정, 보존과학, 문화이론과 문화 정책, 교육과 박물관 및 미술관학을 다룸
- 각 리서치 프로젝트는 짧게는 3개월-길게는 3년 이상 진행하는 등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의 목적 달성에 집중
- 모든 연구 내용은 전시를 위한 학예 연구 데이터로 사용되며, 테이트 심포지엄, 강연회, 테이트 채널과 오디오, 비디오 파일을 기반으로 한 팟캐스트, 온라인 강의, 워크숍, 각종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함

○ 프로그램

- **테이트 페이퍼 :** 테이트에서 정기 발행하는 온라인 학술지로, 오늘날 국제 미술 동향과 미술관 실무 관련한 주제를 다룸[19]
- **테이트 채널 :** 시청각 자료로 구성된 디지털 아카이브를 3개의 유튜브 채널(Tate, Tate Talks, Tate Kids)에서 공유. 전시정보, 작가와 작품에 관한 지식, 창작과 관리에 관한 기술과 방법, 관객의 시선을 전달하는 소주제로 분류[20]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 교사와 학생,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함[21]
- **테이트 익스체인지(Tate Exchange)[22]**
  - 테이트 모던과 테이트 리버풀에 위치한 공간(테이트 모던 블라바트닉 건물 5층, 테이트 리버풀 1층 갤러리) 이자 프로그램
  - 사회 시스템 속 예술의 역할을 질문하는 것을 목표 삼고 오늘날 세계를 형성하는 당대 이슈를 공개 토론하기 위해 실제적, 가상적 차원의 공동의 공간(common space)을 만들고 미술관 안팎의 예술가, 기고자, 대중, 미술관 회원 등을 초대함
  - 프로그램 기본 가치를 '개방(Openness)', '관대(Generosty)', '도전과 신념(Risk and Trust)'로 설정함으로써 당대 미술관의 공공성을 확립하고자 함
  - 누구나 참여해 당대 주제에 관해 논의하고 미술관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해마다 주제를 선정하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는 아르코미술관 및 아카이브 의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음

---

18) 다음 두 자료를 참조, 요약하여 작성함. 김연진, **유휴공간 활용 미술품 보관시설 조성방안 기초연구**(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119-121; 미팅룸, **셰어미: 공유하는 미술, 반응하는 플랫폼**(서울: 스위밍꿀, 2019), 97-98.

19) 미팅룸, **셰어미: 공유하는 미술, 반응하는 플랫폼**, 98.

20) Ibid., 99-100.

21) Ibid., 100-101.

22)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Rob baker. "The Museum, Brand and Society," https://www.britishcouncil.org.br/sites/default/files/apresentacao_robbaker.pdf.

[표 3-6] 테이트 익스체인지의 연간 주제와 주요 내용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20-2021	2021-현재
키워드	교류 Exchange	제작 Production	이동 Movement	힘 Power	사랑 Love
내용	다양한 개인과 사회 간 교류가 지닌 에토스와 접근방식에 집중	도자 공장 설치 작업에서 시작해 제작의 여러 형태와 그 성질 연구	사회운동부터 이주, 오브제의 글로벌 수송, 축구와 무용까지 탐구	개인과 집단 권력의 행동과 변화에 관한 일년 간의 라운드테이블 진행 및 개입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재고
리드작가	팀 에첼	클레어 투메이	타이나 브루게라	하이픈 랩스	블랙프라이드

■ 스테델릭 미술관(Stedelijk Museum Amsterdam)

○ 설립년도 : 1895년 설립, 시립으로 운영되다가 2008년 민영화함

○ 위치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홈페이지 : https://www.stedelijk.nl/en

○ 특징

- ‘문화 다양성’, ‘포용성’, ‘접근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세심한 시스템을 통해 미술관 방문과 작품 경험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있음
-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예술 작품을 통해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 <잊을 수 없는(Unfogettable)>을 제공하고, 큰 활자의 안내문을 비치하고, 건강 상의 이유로 미술관의 정상 운영 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며, 간병인과 안내견의 출입을 장려하고 미술관의 모든 텍스트를 오디오로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함

○ 프로그램

- **스테델릭 스테이츠먼츠 :** 예술가, 학자, 비평가, 문화기업가 등이 저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미술관을 내어주고 퍼포먼스, 토론, 금요일 저녁 이벤트를 혼합하여 예술적 연구를 발표하게 하는 프로그램
- 주최자는 시각예술과 디자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음. 3번째 행사였던 미술가 조제프 사순 세마(Joseph Sasoon Sema)의 프로젝트는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외부의 대안적 해석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의 사례가 됨. 세마는 카지미르 말레비치, 마크 로스코, 바넷 뉴먼 등 모더니즘 작가들의 작품에서 유대인의 맥락을 발견하는 연구에 30년 넘게 전념해 온 작가로서, 스테델릭 스테이츠먼츠에서 동료 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토론과 퍼포먼스를 통해 미술의 감상이 서구적 패러다임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비판함

나.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육성

1) 제작지원

■ 카디스트(KADIST)

○ 설립년도 : 2006년(파리), 2011년(샌프란시스코)

○ 위치 : 프랑스 파리, 미국 샌프란시스코

○ 홈페이지: https://kadist.org/kvl/

○ 특징

- 국제 현대 미술 컬렉션을 보유한 학제 간 현대 미술 조직.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주최하고 전시회, 출판물 및 공개 행사를 제작함
- 예술가들을 진보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하게 공헌하는 사상가로 인정하며 전 세계 네트워크에 의해 컬렉션 아티스트를 지명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컬렉션 작품을 선정하며, 컬렉션을 자원 삼아 프로그램을 조직함. 800명 이상의 예술가의 1,600점 이상의 예술 작품으로 이루어진 컬렉션은 매년 100여 작품씩 확장하고 있음
- 컬렉션 작품에서 출발하는 카디스트의 프로그램은 우리 시대의 긴급한 사회 정치적 힘에 대응하는 예술가의 목소리로 핵심 문제를 강조하는 데 목표를 둠
- 국제 현대 미술 컬렉션을 갖춘 예술 단체. 수집 기관이자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주최하고 전시회와 출판물, 공개 행사를 기획함

○ 프로그램[23)]

- **카디스트 비디오 라이브러리(https://kadist.org/kvl/) :** 카디스트 컬렉션에 포함된 아티스트의 비디오 작품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 소장 작품 외에도 컬렉션 작가의 작품 전반의 온라인 배포 권한을 보유하고 온라인 상영을 도모함
- KVL 방문자는 무료 계정에 등록하면 웹 사이트에서 직접 KADIST의 보안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300개 이상의 비디오 작품을 보고 작품 및 아티스트와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음
- 타이틀이나 작가 명 외에도 작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 추상적인 검색을 지원함
- 비디오 라이브러리는 카디스트에서 관리하고 SFMoMA 미디어 큐레이터 루돌프 프릴링(Rudolf Frieling)이 조언함

23) “Kadist Video Library-VIDEOCLOOP,” https://www.arteinformado.com/guia/o/kadist-video-library-videocloop-129359.

■ 필름&비디오 엄브렐라(Film & Video Umbrella, FVU)

○ 설립년도 : 1985년

○ 위치 : 영국 런던

○ 홈페이지 : https://www.fvu.co.uk/

○ 특징

- 영국 전역의 갤러리 및 문화 파트너와 협력하여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작품을 커미션 제작하고 다양한 문화 공간을 통해 선보이는 기관
- 영국 아트 카운슬의 복권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하며 프로젝트 별로 기업 후원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며 컨설팅, 출판물 판매와 장비 대여 등의 일부 사업을 통해 비용을 보충함
- 예술가를 사회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체로 보고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을 기관의 역할 삼으며, 다양성과 포용성, 실험성, 협업, 신진에의 지원 등을 원칙 삼아 매년 5-6 개의 프로젝트를 의뢰하고 수집함
- 테이트 모던, 헤이워드 갤러리, 리즈 갤러리, 테이트 리버풀, 화이트채플 갤러리 등 영국 내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와 교류를 통해 작품의 상영 기회를 확보함

○ 프로그램

- **어워드 :** Ferwood/FVU 어워드, 마이클 오페리 상, 비욘드(BEYOND) 등 3종류의 어워드를 진행함
  - **Ferwood/FVU 어워드 :** FVU, Jerwood Arts, 리즈 갤러리가 협력하여 제정하여 격년으로 운영하는 상. 활동 5년 내의 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에게는 25,000파운드 상당의 상금을 수여하며 FVU에서 전체 제작을 지원하고 리즈 갤러리에서 첫 선을 보임
  - **마이클 오페리 상 :** 연간 운영하는 무빙 이미지의 실험성과 혁신성에 관한 저술에 부여하는 상. 우승자와 2인의 준우승자를 선정하며, 각각 500파운드, 250파운드의 상금을 수여하며 저술을 미술 전문 잡지 아트 먼슬리와 FVU에서 출판함
  - **비욘드(BEYOND) :** 2020년 판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커미셔닝을 위해 제정한 상. 2500파운드의 제작비와 FVU의 프로덕션 지원을 제공하며 완성된 작품은 FVU 플레이어를 통해 스크리닝함

■ 시티 프로젝트(City Projects)

○ 설립년도 : 2003년

○ 위치 : 영국 런던

○ 홈페이지: http://www.cityprojects.org/

○ 특징

- 핵심 자금이 없는 재정적 독립 상태를 엄격하게 유지하며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예술가에게 무빙 이미지 프로젝트를 의뢰하고 함께 제작함
- 제작 의뢰를 통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창작의 과정동안 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초기의 제안서 작성부터 기금의 마련, 작품의 제작의 전 과정을 함께 작업함
- 작고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프로젝트별로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을 운영 목표 삼음

○ 프로젝트

- **루시 파커(Lucy Parker), <Solidarity> :** 건설 산업에서 노동 운동으로 인해 정치적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과정에 관한 사회 비판적 영화로, 전체 과정을 시티 프로젝트와 함께 제작함
- **댄 워드(Dan Ward), <제작의 정치(Politics of Production)> :** 영국 내 아티스트 무빙이미지의 현재 조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협업 연구 프로젝트. 시각예술 작가 댄 워드(Dan Ward)가 2년 동안 60개의 작품의 제작 과정을 조사하며 연구한 끝에 시티프로젝트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작의 정치(The Politics of Production)>를 발표. 이 연구는 시티프로젝트의 케이트 파커(Kate Parker)의 <런던 아티스트 무빙이미지 조건의 현재(The Condition For Artists' Moving Image Production in London Today)>와 관련됨[24)25)]

24) 다음 자료를 참고해 작성. 김신재 "기후와 관측: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제작과 배급을 위한 실천과 모델," **프로젝트 비아 2019 결과보고서**(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9.

25) 언급된 연구 프로젝트 결과물은 다음 링크에서 내려받기 가능. Dan Ward, "Politics of production," https://www.cityprojects.org/wp-content/uploads/2020/01/The-Politics-of-Production_2020_web.pdf; Kate Parker, "The Condition for Artists' Moving Image Production in London Today," https://www.cityprojects.org/wp-content/uploads/2019/04/Conditions-for-producing-artists-moving-image_Kate-Parker-2016.pdf.

2) 기타 지원

■ 오귀스트 오르츠(Auguste Orts)

○ 설립년도 : 2006년

○ 위치 : 벨기에 브뤼셀

○ 홈페이지: https://augusteorts.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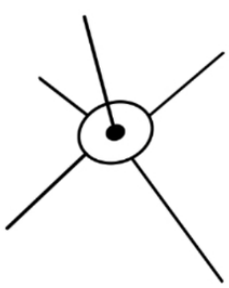
○ 특징

- 필름과 비디오의 확장된 영역에서 작업하는 4인의 예술가 헤르만 에이셀버그(Herman Asselberghs), 스벤 오귀스티예넨(Sven Augustijnen), 마논 드 보어(Manon de Boer), 아눅 드 클러크(Anouk de Clercq)가 설립함.

○ 프로그램[26)]

- **온앤포 제작과 배급(On & Fo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분야 육성과 제작, 유통, 커미션, 큐레이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아티스트, 프로듀서, 배급사, 큐레이터, 조직, 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제작과 배급에 관한 지식을 교환하는 공개 워크숍, 사례 연구 세미나, 심포지엄 운영
  - 디스트리뷰션 모델즈(Distribution Models) : 오귀스트 오르츠가 매년 진행하는 무빙이미지 제작과 배급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작품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담론의 성장, 부문 간 지식 교류의 번성, 부문 개발을 육성하기 위해 실질적 정보가 교류될 수 있도록 섹션들을 기획함
  - 예술가, 영화 제작자, 제작자, 배급업자, 갤러리스트, 박물관 직원, 큐레이터, 영화제 프로그래머, 독립 프로그래머, 영화 기금 및 정책 입안자, 예술 커미셔너, 예술/영화 산업 학생 및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의 애호가와 컬렉터를 대상으로 공개 워크샵, 사례 연구 세미나, 심포지엄과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제공함

[그림 3-2] 2019 온앤포 제작과 배급,
<디스트리뷰션 모델즈>



Distribution Models—Brussels, 2019

26 April 2019 - Beursschouwburg, Brussels

26) On&For, https://onandfor.eu/programme

[표 3-7] 참고사례 <디스트리뷰션 모델즈> 행사 구성

섹션	대상	내용
데이터 스왑 (DATA SWAP)	전문가 대상	실험영화,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전문 배급사와 기관이 한 해 수익, 배분, 상영료 등의 운영 관련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배급의 현재를 진단하고 공동으로 도출할 수 있는 현안을 논의한 섹션
디스트리뷰션 더미즈 (Distribution for Dummies)	신진 작가 및 학생	출품할 영화제를 선택하는 방법, 영화제에 작품을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섹션
워크 세션 (Work Session)	전문가 대상	예술가들이 제작을 앞두거나 제작 중인 작품을 미리 소개함으로써 제작과 유통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 [표3-7]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 김신재 "기후와 관측: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제작과 배급을 위한 실천과 모델," 2-4.

- **Dissent!** : 벨기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연구 프로젝트 "Figures of Dissent"에서 발전한 대화 시리즈. 아르고스아트센터, 쿠티산페스티벌과 함께 영화와 정치 사이의 현대적 관점을 탐구
- **PAM** : 시청각 예술, 미디어아트의 개발, 제작, 배포,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해마다 등록 절차를 밟은 기관의 전문가들에게 기금, 제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

■ 스파이크 아일랜드(Spike Island)

○ 설립년도 : 1992년

○ 위치 : 영국 브리스톨

○ 홈페이지 : https://www.spikeisland.org.uk/

○ 특징

- 1970년대 중반 예술가를 위한 저렴한 스튜디오 공간을 운영했던 예술가 그룹에 의해 설립된 아트스페이스 브리스톨(Artspace Bristol)을 전신으로 함. 수백 명의 예술가, 크리에이티브 산업 및 커뮤니티의 본거지 역할을 하고 있음
- 커미션, 전시회, 이벤트의 제작과 발표가 이루어짐
- 저렴한 스튜디오 공간, 도자 작업을 위한 가마부터 고급 프로젝터와 시청각 장비까지 전방위 전문 장비 대여 등의 정책으로 예술가의 작품 개발과 제작을 지원하며, 수익사업으로 장비 대여, 영화 및 비디오 제작, 시청각 설치, 포스트 프로덕션, 설치 등의 서비스를 운영함

■ 리좀(Rhizome)

○ 설립년도 :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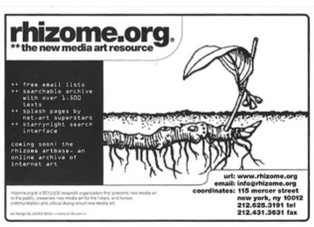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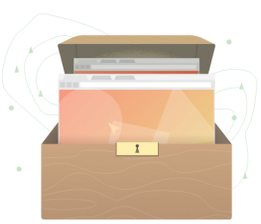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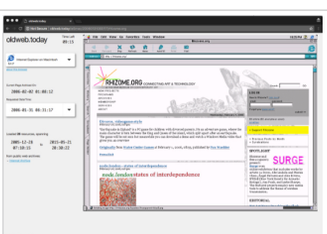
○ 위치 : 미국 뉴욕

○ 홈페이지: https://rhizome.org/

○ 특징

- 넷아트 보존을 위해 예술가 마크 트라이브(Mark Tribe)가 설립함
- 넷아트 보존뿐 아니라 뉴미디어아트 전반의 육성과 보존을 지원해 옴
- 2003년부터 뉴욕 뉴뮤지엄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NEW INC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뉴뮤지엄에 자리 잡음[27)]
- 미디어아트의 장기적 보존과 관리, 기록을 위해 디지털아트 아카이브 '아트베이스(Artbase)'를 구축하고, 웹 기록 서비스 '웹리코더(Webrecoder, 현재는 Conifer로 명칭 변경)와 에뮬레이션 서비스 '올드웹투데이(Oldweb.today)'를 배포함

[표 3-8] 리좀이 제공하는 보존 복원 기술의 도구들

구분	명칭	참고이미지	기능
아카이빙	Artbase 아트베이스		디지털아트 아카이브 넷아트 작품과 작품에 대한 메타데이터 DB 제공
웹 기록	Webrecoder (Conifer) 웹리코더(현재 '코니퍼'로 명칭 변경)		소프트웨어 웹페이지 기록 서비스를 제공
에뮬레이션	Oldweb.today 올드웹투데이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 서비스 지원(웹사이트를 이전 시기의 브라우저 환경으로 보도록 지원)

27) 미팅룸, **셰어미: 공유하는 미술, 반응하는 플랫폼,** 129.

○ 프로그램

- **아트베이스(Art Base)**
  - 리좀의 디지털아트 아카이브로 1999년 구축해 1980년대부터 동시대에 이르는 디지털 작업 2000여 점을 아카이빙함. 넷아트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나 이후 소프트웨어, 코드, 웹사이트, 무빙이미지, 게임, 브라우저 같은 매체를 동원해 웹에서 구현되는 작품을 선별하고 아카이빙함[28)]
  - 2008년까지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등록하는 시스템이었으나 이후로 큐레이터 추천 작품이나 리좀의 커미션 또는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작품을 아카이빙 하고 있음[29)]
  - 아트베이스는 두 가지 유형의 메타데이터를 사용함. 작품 자체에 대한 정보인 작품 메타데이터(Artwork Metadata)와 작품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나 기술에 대한 메타데이터인 기술 메타데이터(Technology Metadata)로 구성. 또한 타 기관에서 수집되는 다른 유형의 정보와 전통 예술 분야와의 통합 가능성을 고려해 메타데이터 작성 시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표준 AMICO(The Art Museum Image Consortium), CDWA(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 을 고려하여 작성됨[30)]
  - 리좀 회원으로 가입 후 아트베이스에 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Artist, Artwork, URL, Description, Biography, Resume를 제출함. 아트베이스 담당자의 선정기준에 의해 등록 여부가 결정되면 링크된 오브제(linked object), 복제된 오브제(Cloned object) 중 하나로 등록됨. 복제된 오브제로 작품을 제출할 경우 작품의 복제본은 포함하지 않으며, Artist Statement, Resume, Description, Image, Keywords, Related Link를 메타데이터로 작성하며, 복제된 오브제로 제출할 경우 리좀 서버에 저장될 작품의 복사본을 제출하게 됨. 작품의 제출 후 코디네이터의 확인과 정보 보완을 거쳐 아트베이스에 게재함[31)]
  - 작품의 제출자가 직접 용어(terms)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 작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작가가 직접 장성하게 함으로써 작품에 구체적인 분류를 제공하고, 리좀이 제공하는 용어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검색의 편의를 보완함. 작품 제출자가 제안한 새로운 용어는 일정 수준 사용빈도에 따라 리좀 아트베이스 단어(vocabulary)로 등록됨[32)]

- **웹리코더(Webrecoder)[33)]**
  - 2014년 소프트웨어 개발팀에 의해 개발 및 배포된 웹페이지 캡처와 구축 소프트웨어
  - 복잡한 웹 페이지를 쉽게 캡처해서 즉시 재구축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프트웨어로, “Linked Today≠Online Tomorrow” 라는 슬로건으로 웹리코더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음
  -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탐색하는 동안 네트워크 트래픽과 브라우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기록

---

28) Ibid., 131.
29) Ibid., 131.
30) 심혜영, “미디어아트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9), 8.
31) 아트베이스 등록의 상세한 절차는 아트베이스 위키의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 https://artbase.rhizome.org/wiki/User_Guide.
32) 아트베이스의 작품 검색 관련 어휘에 관하여는 리처드 라인하트의 게시글을 참고. https://rhizome.org/community/36369/.
33) 미팅룸, **셰어미: 공유하는 미술, 반응하는 플랫폼,** 133-134.

(record)'하고, 웹페이지에 삽입된 미디어 파일이나 복잡한 자바스크립트등이 다시 실행되도록 캡처할 수 있음

- **올드웹.투데이(Old Web.today)[34] :**
  - 현재 컴퓨터 기기에서 과거 컴퓨터 환경을 모방(emulation) 방식으로 복원해 실행해 주는 소프트웨어
  -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과 리좀이 공동 개발한 '에뮬레이션 애즈 서비스(Emulation as a Service)'를 기반으로 함
  - 레거시 브라우저(Legacy Browser, 과거 버전 또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와 앱을 모방(emulation)해서 당시 모습 그대로 현재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
- **세븐 온 세븐(Seven on Seven, 7X7)[35]**
  - 해마다 진행하는 커미션 프로그램. 아티스트 7인과 테크니션 7인이 파트너십을 통해 작품이나 프로토타입 등을 개발,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히토 슈타이얼과 알고리즘 전문가의 협업(2016), 아이 웨이웨이와 컴퓨터 보안 연구자이자 해커인 제이콥 아펠바움의 협업(2015) 등

34) Ibid., 133.
35) Ibid., 135.

3) 배급

■ 럭스(LUX)

○ 설립년도 : 1960년대 (런던 영화인 조합The London Filmmakers Co-operative과 런던 비디오아트 London Video Arts), 2001 럭스센터(The Lux Center), 2002(LUX)

○ 위치 : 영국 런던

○ 홈페이지: https://lux.org.uk/

○ 특징[36)]

- 영국 아방가르드 영화를 이끈 피터 기달(Peter Gidal)을 필두로 한 런던 영화인 조합(London Filmmaker's Co-op)를 전신으로 하며, 멤버십 모델로 운영되기도 함
-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실천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영국의 비영리 에이전시로, 주로 무빙 이미지 작품을 수집 배급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어옴
- 무빙 이미지 작품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충실한 에이전시로서 럭스 플레이어(LuxPlayer)를 통해 온라인 VOD 서비스를 제공하며, 타 기관 및 페스티벌 등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빙 이미지의 유통을 활성화함
- 아카이빙이나 배급 이외에도 온라인 큐레이팅, 교육 프로그램, 출판, 투어 프로젝트, 커미셔닝, 리서치 등의 업무를 수행함. 원-온-원 세션을 통해 작가 면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또한 LUX가 고수해온 활동 방향 중 하나임
- 과거 조합 시절에는 아티스트가 자발적으로 영화를 맡기면 저장하는 방식의 수집이었으나, 현재는 분기별로 내부 직원과 외부 자문가(컬렉션 작가와 외부 큐레이터) 패널을 통해 새 작가나 작품을 제안하고 논의해 수집함[37)]
- 배급을 위한 허브 기지 역할 수행. 영국 내 주요 미술관, 갤러리, 미디어 페스티벌, 교육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비영리 목적의 다양한 전시와 상영회에 작품을 제공. 각종 이벤트 직접 기획, 개최하거나 리서치, 출판, DVD 제작, 신작 제작 지원 및 레지던시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보유한 작품 컬렉션을 활용
-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작품만을 전문적으로 수집, 배급, 홍보하는 데이터베이스이자 전문 에이전시 역할을 담당하는 비영리 기관. 전 세계 1500명이 넘는 아티스트의 작품 4,500여 점으로 이루어진 컬렉션 보유. 실험영화, 비디오아트, 퍼포먼스 아트,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시각 예술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광범위하게 아우름
- 럭스 컬렉션은 일부 작품을 디지털 복사본이나 순환용 프린트 형태로 관리하며, 컬렉션 작품의 보관과 대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아티스트 작품 홍보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시로 기능함

○ 프로그램 :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의 두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함

- **LUX 크리티컬 포럼 :** 무빙이미지 아티스트 간 상호적으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작업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LUX와 대화하는 월례 토론 그룹.

---

36) 다음 자료를 참조, 요약하여 작성. 지가은, "아카이브/기관 024. 럭스(LUX Artist's Moving Image)," https://blog.naver.com/meetingrooom/220083748099; 김신재, "기후와 관측: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제작과 배급을 위한 실천과 모델," 9.

37) Benjamin Cook, "How do works get into the LUX distribution collection?," https://lux.org.uk/how-does-work-get-into-the-lux-collection/.

- **전문 실습 :** 16mm 필름 워크숍, 녹음, 3D 디지털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쓰기, 프로듀서와의 협력, 프로덕션 펀딩, 유통 등 무빙 이미지 아티스트를 위해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워크숍 시리즈
- **AAP(Associate Artists Programme) :** 1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정규 학위 과정 마친 현직 아티스트 대상의 재교육 프로그램. 센트럴 세인트마틴 미술대학과 연계해 무빙 이미지 연구 석사 과정을 위한 커리큘럼 구성에 긴밀하게 기여
- **럭스플레이어(LUX Player)**
  - 유료 결제 후 48시간 동안 모든 플랫폼에서 영화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디지털 대여료'를 청구함. 대여료의 50%는 아티스트에게 직접, 10%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나머지는 LUX 컬렉션의 관리 및 관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됨
  - 결제에 있어서 영국 파운드, 달러, 유로의 3가지 화폐 단위를 지원하며 페이팔, 체크카드,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지원함
  - 스트리밍에 있어 비메오(Vimeo) 플레이어를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HD 화질의 비디오를 제공함

■ 일렉트로닉 아츠 인터믹스(Electronic Arts Intermix, EAI)

○ 설립년도 : 1971년

○ 위치 : 미국 뉴욕

○ 홈페이지: http://www.eai.org/

○ 특징

- 60년대 키네틱 아트와 미디어아트를 중점으로 선보인 하워드 와이즈(Howard Wise) 갤러리의 운영자 하워드 와이즈가 비디오아트 프로젝트 지원과 육성을 위해 EAI를 비영리 재단으로 설립함
- 세계 최대의 비디오아트 아카이브로서 비디오아트 배급서비스를 운영해 왔음
- 1965년 최초의 비디오아트 작품으로 기록된 백남준의 작품부터 최근의 고해상도 비디오 영상 작품까지 약 50년간 축적된 3,500여개 비디오아트 아카이브 컬렉션과 더불어 포스터, 카탈로그, 신문 기사, 사진 등의 비디오아트 관련 매뉴스크립트 기록물 아카이브도 보유함
- 초기 비디오아트 기록매체인 오픈릴(open reel)이나 유메틱(U-matic) 유형의 비디오테이프가 각종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보존성이 떨어지며, 해당 비디오테이프에 맞는 재생장비가 없을 경우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보존 취약성을 인지, 80년대 중반부터 보존관리 프로젝트 시작. 비디오아트컬렉션의 매체 이전(마이그레이션) 및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에 작품 이미지와 영상, 정보를 제공[38)]
- 에디션 제한이 없는 비디오 작품의 수집과 배급을 위해 저작자와의 계약에서 복제본 제작과 이용에 관한 제한 조항을 명시함. 배급용 작품을 어떤 포맷으로 만들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 기관과 저작권자간 저작물 이용허락서에 포함됨

○ 프로그램

- **온라인 전시 <키네틱 역사>(A Kinetic History: The EAI ARchives Online)** :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비디오아트 운동의 발생을 되짚어보는 전시로, 아카이브 컨텐츠를 활용해 온라인 전시로 진행함

38) 조정욱,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의 소장자료 온라인 공개 활성화 방안 연구-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44.

■ 비디오 데이터 뱅크(Video Data Bank, VDB)

○ 설립년도 : 1976년

○ 위치 : 미국 시카고

○ 홈페이지: https://www.vdb.org/

○ 특징[39)]

-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SAIC)에서 설립한 비디오아트 아카이브로 비디오아트의 배포, 교육, 보존을 담당하며 비디오 및 미디어아트의 역사와 현대적 실천에 대한 인식과 학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역사적으로 중요한 비디오아트 작품의 보존, 예술가의 작업을 맥락화하는 에세이 및 텍스트의 위임, 선별된 프로그램 및 예술가의 모노그래프 출판, 광범위한 대중 공개
- 배포, 교육 및 보존 프로그램을 통해 비디오 및 미디어아트의 역사와 현대적 실천에 대한 인식과 학문을 육성하는 데 전념
- VDB의 비디오아트아카이브는 비디오아트 컬렉션과 프린트 아카이브 자료로 구성됨. 비디오아트 컬렉션은 600명 이상 예술가의 6,000여개 비디오아트 작품으로 구성되며, 프린트 아카이브 자료는 비디오아트와 관련된 카탈로그, 평론, 기사 등으로 구성됨
- 주요 컬렉션으로 비디오프릭스(Videofreex Archive), 초기 비디오아트(Early Video Art), 쿠차 아카이브(Kuchar Archive)등이 있음
- 비디오아트 컬렉션을 미술관, 갤러리, 교육기관, 도서관 등의 문화기관에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대여 시 부여한 대여료 일부를 저작권자인 작가들에게 로열티로 지급함
- 2011년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면서 일부 작품의 30초 미리보기 영상을 제공했으며, 2016년 이후 일부 선별된 비디오아트 작품의 전체 길이 영상과 평론글을 제공하고 있음
- VDB가 보유한 작품은 에디션 제한이 없는 작품으로 그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며, VDB는 전시권 등을 포함한 이용허락권을 보유함. 웹사이트에 영상을 게시하기 전 제작권자인 작가들과의 계약에 작품 홍보 차원의 30초 클립영상을 온라인에 제공하는 것에 관한 이용허락 조항을 추가함

39) 일부 항목은 다음을 참고해 작성. 조정욱,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의 소장자료 온라인 공개 활성화 방안 연구-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45, 46, 59, 90.

■ 리마(LIMA)

○ 설립년도 : 2002년

○ 위치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홈페이지: https://www.li-ma.nl/lima/

○ 특징

-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보존, 배급, 연구 기관
- 주로 비디오, 디지털 퍼포먼스 등 미디어 기반의 국제적인 작품을 컬렉션에 소장하며 디지털 아카이빙과 복원, 디지털 생태계의 연구를 추진
- 리마의 전신(몬테비데오와 NIMk)들의 역사는 네덜란드 미디어아트와 궤를 함께하며, 아카이브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의 변화에 의해 NIMk가 폐관하면서 이사진들이 미디어아트의 보존과 배포를 위해 독립 재단 리마를 설립하고, 유서 깊은 미디어아트 컬렉션 기관인 전신들의 컬렉션을 흡수하여 리마의 대규모 컬렉션을 이룸
- 리마의 컬렉션은 1970년대부터 네덜란드 내 비디오아트 창작을 지원하고 시간 기반 예술의 비디오아카이브를 구축했던 라인반 센터(Lijnbaan Center), 드 아펠(de Appel), 타임 베이스드 아트(Time Based Arts)의 컬렉션과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역사 안에서 때로는 기금의 압력에 의해, 때로는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몬테비데오와 합병을 거치며 대규모화였고 2012년 정부 기금의 지원 중단 이후 현재화함[40)]

○ 프로그램

- 보존 : 아티스트, 박물관, 미술관. 제작자, 컬렉터가 미디어 작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유형의 미디어 작품에 대한 지식과 디지털화 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함
- 배급 : 초기 실험가부터 국제적으로 저명한 예술가, 비디오아트 및 뉴미디어아트 분야의 떠오르는 젊은 재능에 이르기까지 3,000개 이상의 타이틀을 보유함. MPEG2, DVD, Blue Ray, HD, PAL (디지털 베타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상영본을 제공하며 다른 상영 시스템을 위한 가공 작업도 유료로 진행함
- 연구 : 연구 프로젝트, 지식 교환, 워크숍 및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을 포함하는 공개 프로그램을 조직함
  - 보존 관련 연구 : 디지털 기반 예술 작품의 장기적인 접근을 위해 직접 작품의 소스 코드를 변경하는 마이그레이션 방식과 새로운 하드웨어 환경에서 작품의 구성을 모방하는 에뮬레이션 방식을 기반으로 예술 작품의 보존 맥락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함
  - 보존 서비스 〈Art host〉 : 둘테크(Dull Tech)와 리마가 공동 개발한 디지털 작품의 보존 서비스. 예술가, 프로듀서, 소장자(기관)에게 온라인 작품 접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호스팅 솔루션을 제공함. 접근성 보장 이외의 작품 제시 권한을 갖지 않음

40) “The Story of the Collection,” https://www.li-ma.nl/lima/distribution/collection.

■ 루프 바르셀로나(LOOP Barcelona)

○ 설립년도 : 2003년

○ 위치 : 스페인 바르셀로나

○ 홈페이지: https://loop-barcelona.com/

○ 특징

- 무빙 이미지 연구와 홍보, 판매, 연구를 위한 결합형 플랫폼. 컬렉터 에밀리오 알바레즈(Emilio Álvarez), 카를로스 듀란(Carlos Durán)이 공동으로 설립함. 2003년 바르셀로나에서 루프 페어(LOOP Fair)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꾸준히 무빙이미지의 감상과 유통의 장을 펼쳤으며 2014년부터 전시(Exhibitions), 퍼포먼스와 스크리닝에 관한 액티비티(Activities), 도심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을 활용한 시티 스크린(City Screen), 비디오 및 필름의 육성과 현안 이슈를 심도 깊게 논의하는 전문가 토크(LOOP Studies)로 구성된 루프 페스티벌(LOOP Festival)을 열며 공공성을 확보함. 전문 분야 관객에게 선별된 비디오 관련 콘텐츠를 제공함[41)]

○ 프로그램

- **루프 페어 :** 컨템포러리 비디오아트의 발굴과 홍보를 위한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 아트 페어의 관례와 영상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재검토하기 위해 호텔 방에서 각 영화 프로젝트를 상영함. 독특한 시청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티스트의 작업에 집중도를 높이고 매체 특정적인 관람 환경을 조성함
- **루프 어워즈 :** 루프 페어 매입상(LOOP Fair Acquisition Award), 명예로운 언급(Mention of Honor), 루프 디스커버(LOOP DISCOVER), 비디오 창작상(Video Creation Award), A-Place 비디오 제작상(A-Place Video Production Award)등 다양한 상을 운영함. 루프페어 매입상은 알마낙바르셀로나호텔(Almanac Barcelona)이, 루프 디스커버는 스페인의 맥주회사 에스트렐라 담(Estrella DAmm)이 지원함. 루프 디스커버 수상을 위한 전시는 에스트렐라 담 맥주 공장에서 전시됨. A-Place 비디오 제작상 수상 시 루프 바르셀로나의 6개 파트너 도시(바르셀로나, 볼로냐, 브뤼셀, 리스본, 류블랴나, 니코시아) 중 한 곳에서 비디오 작업을 촬영할 기회를 얻음
- **비디오클롭 :** 루프 바르셀로나의 아카이브 일부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비디오 아카이브. 아트페어 출품작, 루프 디스커버 수상작을 저화질로 제공함으로써 일반인의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타 기관으로부터의 온라인 스크리닝 프로그램의 협력이나 의뢰를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함
- **스크린 프로젝트 :** 영상 부문, 스크린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현대 미술과 문화 에이전시 프로젝트. 갤러리스트와 예술 분야 전문가가 새로운 트렌드와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TALKING GALLERIES'를 운영함

41) 송지현, "루프 바로셀로나: 프로듀스, 프로듀스, 프로듀스(드)," https://www.okulo.kr/2019/04/review-001.html.

■ 아르고스 센터(ARGOS Center)

○ 설립년도 : 1989년

○ 위치 : 벨기에 브뤼셀

○ 홈페이지: https://www.argosarts.org/

○ 특징

- 중요한 시청각 예술의 제작, 발표, 연구, 배포, 보존, 복원을 위한 기관
- 시청각 작품을 통해 보다 개방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전시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빙이미지 작품을 배급하며 뛰어난 무빙 이미지 작품 및 비디오 컬렉션을 구축 및 보존하고 공개함
- 컬렉션 작품뿐 아니라 다양한 출판물을 포함한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독특한 시청각 연구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수용해옴
- 작품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통적 미술관과 달리 자체 컬렉션과 관계된 특정한 권리(아카이브와 보존의 권리, 비독점적 배급권, 교육과 과학적 연구를 위한 사용자의 권리, 기관 내 스크리닝 권한)를 기반으로 배급과 공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기 보존에 전념함

○ 프로그램

- **배급 :** 벨기에의 아티스트 영화 및 비디오의 주요 배급처를 담당. 아르고스 카탈로그에 포함된 작가와 작품을 홍보하며, 예술가에게 공정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영상 이용 시 배포 수수료를 부과함. 영상의 상영 시간, 상영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세부적으로 분할해 공시하고 있음. 매년 배급 전문 큐레이터 3인을 초대하여 그들로부터 작품을 제안 받고, 해당 작품에 대해 저작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배급 리스트에 포함하는 방식임
- **연구 :** 2018년부터 벨기에 플랑드르 예술가 영화 및 비디오 문화유산법령의 지원으로 앤트워프 현대미술관, 브뤼셀대학, 리에주 대학, 벨기에 왕립 미술관과 함께 1970년대 벨기에 예술가들이 영화와 비디오를 사용한 방식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아르고스 아트센터는 컷 분할 등의 기술적 분석을 제공함

■ 아스날 필름 앤 비디오 연구소(Arsenal Institute for Film and Video Art)

○ 설립년도 : 1963년(독일 영화 기록 보관소의 친구들), 1970년(아스날 시네마), 2008년(현재 명칭)

○ 위치 : 독일 베를린

○ 홈페이지 : https://www.arsenal-berlin.de/en/home.html

○ 특징

- 국제 영화 문화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실천적 성격과 이론적 성격이 교차되는 독립적이고 실험적인 영화에 주목하는 영화관, 영화 간 교류를 위한 소통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두 개의 상영관(아스날 시네마1, 2)을 운영하고 베를린국제영화제의 '베를린 포럼'과 '포럼 익스펜디드'의 기획 운영, 배급을 주요 사업으로 함
- 아방가르드영화, 실험영화, 다큐멘터리, 아티스트 필름 등 다양한 영화적 실험을 소개하기 위해 1970년부터 베를린국제영화제에 '베를린포럼' 섹션을 개설하고 영화와 영상 예술의 가능성을 탐구해 왔으며 2006년에는 베를린 포럼이 가졌던 정신을 계승하면서 영상예술의 급진적 실험을 모색하기 위해 '베를린 포럼 익스펜디드'를 신설함[42)]
- 영화관, 무대, 전시장, 수영장처럼 다양한 공간 에서 설치, 상영, 퍼포먼스, 공연 등을 개최하면서 현대미술과 영화가 공존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획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음[43)]
- '아스날 컬렉션'에 8,000 개의 영화 컬렉션 보유. 아방가르드 영화의 역사적 경향과 비디오아트의 현재적 경향을 망라함. 사용자 중심의 아카이빙 및 디지털화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음
- 배포의 범위는 2,000여 점. 영화제가 끝난 후 포럼에서 상영된 영화를 배포 사업을 시작했으며 독일 전역의 아트하우스 영화관에 주로 배포함[44)]
- 국내 기관과의 협력 사업으로는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필름앤비디오 열린영화 '베를린포럼익스펜디드(Berlinale Forum Expanded_MMCA)'가 있음. '베를린포럼 익스펜디드' 상영작 중 최근 10년간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필름을 선별해 상영했으며 하룬 파로키, 켄 제이콥스를 비롯한 거장의 작품과 현재적 실험을 하는 젊은 아티스트들의 작품 24점(총 44회)을 상영함

○ 프로젝트

- **살아있는 아카이브(Livng Archive)[45)]**
  - 창립 50여 년간 구축한 8천 점 이상의 영화 컬렉션을 기반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살아있는 아카이브: 동시대 미술과 큐레토리얼 실천으로서의 아카이브 작업(Living Archive-Archive Work as a Contemporary Art and Curatorial Practice)' 프로젝트를 진행함
  -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게시하는 것으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베를린 포럼을 통해 입수한 6,000여 점의 영화와 비디오아트 작품의 작품 정보와 상영 클립을 제공함[46)]
  - 작품별 메타데이터는 제목(원제, 영문제), 감독(Director), 제작 국가, 년도, 시놉시스, 언어,

42) 국립현대미술관 보도자료 <베를린포럼 익스펜디드 MMCA>, (2015. 6. 16). 1-2. https://www.mmca.go.kr/upload/board/200903020000010/2015/06/20150616022105140113 67.pdf.

43) Ibid., 2.

44) "배포 약관 링크," http://films.arsenal-berlin.de/index.php/About/index/section/terms.

45) "살아있는 아카이브," https://www.arsenal-berlin.de/en/archive-distribution/archive-projects/living-archive-archive-work-as-a-contemporary-artistic-and-curatorial-practice-2011-2013/#c57081.

46) **Arsenal - Institut für Film und Videokunst,** http://films.arsenal-berlin.de/index.php.

베를린 포럼 참여 년도 및 카탈로그 PDF이며, 기술(Technical Attributer) 정보로는 형식(Format), 러닝타임(Running time), 컬러(Color), 버전(Version), 자막언어(Subtitle language), 형식이 16mm 필름일 경우 무게(Weight)와 릴넘버(Reel number) 이며, 장르별 태그 방식으로 다른 작업들과 연계되어 있음

- 프로젝트 기간 동안 38명의 큐레이터, 영화 제작자, 예술가, 연구자를 초청해 아카이브 컬렉션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함. 참가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과 아스날의 인프라(작업 공간, 상영실, 2개의 영화관, 영화 연구소 연구자와 테크니션을 포함한 아스날의 전문 인력)를 제공함
- 매달 정보 교환을 위한 콜로키움에서 아스날의 아카이브를 포함한 아카이브 일반의 역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담화를 진행하고, 300편의 영화를 공개 상영회, 토론회, 전시회를 통해 소개함
- 필름 보관소를 문화예술 공간인 사일런트 그린(Kulturquartier)에 이관하여 운영하며, 사일런트 그린에서의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함

■ AV-아르키(AV-arkki, the Centre for Finnish Media Art)

○ 설립년도 : 1989년

○ 위치 : 핀란드 헬싱키

○ 홈페이지: https://www.av-arkki.fi/

○ 특징

- 핀란드 미디어아트를 국제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 삼아 설립한 비영리 예술가 협회
- 회원은 2019년 기준 60유로의 회비를 내고 AV-아르키의 아카이브에 작품을 제공할 권한을 얻으며, AV-아르키는 이렇게 모인 작품을 배포하고 주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의 정보를 제공하며 저렴한 편집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의 전시회 등의 소식을 홍보해 줌
- 배포의 주요 도구는 온라인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미리보기 클립을 제공하는 연도별 배포 카탈로그임
- 연도별 초청 큐레이터와 AV-아르키의 스태프가 함께 매년 배포 카탈로그 작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에 관해서는 30초 상당의 미리보기 클립과 간단한 시놉시스를 배포 카탈로그 섹션에 게재하며, 미리보기 클리브이 경우 약 2년간 제공한 후에는 별도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제한함
- 물리적 교육 목적의 대여 서비스와 공개 상영 목적의 스크리닝을 별도로 제공하며 목적과 상영 일수, 작품의 길이, 파일 전송 방식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스크리닝 피를 책정함
- 아카이브에서 작품 검색 시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매체, 장르, 태그 항목에 검색어를 제공하여 추상적인 작품 검색을 지원함. 제공 검색어는 '매체'에는 설치, 라이브, 싱글채널 비디오, 웹아트가, 장르에는 다큐멘터리, 환경, 실험, 설치, 인터랙티브 아트, 뮤직비디오, 사운드 아트가 있으며 다수의 주제별 키워드를 태그로 제공함

○ 프로그램

- 교육용 온라인 서비스 https://mediataidekasvattaa.fi/
  -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작품을 시청각 스토리텔링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육용 온라인 접근권을 배포함
  - 교사와 학생은 무료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지만, 커리큘럼에 포함된 작품의 저작권자에게는 수익이 돌아가도록 운영함
  - 커리큘럼은 유아, 초등, 중등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시청각 스토리텔링, 감성 교육, 문화적 다양성과 젠더 다양성을 고루 다루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각 주제별로 무빙이미지 작품과 간단한 설명, 논의를 위한 질문, 학습 자료와 기사, 과제로 그 내용을 구성함. 수업 주제별 'For Teacher' 섹션을 통해 수업의 진행 방식과 토론 진행 시 유의점을 안내하고 있음

■ 식스팩 필름(Sixpack Film)

○ 설립년도 : 1990년

○ 위치 : 오스트리아 비엔나

○ 홈페이지: https://www.sixpackfilm.com

○ 특징

- 오스트리아 영화 및 비디오아트 관객의 국제적 확보를 목표로 유통, 판매, 대여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화제 배급을 담당하는 기관
- 배급의 목적은 현재 제작되고 있는 영화를 가능한 한 많은 관련 국제 영화제와 연결하는 것. 현재 전 세계 200개 영화제와 협력하여 매년 500개 이상의 초청을 받고 있음. 영화제의 일환으로 식스팩 필름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 자료를 배포하고, 영화 시장을 방문하고, 다른 국제 배급업체 및 컬렉션에 영화를 전시하고, TV 및 VoD와 같은 틈새시장 부문에 진출함
- 페스티벌 순회 라운드를 마친 후 모든 작품은 식스팩 필름의 대여 시스템에 추가됨. 유통 카탈로그에 등록되며 온라인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음. 현재 카탈로그에는 오스트리아 아방가르드 영화의 역사적 고전을 포함하여 1,900개 이상의 타이틀이 포함돼 있음

○ 프로그램

- **컨설팅(Information Pool) :** 수년에 걸쳐 획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큐레이터, 컬렉터, 신문, 정기 간행물, TV 제작자, 학계 및 학생, 영화관 및 영화 제작자에게 컨설팅 제공
- **특별 이벤트 :** 특정 주제의 회고전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설정, 오스트리아 국내 및 해외 국내 제작 투어, 오스트리아에서의 국제 영화 예술 상영이 포함됨
- **INDEX-에디션**[47)]
  - 2004년 Medienwerkstatt-Wien과 함께 DVD 레이블 'INDEX'를 설립함. 양질의 문학을 위한 소규모 출판사를 지향하며 오스트리아와 국제 영화, 비디오 및 미디어아트의 역사와 관련된 시청각 출판물을 출시 및 배포함
  - 2018년부터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47) **INDEX-에디션,** https://vimeo.com/indexedition.

다. 아티스트 무빙이미지 활용

1) 상영

■ 하버드 필름아카이브(Harvard Film Archive)

○ 설립년도 : 1979년

○ 위치 : 미국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 홈페이지: https://harvardfilmarchive.org/

○ 특징

- 하버드 미술도서관(Fine Arts Library) 산하 아카이브로 설립된 필름 아카이브. 2만 5000여 편의 필름을 소장하고 있으며, 수집, 보존과 더불어 꾸준한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함. FIAF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초청전을 진행하며 배급 업무도 담당함
- 188석의 시네마테크 극장은 DCP, 35mm, 16mm, Super 8 및 모든 다양한 비디오의 상영을 지원하며, 따라서 오래되고 희귀한 작품들의 상영을 꾸준히 선보여오고 있음
- 다양한 종류의 영화(예술 영화, 대중영화, 역사적 자료로서의 영화)를 극장을 통해 체험하게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연중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꾸준히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함. MoMA와 좋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지역 관객의 취향과 필요를 고려하여 역사적 주제나 고전 영화를 주로 상영함
- 종종 세계적 영화감독과 예술가를 초대하여 학생, 교수, 예술가, 영화 애호가들과 함께 작품에 관해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함
- 2013년 영화투자배급사 CJ E&M이 “CJ Asian Film Collection’의 이름으로 한국영화 18편을 기증함. 기증 작품에는 <취화선>, <살인의 추억>, <마더> 등이 포함됨

■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 설립년도 : 2002년

○ 위치 : 한국 서울

○ 홈페이지 : http://www.igong.or.kr/

○ 특징

- 90년대 말 홍대 부근을 중심으로 활동한 영상 작가 그룹 비디오작가연대체가 개최했던 인디비디오페스티벌이 해산한 후 기존 사업을 이관하여 2000년 인디비디오페스티벌(현재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 네마프)을 개최하고, 비디오문화 기획 활동을 위해 민간단체로 설립함
- 대안영상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자 설립했으며, 대안영상은 대안적 매체, 대안적 주체, 대안적 문화의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음
-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 페미니즘비디오액티비즘비엔날레 등 대안적 관점을 지닌 영화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기금의 부족으로 인해 부침을 겪기도 함
- 2000년 시작해 현재 21회 진행한 네마프의 경우 영상예술의 변화하는 흐름에 맞추어 행사의 정식 명칭을 인디비디오페스티벌(2000),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2008) 등으로 교체해 왔으며 20주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로 정식 명칭을 확정하였음
- 현재는 네마프 페스티벌과 미디어극장의 운영,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다수 작가와 영상 예술 작품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비디오 쇼케이스 마켓과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음

○ 프로젝트

-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네마프)** : 한국 최초의 미디어아트페스티벌로, 2000년 1회 페스티벌을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는 뉴미디어예술 발굴의 장으로 기능해 옴.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참여작을 모집하고 국제 교류전을 통해 국제적 미디어아트와 영상 예술을 소개하며 부대프로그램을 진행함
- **미디어극장** : 2007년 개관한 영상예술 전문 상영과 전시 공간. 기획전을 통해 트린 T 민하, 아녜스 바르다, 오노요코, 샹탈 애커만, 바바라 해머, 빌 비올라 등 국제적인 예술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대안영상학교 등의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해 옴
- **마을가게미술관**[48] : 서대문구 일대 마을의 가게 공간을 대안영상예술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온라인 상영 시스템을 구축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현장에서의 영상 예술 스크리닝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스트리밍과 상인 인터뷰와 주민 리뷰를 소개함

48) **마을가게미술관**, https://altmuma.kr.

2) 온라인 스크리닝

■ 닥 얼라이언스 필름(Doc Alliance Film)

○ 설립년도 : 2008년

○ 위치 : 체코 프라하

○ 홈페이지: https://dafilms.com/

○ 특징

- 유럽 7개국의 주요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다큐멘터리 장르를 발전시키기 위해 맺은 '다큐동맹(Doc Alliance)'이라는 뜻의 네트워크. 다큐멘터리의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함.
- 코펜하겐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CPH:DOX), 리스본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Doclisboa), 밀레니엄독스어게인스트그래피티(Millennium Docs Against Gravity), 독라이프치히(DOK Leipzig), 마르세유국제영화제(FIDMarseille), 이흘라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Ji.hlava IDFF), 비전 뒤 릴(Visions du Réel) 등 7개 유럽 주요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참여
- 이니셔티브로 결성한 온라인 VOD 플랫폼
- 소속 영화제들은 당해 각 영화제의 대표 다큐멘터리를 추천하고 각 영화제는 그 중 최소 세편 이상을 상영.[49] 2008년부터는 '닥 얼라이언스 어워즈(Doc Alliance Award)'를 운영.
- 국제적 규모의 영화제에서 선보인 2,500점 이상의 다큐멘터리와 실험영화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의 합법적인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제공. 영화제라는 선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룬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형식을 선도하는 영화인의 회고전을 다룸
- 독특한 영화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 주변 세계에 프레임을 제공하는 영화의 의미를 담은 '작가 주도 영화(author-driven films)'라는 용어를 사용[50]
- 전통적인 다큐멘터리와 함께 다작 필름제작사의 영화, 페스티벌 히트작, 하이브리드, 실험영화, 아카이브 필름, 애니메이션을 포함
- 개별 작품을 구입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월간 혹은 정기 상영료를 지불한 후 개인 PC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이 가능
- 하이라이트(Spotlight On), 금주의 영화(Film of the Week), 지역 포커스(Regions in Focus)라는 3가지 큐레이팅 범주 아래 지속해서 갱신하는 영상 리스트를 제공
- 2020 슬로바키아어, 폴란드어, 미국 및 아시아 버전을 출시

---

49) 문성경, "우리가 몰랐던 작고 소중한 다큐 영화제," http://www.dockingmagazine.com/contents/17/125.

50) **DAFilms Americas**, https://americas.dafilms.com/section/about-alliance.

■ 브이드롬(Vdrome)

○ 설립년도 : 2013년

○ 위치 : 온라인

○ 홈페이지: https://www.vdrome.org/

○ 특징

- 4명의 큐레이터 옌스 호프만(Jens Hoffman), 에두아르도 보나페티(Edoardo Bonapetti), 안드레아 리소니(Andrea Lissoni), 필리파 라모스(Filipa Ramos)가 설립한 온라인 극장. 동시대 예술과 영화 사이에 위치한 시각예술가의 실험영화와 영화감독의 아티스트필름 등 경계적 성격을 지닌 영상작품 한 편을 선정하여 14일간 온라인 상영함.[51] BFI의 큐레이터, 휘트니 미술관의 비디오 전문 큐레이터 등 등 국제적인 비평가와 큐레이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추천제로 상영 작품을 선정함. 지역 영화제, 전시, 연구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던 작품 중에서 상영작을 선정함. 14일의 상영 기간이 지난 후에는 영상 아카이브를 남기는 대신(풀 클립은 삭제) 작품을 선정한 기획자의 인터뷰 혹은 글, 스틸 이미지 몇 점을 아카이브에 남김으로써 작품의 소장과 저작권 이슈를 비껴가고 있음

■ 워치 앤 칠(Watch & Chill)

○ 설립년도 : 2021년

○ 위치 : 온라인

○ 홈페이지: https://watchandchill.kr

○ 특징

- 국립현대미술관(MMCA)이 필리핀 현대미술디자인미술관(MCAD), 태국 마이암현대미술관(MAIIAM), 홍콩 M+미술관과 협력하여 구축한 구독형 아트 스트리밍 플랫폼
- 미술관과 예술가, 그리고 관객이 미술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을 탐색하고자 기획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시아 지역 주요 작가들의 영상 작품을 송출하고, 이를 물리적인 공간에서 구현함으로 독특한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함
- 아시아 지역 네 미술관은 각자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선별한 비디오 작품을 '워치 앤 칠' 플랫폼에 선보임. 주 소비 공간을 '집'으로 상정하고, 네 가지 소주제로 구성된 가상의 공간을 통해 미디어 환경으로 변화한 집의 다층적 연결성을 사유함

51) **e-flux**, https://www.e-flux.com/announcements/185081/vdrome-100.

3) 공유

■ 우부웹(Ubu Web)

○ 설립년도 : 1996년

○ 위치 : 온라인

○ 홈페이지: https://ubuweb.com/

○ 특징[52]

- 미국 시인이자 비평가인 케네스 골드스미스(Kenneth Goldsmith)가 아방가르드 예술 자료의 접근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설립함
- 실험영화, 퍼포먼스, 무용, 사운드 작업, 아방가르드 시인과 아티스트, 영화감독과 관계된 모든 자료, 다큐멘터리, 인터뷰, 녹음 자료, 텍스트 등을 온라인 플랫폼에 아카이빙하기 시작함
- 현재까지 7,500명 이상의 예술가와 그들의 수천 점의 예술 작품을 호스팅함. 아방가르드 영화와 비디오는 2,500개 이상이며 모든 자료가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지불 없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음.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자료의 범위를 계속 확장해나가고 있음
- 아방가르드 예술에 관한 찾기 어려운 자료, 절판되거나 접근 경로를 알기 어려운 자료에 관한 접근성을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일단 자료를 업로드 한 후 저작권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견되거나 작가가 아카이빙을 요청해 자료를 제공한 이후 삭제를 원하는 경우는 바로 해당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후 대응으로 운영함
- 최근 추가(Recent Additions)를 통해 최근 아카이빙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우부웹 탑 텐(Ubu Web Top Tens)을 통해 매달 아티스트, 큐레이터, 시인, 뮤지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우부웹의 아카이브 중 가장 좋아하는 자료 10가지를 선택해 소개하는 특집을 진행함

52) 이 부분은 미팅룸, **셰어미: 공유하는 미술, 반응하는 플랫폼,** 121-122.를 참조, 요약하여 작성함.

■ NTT 인터커뮤니케이션 센터(InterCommunication Center, ICC)

○ 설립년도 : 1997년

○ 위치 : 일본 도쿄

○ 홈페이지 : https://www.ntticc.or.jp/en/archive/hive/

○ 특징

- 일본의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업 NTT가 일본 전화 사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함
-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를 축으로 과학기술과 예술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해 미래 사회를 구상하고자 함. 이를 위해 예술가와 과학자의 국제적, 개방적인 네트워크와 지식 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함
- 전시, 워크숍, 퍼포먼스, 심포지엄, 출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기획을 통해 예술과 기술을 교차하는 실험적인 시도와 새로운 표현,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소개해 옴
- 전시의 경우 상설전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연 1회 개최함

○ 프로젝트

- **하이브(Hive)**
  - ICC의 개방형 비디오 아카이브 플랫폼. 2004년 런칭 이후 ICC 내 전용 단말기에서의 열람만이 가능했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HIVE의 공개 웹 버전을 출시하여 유저들이 ICC의 리소스에 보다 개방적으로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ICC가 소장한 비디오아트 작품, 예술가, 과학자, 건축가, 비평가 등의 인터뷰, 과거의 전시, 심포지엄, 토크, 라이브 이벤트 등을 시청할 수 있음
  - 1997년부터 현재 2014년까지 ICC에서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전시, 심포지엄, 아티스트 토크, 라이브 이벤트, 워크숍 및 지식인과의 인터뷰 시리즈)의 녹화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기관사 아카이브의 역할을 함
  - 아카이브의 영상 콘텐츠는 개인 및 교육 기관이 교육 및 비영리 문화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ce)를 통해 리소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도록 함. 이를 통해 ICC의 기록을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사회에 공개하고자 함
  - Hive와 더불어 ICC x Media Chronology 연대기 페이지를 오픈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디어 관련 주요한 사건과 뉴스, 주요 미디어아트 작품과 전시 정보를 연도별, 월별 수록함으로써 기관 차원에서 미디어와 미디어아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대중에 공개함

■ 더 스트림(THE STREAM)

○ 설립년도 : 2015년

○ 위치 : 온라인

○ 홈페이지: http://www.thestream.kr/

○ 특징

- 동시대 한국의 비디오아트/ 무빙이미지에 관한 아카이브 플랫폼. 한국 미디어아티스트들의 영상 기반 작품의 검색과 감상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 사이트에 소개되는 작가들의 작품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동명의 한국 비디오아트 전문 연구 서적 출판 사업을 운영
- 국영문 혼용 표기를 함으로써 한국 미디어아트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는 역할을 추구하는 등 간접적 작가 지원 시스템을 지향함
- 실험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와 비디오아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을 연구하고 아카이브를 확충하려 함
- 작가 정보, 작품 정보, 연관된 작품 정보 외에 하단에 작가의 홈페이지, 태그가 제시되어 있어 다른 정보와의 연계를 원활하게 함

○ 프로그램

- **스크리닝 :** 설립 초기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스크리닝과 토크의 결합 프로그램으로 2021년 11월 현재 30번째 스크리닝을 진행함
- **비평서 출간 :** 현재 진행형인 무빙 이미지의 기록의 부재를 메꾸고자 1명의 작가에 관한 비평을 모아 동명의 비평서로 출간하여 배포함. 현재 발행했으며 정연두(1호), 이행준(2호), 뮌(3호)까지는 1인 작가에 집중하였고. 이후 3.5호에서는 이지송, 김아영, 박경근, 신기운, 최성록을 함께 함께 다루어 출간함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orean Movie Database, KMDb)

○ 설립년도 : 2006년

○ 위치 : 온라인

○ 홈페이지: https://www.kmdb.or.kr/main

○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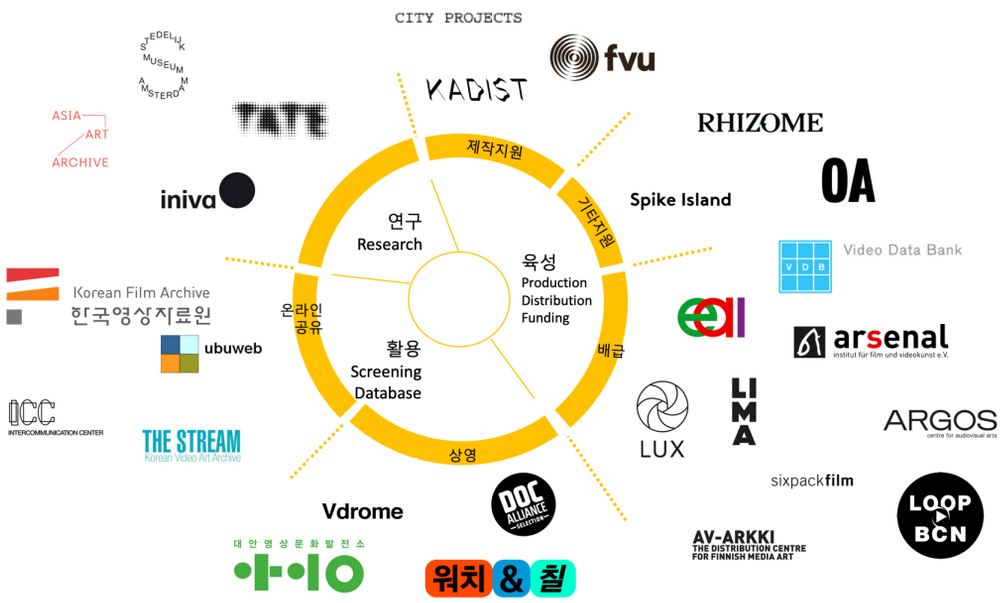
- 한국영상자료원(KOFA)에서 운영하는 한국 영화에 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미국의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IMDb)를 벤치마킹하여 기획함

○ 구성

- 사이트 접속 시 최상단 메인 이미지와 메뉴 카테고리에 DB, 영화글, VOD, 한국영화사료관으로 메뉴를 구성하여 제공함. '영화글'은 영화 리뷰와 칼럼 등 영화와 관련된 읽을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VOD는 한국 영화의 감상을, '한국영화사료관'은 원로 영화인 구술채록문, 오래된 영화 잡지 열람을 제공함
- **DB** : 소장자료 카테고리는 필름(45,541건), 비디오(75,329건), 동영상(25,603건), 이미지(577,410), 시나리오/콘티(45,313건), 도서/논문(3,325건), OST(12,205건), 심의서류(41,290건), 박물류(37건)으로 구성. 자료의 메타데이터는 영화를 기준으로 유형(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기타), 영화명, 영화인, 제작사/투자배급사, 영문 제목, 극영화(관람가), 국가, 비디오 규격(Blue-ray, DVD, VHS, HDCAM, Digi-Betacam), 비디오 제조/판매원, 제작년도, 관람 기준, 색채(흑백, 컬러, 혼합, 단색), 런타임, 개봉일, 제작사, 감독, 출연, 이미지, 키워드/줄거리 로 구성함
  - 영화 검색 시 위 항목에 따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크레딧 정보(텍스트, 이미지/영상), 수상 정보를 제공하며 삽입곡과 로케이션 등의 상세 정보와 해당 영화가 언급된 글, 기사의 리스트 태그가 열거되어 관련된 다른 페이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함
- **VOD** : 한국영상자료원 보유 작품 중 저작권을 구매한 일부 영화를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함. 한국 고전영화(301편), 관련 다큐멘터리와 구술 영상(93편), 예고편과 메이킹 영상(3,300여 편)을 스트리밍 서비스하며, 독립영화도 추가함. 고전영화는 편당 500원, 월별 기획전 및 독립영화, 다큐멘터리는 무료로 제공함
- **한국영화 사료관** : 한국영상자료원 연구박물관팀의 원로 영화인 구술채록사업으로 발행한 구술채록문과 발간 도서를 PDF로 제공하며 국가기록원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협조 받은 영화 관련 공문(미군정기 국방부 문서 등 한국영화 정책과 행정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공문서 등)와 영화 연감, 영화 연구가에 의해 집필된 한국영화 사료 콘텐츠, 폐간된 영화 잡지, 영화 전단, 발간도서, 연감 총서(1977~99년까지 영화진흥공사가 발간했던 연감과 한국영화사 연구 관련 주요 총서)를 제공하며, 해제 콘텐츠를 별도 카테고리로 운영함
  - 해제 콘텐츠의 경우 '인물로 보는 영화사', '검열자료 해제', '공문서 해제', '일제강점기 극장', '김종운의 배우 열전'으로 구성. 공문서 해제의 경우 내용에 대한 설명, 해당 문서가 발행되었던 시기 문서의 내용과 관련된 정치적, 국제적 상황의 설명을 담고 있음
- **영화글** : 영화 전문 필자들의 영화평, 칼럼, 리뷰 등을 제공. 영화평론가 정성일이 임권택 감독의 전작을 평론하는 장기 프로젝트 '임권택x102; 정성일, 임권택을 새로 쓰다', 저널리스트 김형석의 '80년대 한국 영화, 카오스의 이색지대'와 같은 기획 칼럼까지 영화 애호가들에게 깊이 있고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함

제3절 소결

[그림 3-3] 사례연구 분포도



■ 기관 의제 중심의 컬렉션 구축과 현재적 관점의 소장 자료 재해석 프로그램 경향을 반영한 아카이브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

○ 아시아아트아카이브, 스테델릭 미술관, 아스날 필름&비디오 인스티튜트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미술관이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방식이 자료를 직접 전시하는 방식에서 현재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변화하는 공공성에의 요청에 대응하는 동향으로서, 현재적 관점의 다양한 견해와 입장의 차이를 포용하여 미술관의 소장품과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비판적 대화와 민주적인 장으로서 기능하려는 동시대 미술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이 때 다양한 입장과 견해의 차이를 수용하기 위해 외부 기획자, 작가 등의 개인이나 시민 커뮤니티를 초청하여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적이고 다각적인 관람의 관점과 새로운 비평적 해석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미술관의 아카이브로 유입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함

■ 매체 변화에의 대응에 있어 보존 복원에서 온라인 공유로의 화두 변화와 저작권 문제의 대두

○ 이른 시기부터 비디오아트, 미디어아트의 소장과 활용에 집중해 온 배급 기관들의 경우 보존 복원을 주요 사업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리마와 리좀의 사례가 있음. 이와 대비하여 최근의 영상 작업을 배급하는 기관들의 경우 온라인 스크리닝 방식과 동시대 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하는 스트리밍 방식을 고루 참고하여 상영의 형태를 고안하고 있음

○ 온라인 상영의 경우 저작권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각 기관의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 중요한 고민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방식이 프로그램 기획의 방향과 맞물림

○ 온라인 스크리닝 사례에 해당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워치 앤 칠'과 국제 사례 '브이드롬'의 경우 전자가 기관 교류 사업을 통해 각 기관의 소장품 기반으로 온라인 상영작을 선정하고 연계 전시를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후자의 경우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주목해야 할 작품을 선정하여 관련한 비평을 생산하고 짧은 기간 동안 온라인 상영함으로써 작품에 주목도를 실어주는 방식이며, 각각 기관의 소장품을 상영하거나 일시적인 상영 후 관련 영상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이슈를 발생시키지 않음

○ 배급 목적으로 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 방식을 선택한 사례로 '닥스 얼라이언스'와 '럭스 플레이어'의 경우를 들 수 있음. 닥스 얼라이언스는 다큐멘터리 영화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반 상업영화와 소비층이 다른 다큐멘터리 영상의 배급을 목적으로 개설한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이며 럭스는 기관이 배급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 작품을 기반으로 온라인 상영을 하고 있음. 이는 컬렉션의 대부분이 원본 작품의 복제본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이며 이러한 컬렉션 작품의 배급 업무를 럭스가 대행하는 것에 관하여 예술가와 기관 간 상호 이해가 선제되었기에 가능함

■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AMI)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는 연계 시스템 요구

○ 기관의 어젠다를 바탕으로 한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작품의 제작 지원부터 수집과 소장, 활용에 이르는 기관 내 프로그램 파이프라인의 설계가 요구됨

○ 카디스트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음. 카디스트는 작가와 작품을 사회에 대한 중요한 발언을 하는 주체와 그 발언 도구로 인식하고, 작가에게 작품의 제작을 지원하고 레지던시와 전시 기회를 제공하며, 제작을 마친 이후 지원한 작품의 소장과 더불어 작가의 이전 작품을 보다 저렴한 배급 계약을 통해 수집하여 온라인 비디오라이브러리로 제공함으로써 미술 작품의 소통 창구로서 기능함

■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소장과 배급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 요구

○ '온앤포 배급과 제작'을 비롯하여 루프 바르셀로나의 대화 세션, 시티 프로젝트의 무빙 이미지 생태계에 관한 조사 보고서 발행 등 AMI의 생산과 유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기관의 지원을 받는 개인들이 배급과 제작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정보를 조사 발행하는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음

○ 미디어 재생 및 관람의 경험과 배급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해가고 아티스트 무빙이미지 작품의 소장과 배급에 관한 서로의 이해도가 다른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 배급 사업 추진보다는 이를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도모하는 것이 싱글채널 비디오에서 출발한 아르코아카이브의 특화 사업으로서나 사업 추진에 있어 실효를 거둘 것으로 예상함

제4장

개선안 도출 및 분석

제1절 자문위원회 운영 및 분석

1. 자문위원회 운영 개요

가. 심층 인터뷰 (IDI, in-depth interview) 수행 프로세스

■ 연구대상 전문가의 인식, 의견, 믿음, 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설계하고, 조사 대상자를 1:1로 면접하여 깊은 수준의 질문과 유연한 대화 형식을 빌려 진술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

■ 사전에 짜인 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함

■ 인터뷰 내용은 녹음을 통해 기록한 후 정리 요약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나. 조사 시간 및 면접법

■ 전문가 인터뷰 조사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서면 인터뷰는 3일 정도 소요

■ 면접법은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을 통해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에 정해진 내용과 순서에 따라 면접하는 방법을 택함

■ 구조화된 것 이외의 새로운 것을 도출하기 위해 인터뷰 말미에 자유 토론 및 기타의견으로 유도함

다. FGI 병행 및 인터뷰 방식

■ 심층 인터뷰방식과 병행하여 필요시 MGI(Mini Group Interview)형태의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함

■ 본 연구의 경우 영상 배급/저작권 관련 전문가 2인의 자문을 FGI방식으로 진행함

■ 인터뷰 방식은 대면 인터뷰, zoom비대면 인터뷰, 서면 인터뷰 총 3가지 방식을 병행함

라.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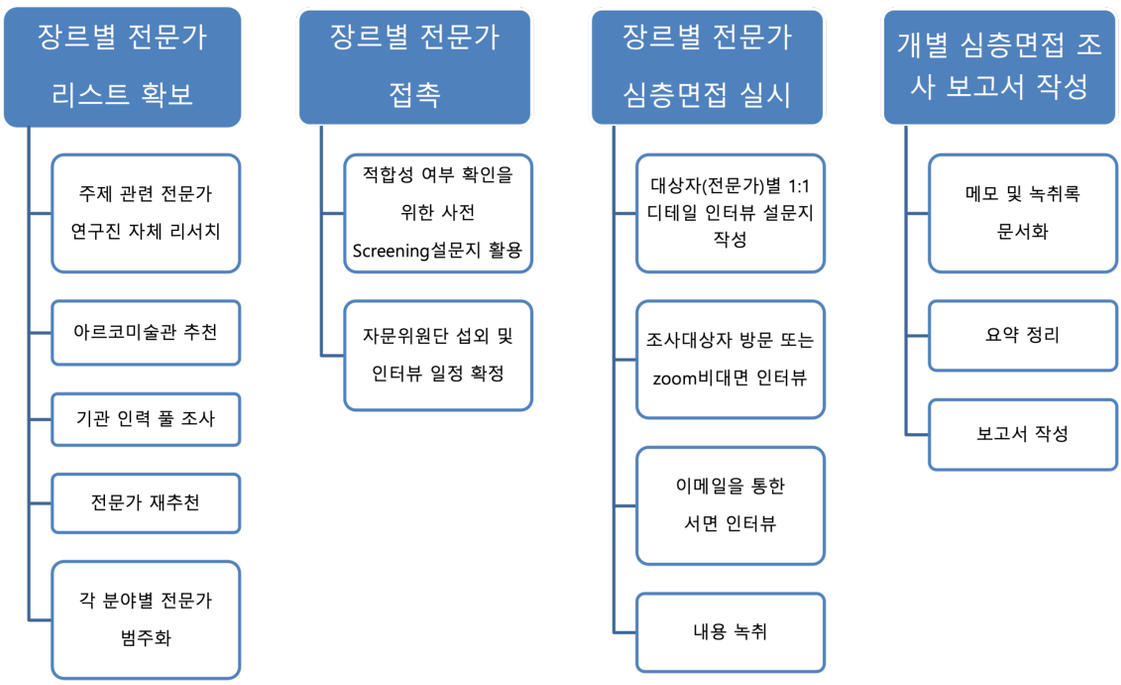
■ 질문지는 인터뷰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를 빠짐없이 다루기 위하여 조사 목적, 조사 주제, 인터뷰 대상자의 활동 영역과 직위, 연구 실적 등의 경력사항을 고려하여 공통 질문 및 개별 질문을 병행, 조사 문제의 설정과 조사의 핵심 요점을 나열하여 질문형태로 설계함

■ 진행지침은 인터뷰 진행자(2인)를 중심으로 인터뷰 시 역할을 설정한 뒤 인터뷰 대상자 및 진행일정, 인터뷰 장소 및 방식, 시간 배분, 진행과정 등을 사전 기획하여 실행함

■ 분야별 4개의 그룹으로 자문위원단을 분류, 기획하고 심층적인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의견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공통 질문 및 인터뷰 대상자의 활동영역에 맞춘 개별 질문을 겸비한 1:1인터뷰를 통해 깊이 있는 면접을 진행

■ 한편, 대표성을 요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1:1 인터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선정 기준을 정하고 그 선정 이유를 명시하여 추후 보완할 여지를 남겨둠

[그림 4-1] 자문위원단 기획 및 진행 프로세스 4단계



마. 조사 목적

- ■ 전문가 경험 및 기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보유 자료의 특화 방안, 활용 가능성 파악
- ■ 작가 및 기획, 연구자 등 외부 사용자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아르코아카이브 운영 방향 설정
- ■ 아카이브 보유 유관 기관 실무자 면접을 통해 국내 생태계 파악 및 현실적 운영 조건 검토
- ■ 미디어컬렉션 특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미술 외 영상 분야 배급과 데이터베이스 노하우 획득

바. 조사대상자 설정 및 사전 질문지 구성

1) 조사 대상자 : 각 분야별 전문가 총 12명으로 구성

- 미디어 작업을 주된 매체로 사용하는 작가, 미디어 작업 관련하여 주된 기획을 하고 영상 작품에 대한 유통, 배급 관련 연구, 활동 경험이 있는 기획자(비평가), 시각예술분야 아카이브 기관 실무자, 영상 및 배급 관련 실무 경험자

■ 각 분야별 자문 진행 현황 및 전문가 선정 기준

[표 4-1] 분야별 자문위원 명단 및 진행 일정

NO	분야	전문가 선정기준	전문가	진행일정 및 방식
1	작가그룹	- 미디어컬렉션/ 작가 포트폴리오 선정 작가 중 아르코미술관 추천을 거친 작가 - 자체적으로 배급 및 영화제 출품 등을 진행해본 경험이 많은 작가	《차재민》	10월17일 (14:00~16:00) zoom 비대면 인터뷰
			《무진형제》	11월12일 서면 인터뷰
			《김세진》	11월12일 서면 인터뷰
			《김민정》	11월12일 서면 인터뷰
2	기획/비평 그룹	미디어 관련 배급, 유통, 프로덕션에 대한 연구 경험 및 실무 경험 보유 기획자 혹은 연구자	《김신재》 서울미디어비엔날레 어시스턴트큐레이터	10월11일 (14:00~17:00) 대면 인터뷰
			《김장연호》 아이공대표	11월11일 (11:00~13:00) zoom 비대면 인터뷰
			《송지현》 독립 큐레이터	11.18 서면 인터뷰
3	기관그룹	아카이브 운영/ 아키비스트 보유 기관 실무자	《박상애》 백남준아트센터 아키비스트	10월28일 (18:30~20:00) zoom 비대면 인터뷰
			《김지하》 아시아문화전당 시네마테크 프로그래머	11월11일 (14:00~16:00) zoom 비대면 인터뷰
			《이지은》 국립현대미술관 아키비스트	11월2일 (13:30~15:00) 대면 인터뷰
4	영상 배급 그룹	데이터베이스 운영/ 배급 관련 실무자	《정세라》 더 스트림 대표 《유성관》 한국영상자료원 정보자원개발팀장	11월9일 (14:00~16:00) 대면 FGI 인터뷰

2) 사전 질문지의 주요 문항

○ 자문 대상의 경험과 보유한 노하우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사전 질문은 다르게 구성하였으며 질문지 전문과 녹취 기록은 부록에 별첨하였음

○ 본 항에서는 자문회의 전체를 아울러 참고점을 변별하기 위해 선정한 핵심 질문과 논의 내용을 정리함

■ [수집과 연구]

- 아카이브 수집 연구 진행에 있어 기관의 어젠다 설정과 수집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요?
- 각 기관에서, 그리고 실무자로서 일을 하시며 메타데이터 작성 매뉴얼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혹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활용의 방식-상영, 배급]

- 소장아카이브 활용 방안 경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 제작지원, 유통 방식에서의 경험을 소개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내외 영상 아카이브와 배급의 참고모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배급, 판매, 소장의 권리 및 저작권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경험에 비추어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 실무에서 경험하신 온라인 스트리밍 등 디지털 공유에서의 고민과 화두를 나누어주시길 바랍니다.
- 영상 기반 작업의 판매/소장, 상영, 유통/배급의 조건들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개인적인 견해와 작품의 운영 방식이 궁금합니다.

■ [기관 교류 방안]

- 미술관이 타 미술관 혹은 기관과 만들어낼 수 있는 유기적 연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아르코아카이브에 대한 제언]

- 아르코미술관이 '아르코'라는 기관 차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2. 논의 내용 및 시사점[53)]

가. 전문 인력의 전담 배치 필요성

■ 아카이브 전담 전문 인력의 필요성 및 필수 최소 인력 확보

- “큐레이터가 전시를 할 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을 진행하듯 아카이브 역시 팀 단위의 인원이 움직여야 하지요. 사실 두 명이상의 아키비스트가 기관에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와 함께 움직이는 인력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 때문에 항상 한 명의 인원은 전시 업무와 밀접하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획자가 양질의 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키비스트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기획자와 함께 전시를 위해서 움직일 경우, 확실히 아키비스트가 평상시에 해오던 업무를 지속하기는 어려워요. 적어도 두 명의 인원이 있어야 남은 인력이 아카이브 업무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요.” (기관 아키비스트)

- “디지털 아카이브의 수집과 활용, 배급에 이르는 사업은 과중한 업무량을 필요로 하는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이 사업의 업무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카이브 사업하고 배급 사업이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배급하려면 영어도 숙달해야 하고, 아카이브 담당자가 테크니션이 담당하는 전문 지식까지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해요. 이 사업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국내 담당자와 해외 담당자, 테크니션 이렇게 세 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이에요. 만약 아르코미술관이 한 명의 담당자만을 놓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저는 다시 실패하리라 생각해요.” (민간기관 대표)

■ 아키비스트 업무 특성을 고려한 연속성 유지

-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담당자나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사라지면 연결해서 진행할 수 없는데 아카이브의 경우 그런 연속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아키비스트)

- “아르코 역시 자문을 여러 번 했지만 늘 시간이 지나 리셋되고 다시 자문요청이 와요. 이 문제의 핵심은 아카이브를 담당하는 아키비스트나 학예 연구원의 부재라고 봐요. 인력 보강과 인큐베이팅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기관별로 요즘에는 거의 다 오래 계시는 분들이 없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그 아키비스트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되는데 사업이 조금 잘 되려고 하면 딱 끊기고 그다음 신입이 오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되고요.” (민간기관 대표)

- “기관이 이런 배급 활동을 연속성 있게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해당 기관과 담당자에게도 경험과 데이터가 쌓여야 하는데, 기관에서는 연구원이나 학예연구사 한 분이 아카이브 수집과 연구, 라이브러리 운영, 프로그램 및 출판 기획, 제작 등 모든 것을 고군분투하며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배급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매번 인력과 일손이 부족하다 담당자가 떠나면 제대로 사업이 인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큐레이터/ 프로듀서)

53) 당사자 및 주무기관과 협의하여 인터뷰 전문은 별도 제출함.

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예산 필요

■ 장기적 관점의 아카이브 예산 계획의 필요성

- “영상작업의 배급/유통은 단시간에 정리가 되고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우선 미술이라는 장르 안에서의 영상작업들은 유통이나 배급이라는 분야에서 이미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한국의 미디어아트에 대한 분류와 이론 정리등과 같은 아카이빙이 우선되어야 하며 막대한 규모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0년의 주기를 기준으로 매 10년마다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아르코를 비롯하여 거대 기관이 시도를 하다 멈춘 과정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 배급/유통에 대한 계획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작가)

다. 미디어 아카이브 운영 전략

1) 수집 전략

■ 작가 작품의 제작지원을 통해 수집에서부터 활용까지 진행하는 방식

- “현대 작가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고 작품을 수집할까 고민하다가 제작 지원을 통해 저희가 원하는 작품들을 컬렉션하자는 생각으로 제작 지원을 시작했죠. 저희는 제작 지원을 하면서 아시아 작가들 대상으로 정말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작가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제작된 작품은 독점적 이용 허락권을 갖고 소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작 지원을 한 작품의 경우 에디션을 만들어서 작품을 판매하거나 타 기관에 소장될 수는 없지만, 미술관에서 상영이나 전시 하는 것은 작가가 결정할 수 있어요.” (기관 프로그래머)

■ 제작지원 작품에 대한 기관 내 운영과 배급으로의 연계

- “1년 정도 제작 기간을 주고, 그다음 해에 저희 기관에 와서 제작결과발표회를 마치면 바로 유통 준비가 시작되죠. 기본적으로 실험적인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상영하는 토론토국제영화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BFI 국제영화제, 야마가타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과 우선적으로 접촉하는데, 이런 영화제들의 경우 다른 곳에 상영된 적이 없는 작품들을 프리미어 상영하는 조건으로 출품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각 영화제들의 시기, 어떤 작품들을 어느 곳에 출품할지 등을 고민해야 해요. 저희 기관 내에서도 첫 상영이나 다름없는 제작결과발표회기에 심사를 했던 분들이나 작가들, 그리고 관계자 분들만 초대해서 비공식 결과발표회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관 프로그래머)

2) 자료 관리

■ 미디어 아카이브 수집 시 고려해야할 원소스 부분에 대한 논의

- “저희는 2000년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때 작업물을 지금 재생하려면 거의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그래서 당시 작업을 DVD로 받지 않고 작가분들께 마스터 테이프로 6m, 원본 6m랑 디브이캠(DV cam)으로 받았었어요, (...) 디브이캠이 없는 작가는 아예 avi나 mov로 원본 파일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작가가 저희에게 본인의 작업물이 있는지 문의하기도 하고 실제로 작가의 작품 원본을 보내드린 경우도 꽤 있어요.” (민간기관 대표)

■ 데이터 손실에 관한 대비한 리스크 관리

- “저희가 원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플랫폼에 원 자료를 이관하지 않아요. 저작권 보호나 해킹에 대한 우려, 데이터의 손실 네트워크의 불안전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지와 영상을 여러 채널에 대비해 두고 있어요.” (민간기관 대표)

3) 아카이브 운영

■ 보유 자료의 배급, 홍보 등을 통한 가시성과 가치의 제고

- “저희 컬렉션 중에 발굴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카이두 클럽’이라는 한국 70년대 여성 실험 영화 집단이에요. 올해 전주 영화제를 통해 한국 실험영화 집단의 작업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카이두 클럽에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한옥희 감독님이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셔서 저희가 아카이빙 작업을 했고, 그게 2019년 토론토 영화제에서 처음 소개가 됐어요. 처음 소개된 곳이 큰 규모의 영화제다 보니 그 계기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고, 전주영화제도 토론토 영화제 상영을 계기로 같이 하게 되면서 국내에도 좀 더 알려지게 되었죠.” (기관 프로그래머)

■ 기증자별 컬렉션

- “아카이브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매체도 다양합니다. 이 자료들을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서 리스트로 보여주는 것 이외에 자료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 어떻게 묶어서 봤을 때 좀 더 학술적으로 유용하거나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는 컬렉션 작업을 해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증자별 컬렉션이 있을 수 있어요. 유현목 감독님의 컬렉션이라면 감독님이 기증해 주신 것들을 쭉 펼쳐놓고 그중에 몇 점을 컬렉션에 연결을 시키고 이 기증 기증품이 무엇을 의미하고 영화사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를 연구 해제로 다루는 작업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관 실무자)

■ 기관사 컬렉션

- “행정 기록문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정문서처럼 명확하게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드물어요. 그래서 필수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행정문서들을 어떻게 비치할 수 있는 기록으로 보관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공기관의 엄격함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MoMA의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그 투명한 공유 방식과 열려 있는 태도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술관의 기록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면 좋겠어요.” (기관 아키비스트)

- “미술관 기록은 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된 기록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희 아카이브 센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행정 기록물들은 거의 아니고요, 전시나 교육 행사에서 발행했던 자료와 영상을 비롯한 도록, 포스터, 리플릿과 같은 원본 자료 및 이의 토대가 되는 디자인 시안도 있고 최종 결과물도 수집했어요. 원본뿐만 아니라 전시인쇄물 PDF, 영상, 인스톨레이션 뷰와 같은 사진 등의 디지털 파일 등이 수집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아키비스트)

- “저희는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관리해요. 큐레이터 분이 전시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기록물을 많이 생산하시는데, 전시가 끝나면 그 자료들은 저희가 이관받으나 행정 문서는 그렇지 않죠. 행정 문서만큼 클리어하게 모든 맥락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서, 행정 문서 보관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저희는 문체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문체부와 협업을 해서 어떻게 비치 기록물로 갖고 있을지 고민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기관 아키비스트)

라. 아카이브 활용 방식

1) 상영

■ 컬렉션 선정작 상영 프로그램 상설화

- “기관에서는 스크리닝이나 작가들을 소개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것을 축적시키는 것이 단순히 작가의 작품을 기관 웹사이트에 올리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듯하다.” (작가)

- “아르코미디어 컬렉션 프로그램에 2012년과 2015년도에 2회 참여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특징이 다양한 영상의 전시와 스크리닝 뿐만 아니라 큐레이터, 작가, 비평가가 함께 영상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작가의 입장에서는 동시대 영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고, 작업 성격에 맞춰 전시 방식 또한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미술관에서 다소 시간이 긴 영상 작품들만을 모아 여러 방식으로 전시했던 과정을 되짚어 보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영상 작가들에겐 이러한 전시 참여 기회가 사실상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전시가 좀 더 지속적인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코전시장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를 이어가는 거죠. 특히 해외 기관과 연계해서 우리나라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업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작가)

2) 연계전시/ 프로그램

■ 기관 키워드, 어젠다 설정을 통한 홍보 및 활용 기획 수립

- “저희 기관은 얼마 전부터 한 해의 키워드를 정해요. 올해의 키워드는 ‘1961년’이었습니다. 올해가 60주년이죠. 1961년이 영화사적으로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던 해였어요. 그 영화들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각 사업 부서별 사업이 있지만 일부분은 1961이라는 숫자에 집중해서 큐레이션을 하거나, 관련된 블루레이를 내거나 비평 활동을 하거나 영화 상영을 하거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해에 내년도 키워드를 정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이 나올 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할 때도 이를 부각시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기관 키워드를 매년 하나씩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관 실무자)

■ 국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신작 영상의 스크리닝 프로그램 운영

- “시네마테크 프로그래머 분들이 다양한 영화를 큐레이션 해서 대국민한테 보여주는 역할도 하시는데, 저희 수장고에 있는 것만 다루지는 않거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핫한 예술 영화를 리서치해

서 가져오는 분들도 계시고, KMDb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평론 작업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사사로운 리스트'라는 작업인데, 전 세계 기준으로, 영화제 프로그래머나 부지런한 영화 평론가분들을 섭외해서 리스트를 받고 그것이 쌓이면 각 평론가들마다 자기가 뽑은 10개 중에서 가장 글 쓰고 싶은 작품 하나를 골라 글 써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진짜 애정이 엄청 묻어있는 글을 써줘요. 그것도 좋은 자료가 되고 그중에서 극장 상영도 하죠. 기관이 소장한 자원을 활용해서 리스트부터 평론을 거쳐서 상영까지 이루어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실무자)

- "어떤 면에서는 작가 지원보다 무빙 이미지 자체를 연구할 수 있는 큐레이터에게 수혜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개인들이 생태계를 만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 큐레이터의 교육이라는 게 세미나나 워크숍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큐레이터를 위한 전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 주목받은 영상 작업을 모아서 스크리닝 해주는 것도 연구자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전시 관객과는 그 대상이 다른 별도 프로그램이에요.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연구자들이 해외의 영상 작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저만해도 아시아 필름 메이커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아르코가 싱가포르 젊은 작가들의 영상 작업을 모아서 스크리닝을 해준다고 하면 가서 볼 것 같아요.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의 작가들의 작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작가)

3) 출판

■ 자료들 간의 관계성 연결을 고려한 활용 출판 기획

- "저희는 기관지를 원 이슈 매거진으로 만들고 있어요. 영화 한 건을 콘셉트로 내기도 하고 90년대 포스터, 전단지만 다룬 것도 있어요. 저희가 소장하고 있거나 저희가 보유한 자료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진으로 소개하거나 글을 싣기도 하죠. (...) 데이터베이스에서 리스트로 보여주는 것 이외에 자료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 어떻게 묶어서 봤을 때 좀 더 학술적으로 유용하거나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는 컬렉션 작업을 해요." (기관 실무자)

4) 열람

■ 학생 및 연구자를 위한 아카이브 개방 및 활용안

- "연구자들을 위한 아카이빙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수업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영상을 순환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건 아르코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급과 유통이라는 말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랑 아카이브를 얘기하는 건 정말 다른 얘기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술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업들을 아카이브해서 연구자나 학생들한테 열어주는 공적인 역할은 확실히 필요해요." (작가)

5) 온라인 플랫폼

■ 작가 포트폴리오 자료의 온라인 공유

- “아티스트 파일은 미국이나 유럽 미술관의 아트 라이브러리에서 많이 열람하는 소스인데 한국에서 아르코만큼 정리를 잘 해 놓은 곳이 없어요. (...) 아르코에 갈 때마다 아티스트 파일이 저렇게 책장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정보가 아르코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순간 트래픽이 완전 달라져요. 학생들이 숙제할 때 레퍼런스 찾는 것도 그렇고, 관에서 소장품을 구매할 때도 이 작가 작업이 어디서 전시가 됐는지 정보를 하나하나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만약에 아르코아카이브의 아티스트 파일이 정리돼 있으면 연구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기관 아키비스트)

■ 연구를 통해 산출한 작품의 해제를 붙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미디어아트넷을 보면 초기 비디오 영상 작품의 메타 정보들을 보여주는데 저자, 연도, 매체, 듀레이션과 같은 기본 메타 정보와 간단한 해설, 30초짜리 클립이 올라와 있어요.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사이트가 굉장히 유용해요. 아르코아카이브의 또 다른 지향이 소장하고 계시는 초기 싱글채널들에 대한 이런 메타 연구를 붙이셔가지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풀 클립을 서비스하는 거는 당연히 저작권 동의도 받아야 하고 문제가 많겠지만, 10~20초 정도를 끊어서 서비스하거나 비메오(vimeo)로 연결해 임베드 시켜서 서비스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기관 아키비스트)

■ 통합 DB 관련 논의

- “내가 적어도 이 사이트에 가면 풀 클립은 못 보더라도 이와 관련된 비평이나 작가와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 전시 이력 등 관련되는 연구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온라인에서 한눈에 보인다고 하면 그 사이트를 굉장히 자주 갈 것 같아요.” (기관 아키비스트)

■ 메타데이터의 설계와 꾸준한 보완의 필요성

- “카탈로깅을 위한 용역만 따로 내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자료가 영화에 대한 메타 데이터만 설계돼 있는 건 아니에요. 영화는 영화 작품으로 있고, 필름, 동영상, 비디오테이프, 책자, 이미지에 대한 메타 데이터가 따로 있다 보니 저희는 카탈로깅의 범주가 총 15가지에요. 그 안에서 다 다르게 메타 데이터가 설계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품을 수집한다고 하면 소품의 재질도 메타 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 소품의 사이즈도 다 메타 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 소품이 영화 속에 어디에 나왔는지도 메타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영화를 다루지만 영화와 파생된 모든 자료 형태에 대해서 메타 데이터를 따로 설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메타 데이터는 계속 변해요.” (기관 실무자)

- “저희 기관의 기술요소는 ISAD(G)라고 하는 ‘국제표준기록물기술규칙’과 미국 게티(GettyResearch Institute)에서 사용했던 기술지침‘(DACS)’, 한국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물기술지침 이렇게 세 가지를 참고로 하며 기록물, VHS나 필름, 사진의 매체 속성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기관 아키비스트)

- “메타 데이터 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일단, 기증자 혹은 유족, 연구자와 인터뷰를 하고, 총서나 권위 있는 기관의 레퍼런스를 찾아서 기록해요. 메타 데이터 정리는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권진규 컬렉션의 경우에는 2014년에 기증을 받았는데 최근에(2021년) 오픈했어요. 2014년 1월에 받아서, 일단 2014년 10월에 디지털 사업을 진행했어요. 디지털화는 훼손을 방지하거나 자료를 해제하기 위해서 해요. 2015년부터 해제 사업을 약 2-3년 동안 했고, 2019년에는 훼손된 자료들을 수복했어요. 2020년도에는 영인본을 만들었고, 2021년에는 열람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입력 작업을 했어요. 이런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계획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관 아키비스트)

■ 메타데이터 표준 매뉴얼의 부재와 필요성

- “(미디어아트 기술의) 표준 매뉴얼의 부재를 담론화하거나 매뉴얼을 제시하는 방식이 가능한데 사실 매뉴얼을 제시하는 게 더 힘드실 거예요. (...) 미디어아트의 메타데이터는 필름에서 차용해 와야 하는지 미술 아카이브 방식의 기술을 입혀야 할지 고민이거든요. 모든 기준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용어 번역도 사실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문헌정보학이나 기록학에서 기본으로 쓰는 스탠다드 세트에 대한 번역은 나와 있지만 영화에서 메타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정의가 다른 거죠. 미디어아트의 에디션 개념과 필름 에디션 개념이 또 달라요. (...) 용어 혼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세트를 표준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각 기관에서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다 같이 모여서 정하기에는 서로 바쁘기도 해서 표준을 만들기 힘들어요. 아르코아카이브가 인력이나 예산 투입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깃발을 드시겠다고 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지만요.” (기관 아키비스트)

마. 배급, 유통의 방식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

1) 필요성 논의

■ 플랫폼 역할로서의 배급, 유통 모델의 필요성

- “작가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미술관처럼 소장 개념으로 구입하거나 축적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작가의 것을 가지고 있고, 어디든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겠다는 개념이라는 데 있어요. 작품을 여러 곳에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 준다는 부분이 작가들한테는 가장 매력적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기관 프로그래머)

- “저희에게 기관들이 연락을 많이 줘요. 어떤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거나 아니면 스크리닝의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지만 사실 저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가들한테 좋은 거는 저희가 아예 회신을 할 때 무조건 작가들을 참조해서 다 오픈해줘요. 양자 간에 합의가 돼서 전시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개입해야 되는 문제들은 개입해서 판단을 서비스로 해 드리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브릿지 역할만 해요. 작가의 연락처를 공유해서 프로그램이 성사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죠.” (민간 기관 대표)

- “전시 큐레이팅이 됐든 비평 출판이 됐건 혹은 공공 미디어아트 스크린에 띄우는 작품을 기획하든 큐레이팅을 하고 아티스트 비용을 받아서 작가들한테 상영비 개념으로 지급을 하는 형식이 간접적인 배급의 형식이 될 수 있는 큐레이팅 모델이에요. 기업의 미디어 월 같은 경우는 작품이 계속 교체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큐레이팅도 작품 배급이죠. 거기에 동의한 작가들의 작업을 기간을 설정해서 상영하게끔 하고 작가들한테 상영비를 지급하는 형식이에요. 미술계에서는 영상 작업 상영권을 분리하고 있지 않죠. 그런 기준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기관 자문도 많이 해요.” (민간기관 대표)

■ 배급의 실질적 필요에 대한 비판적 논의

- “배급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영화제들은 어쨌든 그렇게 파급이 생기는 영화제는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력 한 줄 넣는 정도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의미로 다양한 관객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배급이 신진 작가한테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가)

■ 민간 영역에서의 배급 활동의 어려움과 생태계 구조 논의

- “실제 배급을 하시는 분들이 강조한 부분이 바로 배급은 이윤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말이었고, 그 부분이 저에게도 무척 인상 깊었는데요. 배급이라는 게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은 순환 구조와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개인의 시간과 돈을 쏟으며 굴릴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의 수익도 있고 그것이 순환될 만한 공공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까지도 인정이 되어야 지속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니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큐레이터/프로듀서)

2) 방향성 논의

■ 기존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는 간접 배급 방식

- “해외에서도 전문적으로 미디어아트를 배급, 보급하고 국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국가 기관은 민간의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협력관계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 방식이지요. (...) 국가기관이 민간의 역할을 빼앗지 않으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조성된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요.” (민간기관 대표)

- “작품 추천을 요청한다거나 정기적으로 추천을 받는 단체/기관을 선정해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작가도 지급료를 가져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 단체들도 운영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야 생태계를 유지 할 수가 있고, 아르코미술관도 시민들을 위한 아카이브를 조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간기관 대표)

■ 아르코 변별점을 특화하기 위한 독점적 비영리 배급 방식

- “그렇다면 아르코미디어의 경우 작가와의 계약을 통해서 배급권을 확보하는 것, 혹은 비영리 배급 대행만을 독점 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품 수집은 별도의 트랙으로 가고요. 아르코아카이브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것이 아무도 미디어아트와 비디오아

트, 싱글채널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수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상영이나 배급이나 저작이나 권리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지 않았었을 때라 작가들이 비디오테이프 하나씩 갖다 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형성됐죠. 비영리 학술 목적의 연구자 지원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은데, (...) 아르코아카이브는 비영리 배급을 독점적으로 대행해 주겠다는 지향을 세울 수도 있어요. 작가와 갤러리에서는 영리 배급을 하거나 판매를 하겠죠. 그렇다면 마켓에서 탐내지 않지만 미학적으로나 미술사적으로 의미 있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품어서 육성을 한다는 차원으로 배급의 방점을 찍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요." (기관 아키비스트)

- "아르코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대여권을 확보하신다면 그 부분이 업무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육성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관 아키비스트)

바. 저작권 논의

■ 소장과 유통 등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

- "무빙 이미지라는 것이 복제와 순환에 특화된 매체이기 때문에 보존을 위해 소장되는 한편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통되는 두 가지 트랙을 다 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교육과 연구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소장용 에디션은 또 에디션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카디스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미술관이나 개인 소장과는 다른 개념으로 일종의 아카이브 관련 제반 권리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과 연구의 목적으로 열람 가능하게 하는 것과 소장권 및 전시권을 보장 받는 것은 별개니까요. 카디스트는 작가의 작업을 서포트하면서 동시에 리스트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프로젝트에 작가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리마가 운영하는 미디어쿤스트(Mediakunst)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실제로 스트리밍 수익을 내는 MUBI 같은 모델은 조금 다르겠지만요." (큐레이터/프로듀서)

■ 온라인 스트리밍을 위한 저작권 협의 필요

- "다만 저희 아카이빙 기관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활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을 해결해 가면서 서비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화 기증을 받거나 수집 시에 기본적으로는 저희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내부 극장에서 상영을 할 수 있고 내부 도서관에서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해요." (기관 실무자)

- "특히 해외 영화제 출품 시, 온라인 상영 후 영상파일 삭제와 저작권 관련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가)

■ 독점적 이용 허락권, 비독점적 이용 허락권

- "저희의 경우 저작권은 당연히 작가에게 있고, 저희는 비독점적 이용 허락권을 가지고 있어요. 작가가 허용한다면 다른 기관도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 허락권이 있고 또 하나는 독점적 이용 허락권이 있어요. 독점적 이용 허락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 제작 지원을 했던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70년대 이전 작품의 경우는 거의 필름들이라서, 디지털라이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원본을 소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원본을 나눌 수 없으니 독점적 이용 허락권을

가지게 되고요. 저희가 디지털라이징도 하고 유통까지 하겠다는 계획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관 프로그래머)

■ 소유권, 전시권, 배포권, 저작권 등

- “보통 미술 기관이 소장할 때 소유권과 전시권을 갖는데, 배포권 또는 배급의 권리는 별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인 작가의 허락을 받은 상영과 대여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계약서상에서 그러한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경우,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큐레이터/프로듀서)

사. 생태계 육성에 대한 논의

1) 제작 지원

■ 영상 제작만을 위한 제작 지원의 필요성

-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작업의 규모를 따져봤을 때 영화제의 피칭 프로그램들에 지원을 시작하려고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이나 다른 재단들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작품 제작 자체보다는 아무래도 전시를 열기 위한 지원금으로 많이 책정되어 있는 만큼 지원금의 대부분을 임차비, 홍보비 등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작가)

- “저희가 지원하는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영화를 만들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인데도 너무 좋은 작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작가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훌륭한 작업이어도 제작 지원받기는 너무 힘든 거죠. 어디서든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입장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운이 좋은 거지만,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인 거죠. 이런 제작 지원이 많이 생겨야 해요.” (기관 프로그래머)

- “매해 하나의 필름 무빙 이미지 프로덕션 어워즈를 만들거나 프로덕션 기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 어워즈를 진행하면 매해 하나씩 결과가 남으니 자연스럽게 아카이브가 돼요. 그게 훨씬 아르코답다고 생각해요. 기관 입장에서 얻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1년에 필름 어워즈를 주고 작업을 만든 다음에 내년 전시 중에 꼭 발표를 해야 한다던가, 아르코 전시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을 둘 수 있어요. 핵심은 공모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 구상하는 작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선정해서 프로덕션 피를 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작업이나 전시 경력으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전시의 계획에서 영상의 계획으로 달라질 뿐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 전시 지원금 영역을 쪼개서 프로덕션 지원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프로듀서 한 명, 무빙 이미지 작가 한 명 이렇게 구성된 팀에게 1년 동안 제작 할 수 있는 지원금 분야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가)

2) 제작 외 지원

■ 제작 환경 및 인프라 지원

- “단순하게 작가 혹은 작품에 지원만이 아니라 작가가 작품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해요. 지원금과 더불어 제작 환경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지원 요소가 무엇일지 기술 스태프나 실제 작가들과 상의하고 의논할 필요가 있어요.” (작가)

■ 촬영 윤리 필요성 등 작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영상 작업은 파운드 푸티지도 그렇지만 렌즈 기반 작업을 할 때는 뭔가를 찍어야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데이터화된다는 자각과 그 권리 취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대한 문제예요. 신진작가한테 이런 교육을 해 주면 좋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카피라이트나 초상권, 영상을 퍼블릭한 공간에서 찍는 것에 대해서 영화 쪽에서는 이제 인식을 하는데 미술 쪽에서는 아직 개념이 부족해요. 어떻게 이 법적 권한을 갖고 촬영 할 수 있는지, 소스를 쓸 수 있는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촬영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요.” (작가)

■ 저작권 관련 작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영상 소스의 출처, 원작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찾아야 하는 문제들이 미술작가들이 프로덕션 상에서 안고 있는 문제예요. 이 영상 소스가 어디에 먼저 나왔는지 예전에는 그냥 썼는데 이제는 확인이 필요해요. 크레딧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건 시대 반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쪽은 아예 스태프 구성이 있고 감독의 역할이 명확한데 미술에서는 큐레이터가 개입하면 프로듀서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죠.” (민간기관 대표)

■ 창작 과정에서 비평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형성

- “우선은 작품 제작을 위한 제작비 지원 외에 기술적 지원, 전문가 자문, 인프라 제공, 배급 지원 등이 있어야겠지만, 요즘은 무엇보다도 작품을 세심하게 봐줄 다양한 비평적 관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로듀서와 제작 스태프들은 작품이 나오기 전에 오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초의 관객이고, 그런 동료들과 함께 성장해나간다는 게 작업을 지속해나가는 동력 중의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작업이 작동할 수 있는 맥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큐레이터/프로듀서)

■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는 공간 대여형 커뮤니티

- “미디어액트처럼 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자면 해외의 스파이크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카메라도 빌려주고 편집실도 있어요. 커뮤니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동 편집실이나 장비 대여 등을 할 수 있는 미술인들의 공간이 있으면 좋죠.” (작가)

아. 기관 간의 교류 방안

■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작품 통합 DB 운영

- “아카이브를 어떻게 공공적으로 외현화 할 것인가가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디지털 온라인 아카이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해주면 너무 좋죠. 그리고 통합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작가들 작업이 에디션별로 미술관마다 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가 내 작품이 어디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안내 같은 것들도 만약에 맵핑이 된다고 하면 이게 디지털 온라인 아카이브에서는 표준화 카테고리라든가 아주 기본적으로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참조 문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간기관 대표)

■ 유관 공공기관 간 교류 도모

- "컬렉션을 하고 배급까지 생각하고 있는 데는 정말 국내에서는 저희 기관과 아르코미술관이 공공기관에서는 유일한 것 같거든요. 잘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두 곳 다 이른 시기에 시작했고 꾸준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유의미하고 서로 비슷한 사례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둘 다 공공기관이고 공공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같이 운영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아르코미술관은 여기보다는 미술 기반 작가들이 많을 테고, 여기는 미술도 하지만 영화 기반 작가들이 많을 테니 같이 공동의 플랫폼을 운영해본다면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아카이빙 플랫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관 프로그래머)

- "미디어아트센터가 있으면 너무 좋죠. 미디어아트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국가와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이니까요. 예를 들어 인디스토리 10주년 기념 특별전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어주기도 해요. 저희는 20년 넘게 운영했지만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저는 아르코가 한국영상자료원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영상예술들, 미술 쪽의 미디어아트와 비디오아트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수집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간기관 대표)

3. 소결

■ 아카이브 전문 인력의 필요성과 장기적 관점의 아카이브 예산 계획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확보 필요

○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이 미술 전문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국내 주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아키비스트 및 운영자, 작가, 독립 큐레이터/프로듀서 등 모든 자문 그룹에서 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의 배치 및 전담 필요성과 장기적 관점의 아카이브 예산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제기하였음

○ 국립현대미술관처럼 규모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술관의 경우 아키비스트 1인이 전담하여 아카이브 수집, 운영, 활용 기획 업무, 자료의 유지, 보수 등 기술적 업무, 열람실 운영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아카이브 자료의 활용에 대한 기획, 수집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보다 추진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키비스트가 자주 교체되는 등의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테크니션, 열람실 운영 아키비스트 등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전문 인력의 역할 수행의 구분과 이를 위한 최소 필요인력이 2인 이상은 마련되어야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아카이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영상 작품의 배급, 유통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아카이빙 자료의 분류 및 정리, 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르코를 비롯해 국내 여러 유관기관에서 이러한 시도가 있었으나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기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예산 계획이 필요함을 제기

■ 미디어 아카이브 수집, 자료관리, 운영방식에 있어 기관 특성을 살린 큐레이션을 통해 확산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수립 필요

○ (수집) 유관기관의 경우 작품의 제작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기관의 방향성 및 정체성과 맞물려 그에 맞는 작가에게 커미션을 의뢰, 수집으로 연결시키며 이에 대해 '독점적 이용 허락권'을 받아 소장과 더불어 배급으로 연계, 확장하는 경우를 변화하고 있는 환경 안에서 영상 작품에 대한 수집 전략의 한 모델로 살펴볼 수 있음

○ (자료관리) 미디어 아카이브의 경우 비물질 매체적 특성에 따른 자료 관리 및 보관 매뉴얼이 필요한데 자문을 통해 DVD 파일이 아닌 원본 파일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여러 채널로의 네트워크 불안전성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례가 논의되었으며 정기적 재생 테스트 등의 품질관리를 진행함

○ (운영) 수집한 소장 자료를 배급, 홍보하는 활동은 이를 통해 보유 자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또한 수집한 소장 자료를 단순 나열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학술적 혹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세부 분류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하는 단계가 중요하며, 기본적인 예시로 기증자별 컬렉션을 보여주는 방식을 들 수 있음. 또한 기관사 컬렉션 역시 미술관의 운영 역사의 맥을 함께 들여다보며 자료의 가치를 더욱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됨

■ 활용 방식에 있어 특징을 살린 차별화 전략 수립 필요

○ 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방식에 있어 정기적 상영(스크리닝)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작가를 홍보하고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담론 형성의 장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내 및 해외 기관과의 교류 상영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 미디어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출판물 역시 아카이브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소장 작가 및 작품에 대한 학술적, 미학적 연구 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소장 자료의 가치를 재생산 및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함

○ 아카이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물리적 공간인 아카이브 열람실을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특히 학생과 연구자를 위해 아카이브 자료를 개방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며, 미디어 아카이브의 경우 비물질적 매체의 특성을 살려 학술 및 교육 등 비영리 목적에 의한 열람 및 온라인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비영리 배급권' 등으로 진행하면 소장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 아카이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점을 논의하였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제로 국내 많은 기관이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작가 포트폴리오와 같은 아르코 특화 자료의 경우 서가에만 비치한 것이 아쉽다는 의견과, 이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제기됨. 더불어 국내외 유관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통합DB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 제시, 이를 위해서라도 메타데이터의 설계와 정리, 지속적 보완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상영, 연계전시 및 프로그램, 출판, 열람, 온라인 공유 등과 같은 아카이브 자료 활용 방식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관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어젠다가 선제 되어야 하는 것임. 관련 키워드를 설정하여 기관 활동을 홍보하고 연계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을 추진해야 단순 나열식의 아카이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의미를 생산해내고, 가치로 연결시킬 수 있음

■ 아르코의 미디어 배급 및 유통 방향성 설정에 있어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춰 비영리적 접근, 간접 배급의 형태, 비독점적 이용 허락의 방식으로 지향을 두는 것을 제안

○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에 대해 미술관처럼 소장 개념으로 구입하거나 축적하는 개념과 달리 비물질 매체적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예를 들어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일임한다면 작가들에게도 작품을 보다 많은 관객에게 보여주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됨. 또한 언제든 저작권에 대해서는 작가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 기관에서의 전시, 활용의 자유를 갖는 점도 플랫폼으로서의 기관이 취할 수 있는 배급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해외 기관에서 국내 작가 작품을 찾기 위한 루트를 일원화하고 이에 대해 연결해줄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직접 배급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통해 도출 되었고, 사실상 직접 배급의 역할을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의 생태계를 헤칠 수 있는 우려로 간접 배급, 비영리 배급 방식 등이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작 지원 및 제작 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제기

○ 대부분의 창작지원사업이 전시와 같은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데 변화된 환경에 맞춰 아티스트 무빙이미지 작품의 경향에 맞는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특히 영상작품의 경우 촬영, 연출, 출연 등 스탭과 협업자들이 다수 투입되는 경우 다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에 영상제작만을 위한 제작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비물질 매체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아카이브 소장자료 구축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아르코아카이브의 참고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제작지원외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는 제반 환경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었음. 작품 제작이 아닌 장비 대여, 공간 대여 등 환경과 커뮤니티를 마련해주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대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르코아카이브를 경유하여 네트워크가 생성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영상 작품의 경우 많은 작가들이 촬영 윤리와 저작권 등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함을 자문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아카이브 소장 작품과 연계하여 아르코만의 변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제2절 설문조사 운영 및 분석

1. 설문조사 운영 개요

가. 설문 대상

■ 아르코아카이브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및 FGI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도록 구성함

■ 20대 후반의 신진 미술인에서부터 30, 40대 활동하는 중진 작가, 비평가, 기획자 등으로 구성하여 현재 미술계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니즈를 파악해볼 수 있도록 질문지를 배포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설문방식이 아닌, 기존 아르코아카이브를 이용해보았던 이용자 위주로 구성하려 노력했으며,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를 골고루 편성함으로써 의견수렴의 범위를 최대한 넓고 균형감 있게 구성함

나. 설문 기간

■ 기간 : 2021년 11월 5일 ~ 2021년 11월 15일

다. 설문 방법

■ 취지를 설명한 게시글과 설문지 링크를 SNS를 활용하여 배포함으로써 아르코아카이브의 활용 경험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용자의 제안을 널리 흡수하고자 함

■ 사전 컨택을 통해 의사 확인 후 질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지 회신율을 높이고, 전문가들의 선별된 답변을 보다 독려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음

라. 설문지 설계 목표

■ 아르코아카이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험의 양적 질적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미디어컬렉션과 작가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한 아르코아카이브의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자료 확보

■ 향후 아르코아카이브 배급 및 작가 지원서비스의 방향에 대한 희망 개선 의견 수렴

■ 창작자와 비평가, 기획자를 비롯한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연구와 창작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을 위한 광범한 제안 수렴

마. 설문지 구성(Questionnaire Design)

■ 설문지는 ① 활동분야 ②연령대 ③ 자료획득 경로 ④ 아르코아카이브 경험 유무 ⑤ 작가 포트폴리오 및 미디어컬렉션에 관한 의견 ⑥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의견 ⑦ 배급 및 작가지원 서비스 방향 ⑧ 아르코아카이브에 대한 제안 등 6개 유형, 9항목, 12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질문 구성은 추후 개선 방향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음

■ 자료 획득 경로 및 아르코아카이브 방향성 제안 등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배치하여 상세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함

[표 4-2] 설문지 질문구성 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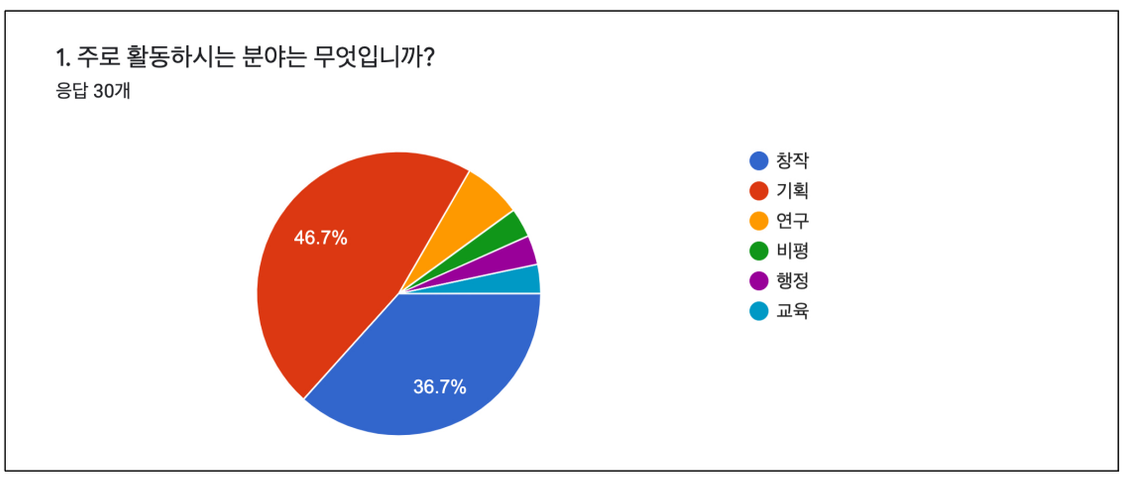
항 목		문항 번호	문항 수	질문유형
설문대상	활동분야	1	2	객관식 질문
	연령대	2		
외부자료 정보획득 경로	외부자원 취득 방식	3-1	2	
	자료접근 방법	3-2		개방형 질문
아르코아카이브 열람경험	열람 경험	4	3	객관식 질문
	이용 횟수	4-1		
	이용 시기	4-2		
아르코아카이브 사업 관련	작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견	5-1	2	
	미디어컬렉션에 대한 의견	5-2		
아르코아카이브 서비스	싱글채널 비디오 영상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의견	6	2	
	아르코아카이브의 배급 및 작가지원 서비스가 개시될 경우 이에 대한 의견	7		
아르코아카이브에 바라는 제안 등	자료 구축 및 배열에 관한 제안,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제안, 열람, 상영의 편의성에 관한 제안	8	1	개방형 질문
합계	-	-	12문항	-

2.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대상, 응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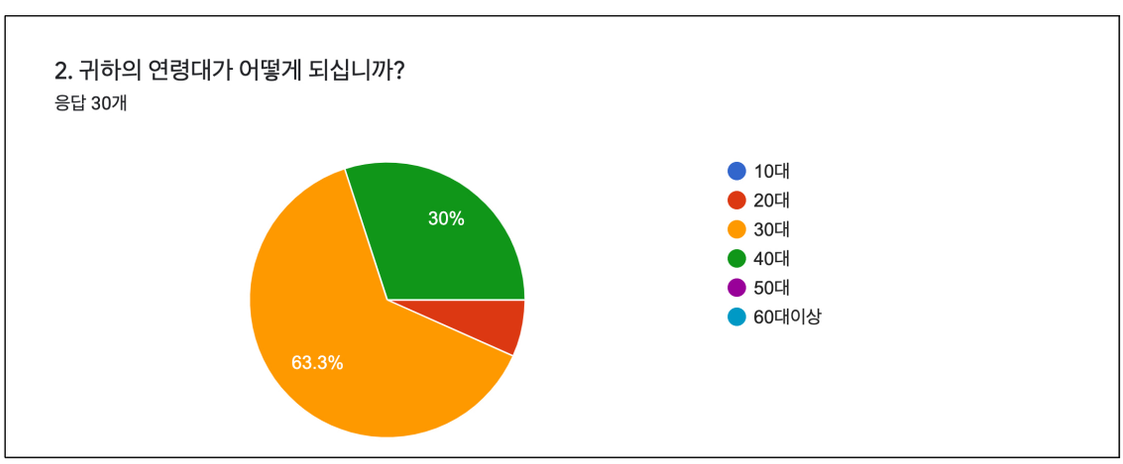
■ 【활동 분야】 기획자(46.7%), 창작자(36.7%)로 전체 응답자의 83.4%가 기획, 창작자로 구성되어 있음. 그 밖에도 비평, 행정, 교육 등 종사자 등 다양한 미술 전문가의 응답을 수집함

[그림 4-2] 1번 문항(활동 분야) 응답 결과



■ 【연령대】 설문 연령대 구성을 20대(6.7%), 30대(63.3%), 40대(30%)로 전체 응답자 100%가 청장년 미술인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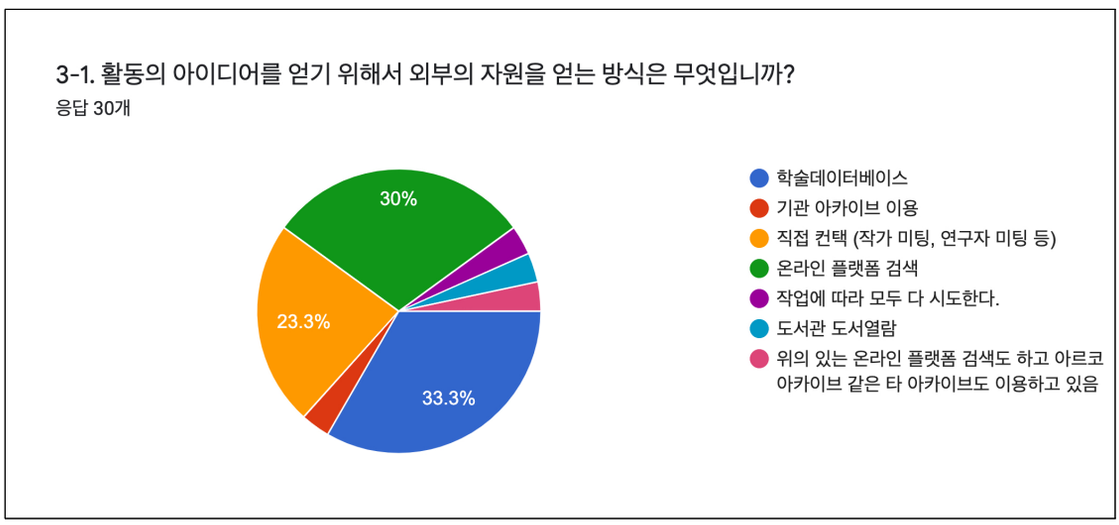
[그림 4-3] 2번 문항(연령대) 응답 결과



나. 외부자료 정보획득 경로

■ 【외부자료 취득 방식】 외부자료나 정보의 획득 방법에 대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33.3%), 온라인 플랫폼 검색(30%), 직접 컨택(23.3%)이 전체 응답자의 86.6%를 차지하는 데 반해 상대적으로 기관 아카이브 이용은 3.3%(1명)로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그 밖에도 도서관 열람, 작업에 따라 모든 방식을 사용한다는 경우, 아르코아카이브는 물론 다른 아카이브도 사용한다는 답변도 각각 3.3%를 차지함

[그림 4-4] 3-1번 문항(외부자료 취득 방식) 응답 결과



■ 【자료 접근 방법】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 정보를 취득하는 가운데 많은 답변에서 응답자가 학생 대상이 아닌 현장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및 포털을 통해 웹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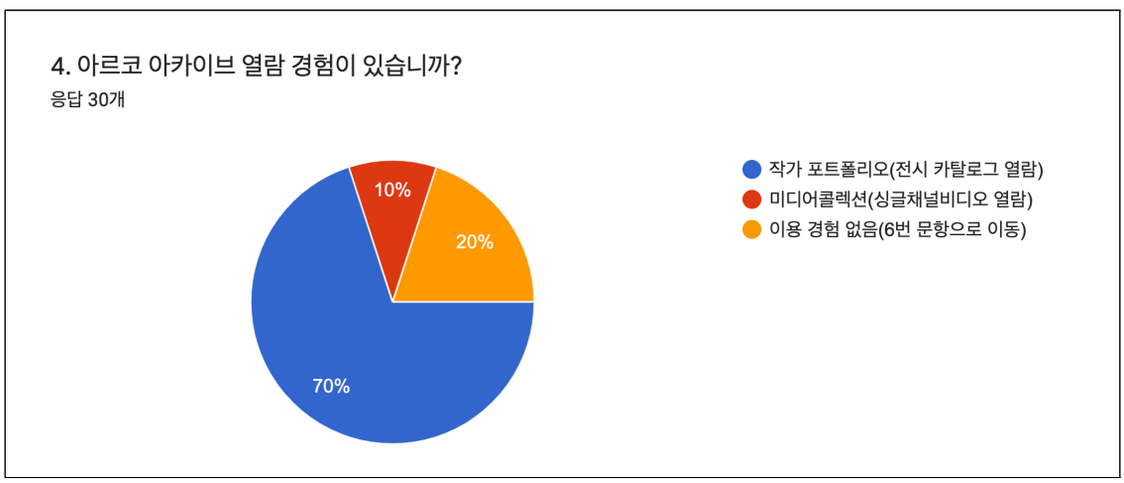
[표 4-3] 3-2번 문항(자료 접근 방법) 응답 결과

3-2. 위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 대학 도서관 아이디를 통해 학술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기관 자료 열람신청 후 이용 등
• riss, google scholar, Jstore.org 활용
•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하여 컨택
• 전자도서관, 대학 도서관 아이디를 통해 학술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기관 자료 열람신청 후 이용
• 구글링 및 서적 구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구독
• 대학 도서관과 국립중앙, 국회전자도서관, 국가기록원, 통계청, 지자체 공공아카이브 이용
• 인터넷 리서치, 자문인 컨택(작가/ 기술자, 엔지니어 등)
• 세미나를 통해 자료를 얻음
• 아르코아카이브 예매 후 이용, 대학 도서관을 이용해 학교 내 데이터 이용, 지인중에 작가로서 활동하는 분들과 교류
• 공공 도서관 이용, 논문 검색, 관계자 인터뷰, 참고도서 및 이미지와 음원 참고, 현장 방문, 기관 방문해서 리서치

다. 아르코아카이브 열람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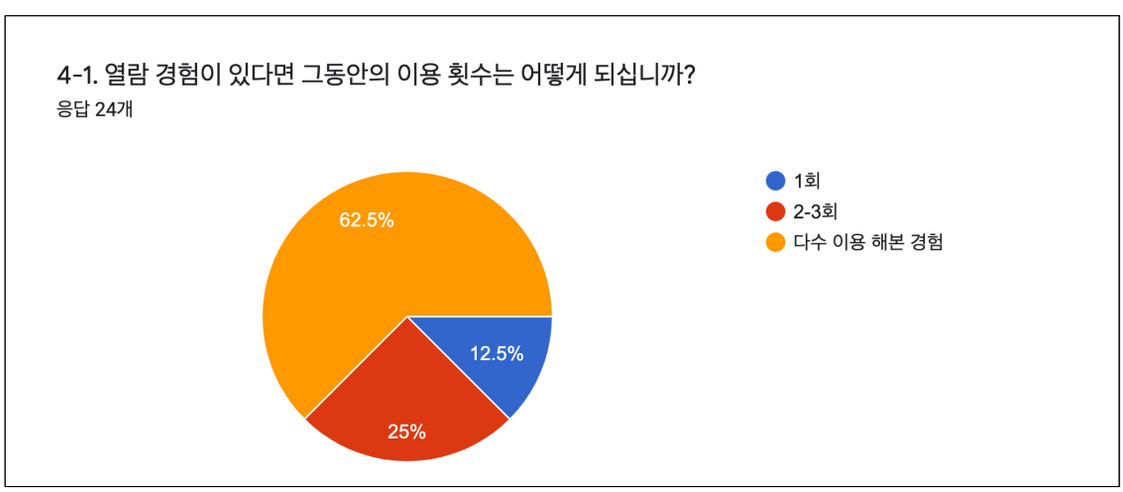
■ 【열람경험】 아르코아카이브 자료 열람 경험에 대해 전체 설문대상자의 70%가 작가 포트폴리오를 열람한 경험이 있고, 10%는 미디어컬렉션을 열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설문대상자의 80%가 아르코아카이브 열람을 경험해본 것으로 파악해볼 수 있으나 이용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도 2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5] 4번 문항(열람 경험)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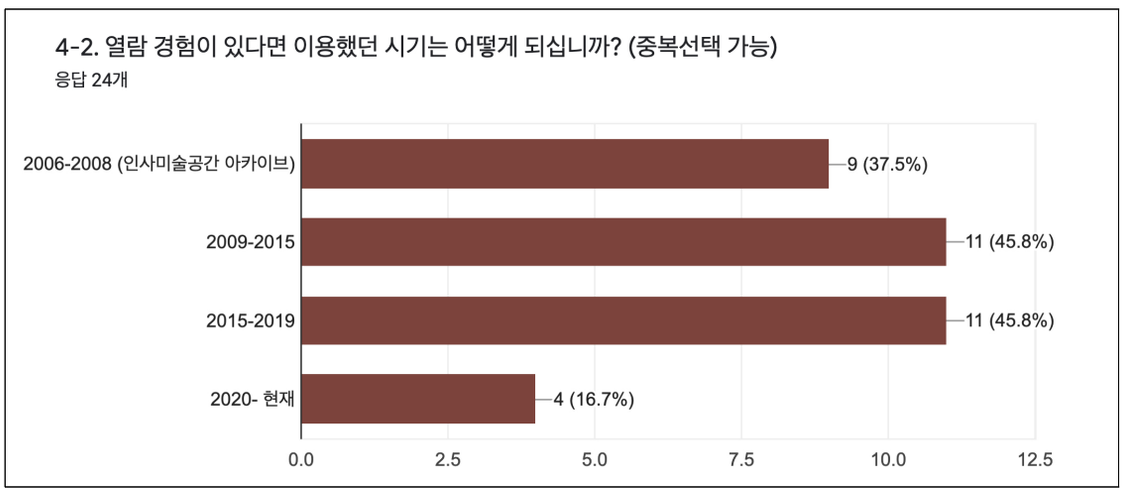
■ 【이용 횟수】 응답자 중 1회 이용자는 12.5%, 2~3회 이용해본 경우는 25%였으며, 62.5%가 아르코아카이브를 다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아르코아카이브 경험자의 87.5%가 2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볼 때 미술인들의 기본적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해볼 수 있음

[그림 4-6] 4-1번 문항(이용 횟수) 응답 결과



■【이용 시기】아르코아카이브 열람 경험을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사미술공간 아카이브 시기였던 2006년부터 2008년까지가 37.5%, 아르코아카이브로 이관된 2009부터 2015년까지의 시기가 45.8%,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5.8%,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에 열람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6.7%로 나타남. 이로써 응답자의 91.6%가 인사미술공간의 아카이브가 아르코미술관으로 이관한 이후인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기에 주로 아르코아카이브 열람실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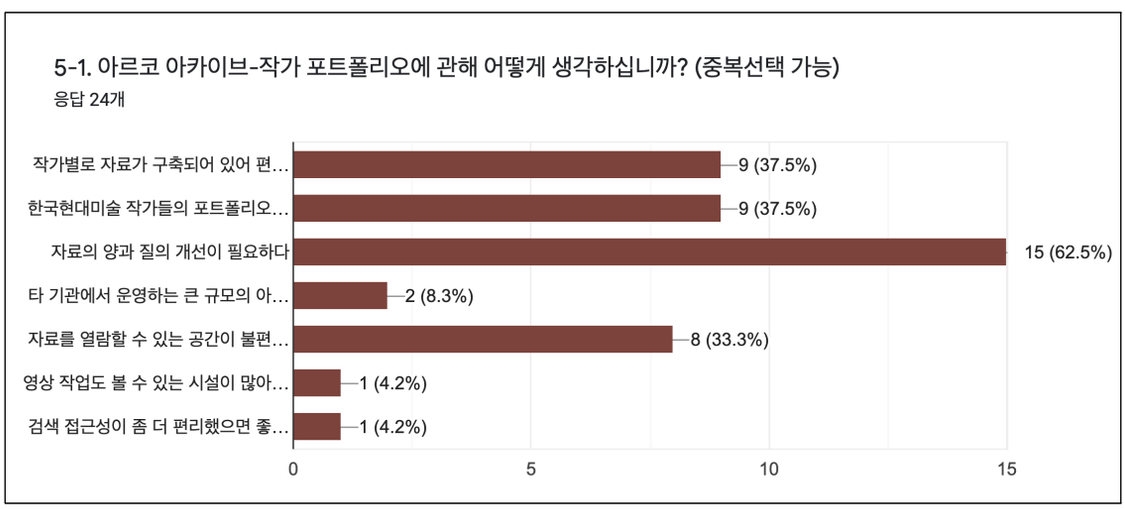
[그림 4-7] 4-2번 문항(이용 시기) 응답 결과



라. 아르코아카이브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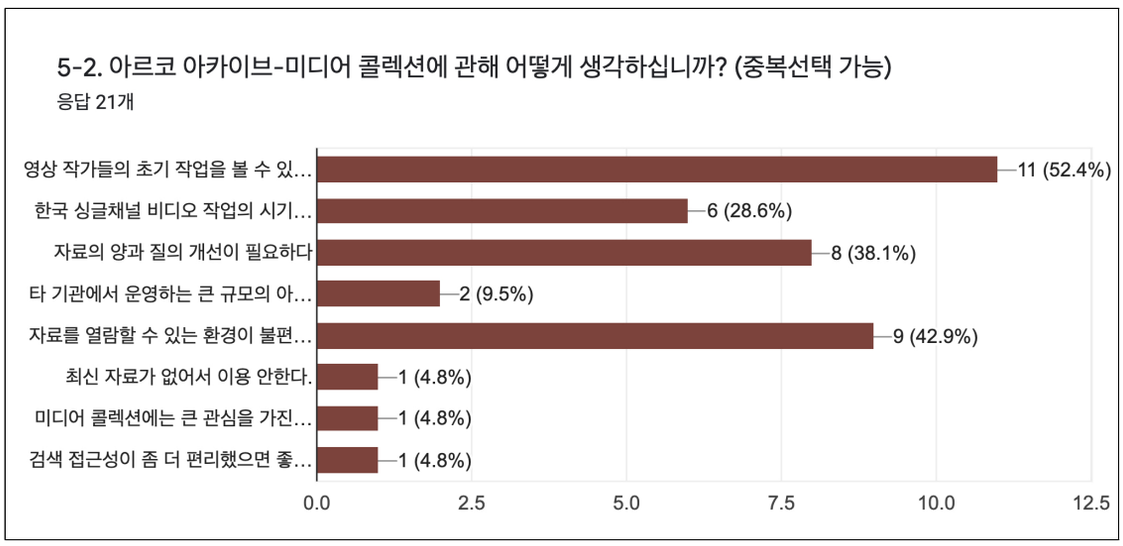
■【작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아르코아카이브 자료 중 작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5%가 자료의 양과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3.3%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불편하다고 응답함. 또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의견과 아카이브의 자료 구축이 '작가별'로 이루어진 데 대한 긍정적인 반응 또한 각각 37.5%로 나타났음. 그 밖의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큰 규모의 아카이브 기관이 많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8.3%), 영상 작업도 볼 수 있는 시설이 많아지면 좋겠다(4.2%), 검색 접근성이 좀 더 편리했으면 좋겠다(4.2%)는 의견이 있었음

[그림 4-8] 5-1번 문항(작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견) 응답 결과



■【미디어컬렉션에 대해】 아르코아카이브 미디어컬렉션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38.1%가 자료의 양과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42.9%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이 불편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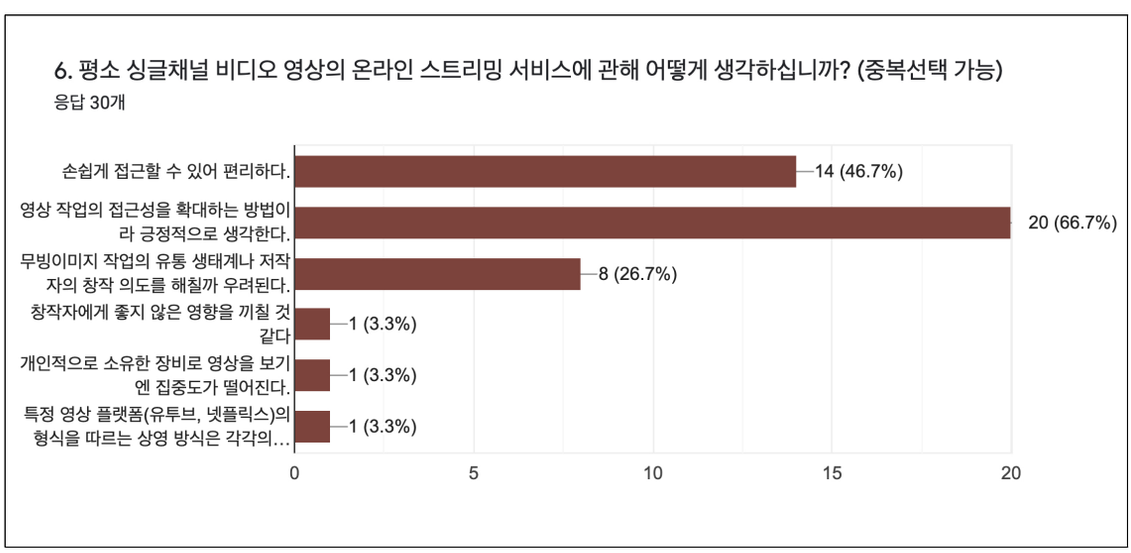
[그림 4-9] 5-2번 문항(미디어컬렉션에 대한 의견) 응답 결과



마. 아르코아카이브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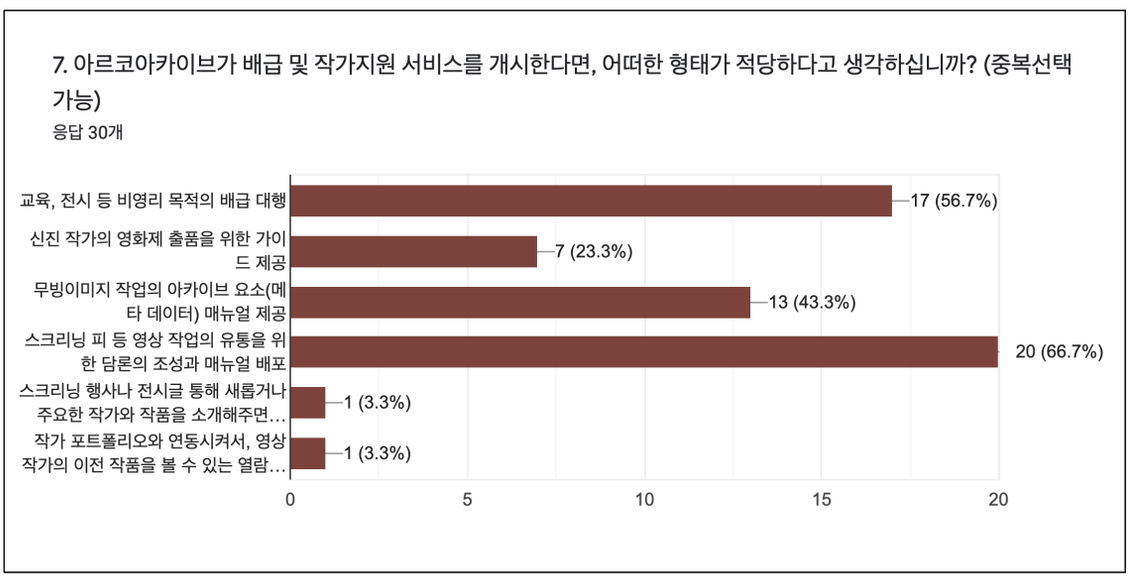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의견】 싱글채널 비디오 영상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해서는 무빙 이미지 작업의 유통 생태계나 저작자의 창작 의도를 해칠까봐 우려된다는 의견이 26.7% 정도 있으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법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113%(중복선택의 결과)로 압도적인 인식으로 나타남

[그림 4-10] 6번 문항(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의견) 응답 결과



■【배급 및 작가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견】 향후 아르코아카이브가 배급 및 작가지원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그 방향성에 대해 스크리닝 피 등 영상 작업의 유통을 위한 담론의 조성과 매뉴얼 배포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의견이 66.7%로 압도적이었고, 교육, 전시 등 비영리 목적의 배급 대행이 56.7%로 나타남. 그밖에 무빙 이미지 작업의 아카이브 요소(메타 데이터) 매뉴얼 제공이 43.3%, 신진 작가의 영화제 출품을 위한 가이드 제공이 23.3%를 차지하는 등 아르코아카이브에 대한 사용자의 전반적인 니즈가 무빙 이미지 창작 생태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4-11] 7번 문항(배급 및 작가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견) 응답 결과



바. 아르코아카이브에 바라는 제안

■【아르코아카이브에 바라는 제안】 개방형 질문에 대해 각각 다양한 개별 의견들을 개진하였음

[표 4-4] 8번 문항(아르코아카이브에 바라는 제안) 응답 결과

8. 아르코아카이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십니까? (자료 구축 및 배열에 관한 제안,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제안, 열람, 상영의 편의성에 관한 제안 등 자유로이 제안주세요)
• 프로그램을 아르코아카이브 공간에서 한정하지 않고 전시관 등 공간을 확대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 아카이브의 형식과 열람 방식의 체계를 잘 정립하여 대외적으로 알리면 연구자 및 기획자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르코 방문 시 종종 호기심에 자료들을 뒤적거려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문성 있는 업무나 연구를 위해 찾게 되지는 않는 것 같다.
• 최신 자료도 많이 업데이트 되었으면 좋겠다
• 젊은 작가들의 작업들이 적절한 소개 글과 함께 제공되면 좋겠다.
• 아르코미술관의 운영시간과 다른 점, 복사용지를 가지고 가야하는 점, 작가 아카이브 업데이트에 대한 신뢰여부 등이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인지되어 최근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현재의 아르코아카이브가 미디어 배급을 하나 더 사업화 한다고 해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 아르코가 '지역'에서의 예술경험의 향유에 대해 고민이 더 깊어지면 좋겠다

• 지역에 있는 기획자나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실제 스크리닝을 위해 컨택했다가 결국엔 배급사를 통했었다. 지역정보화로 인해 각 공공 재단이나 기관에서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
• 새로운 영상 구축. 관람할 수 있는 상영관 또는 관람실 구축이 필요하다. 고사양의 화면과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예약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대학 도서관도 dvd 관람실 컨디션 좋은 곳이 많다)
• 작가 포트폴리오를 열람하는 공간이 지금 보다 넓으면 좋겠다. 더불어 해당 작가의 이후 활동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면 좋을 것 같다.
• 아르코의 위상에 비해 아카이브실과 열람실 규모 등이 작은 편이다. 전시 공간 못지않게 아카이브실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 공간의 협소하니 개선 바란다
• 연구자 레지던시같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다. IAS 시기 해외 교류 프로그램들이 인상적이었고, 초기 아르코는 젊은 작가, 학생,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된 활동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한국 제도권 미술계에 이미 소속된 작가"들 위주인 것 같아 아쉽다.
• 아르코아카이브 기반 연구 커미션을 위한 아르코 리서처 펠로우 십 제도 제안. 아카이브 현재화 및 순환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기획 필요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해 추후 아카이브 수집 제안까지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
• 작가 자료와 아르코미술관 전시자료가 융합된 '아카이빙 전문' 프로그램이 기획되기를 바란다.
• 아카이빙 기관들 간의 공동기획을 통해 서로의 아카이브 자료를 바꿔보는 순회 열람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지역 교류의 차원에서 이뤄져도 좋겠다)
• 아르코미술관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1차 자료들을 아카이브에서 열람할 수 있기를 바란다.

3. 소결

■ 응답대상

- 전체 응답자의 83.4%가 기획과 창작 분야에서 활동하며 설문 전체 응답자 연령대가 20대~40대의 청장년 미술인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술 전문가의 니즈를 파악해볼 수 있는 구조임

■ 외부자료 정보획득 경로

- 응답자 중 외부자료나 정보의 획득 방법에 대해 학술데이터베이스, 온라인 플랫폼 검색, 직접 컨택이 전체 응답자의 86.6%를 차지하는 데 반해 아르코아카이브를 선택한 응답자는 3.3%에 그침
- 이런 미미한 결과는 아르코아카이브가 보편적인 전문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일부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이용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해볼 수 있음. 특히 온라인 플랫폼 검색(30%)에 크게 못 미치는1/10 수준의 비중 격차는 향후 아르코아카이브 서비스의 질과 홍보 방향의 설정에 수정과 변화의 시사점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됨

■ 아카이브 열람경험

- 전체 설문대상자의 80%가 아르코아카이브 열람을 경험해본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중 작가 포트폴리오가 70%를 차지했고, 10%가 미디어컬렉션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이를 통해 아르코아카이브 소장자료 중 작가 포트폴리오가 미술계 종사자에게 보다 많이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음. 한편 아르코아카이브에 대한 이용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도 20%를 차지하고 있음. 응답자가 미술계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들임을 고려했을 때 아르코아카이브에 대한 인식과 위상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추후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이에 대한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아르코아카이브 경험자의 87.5%가 2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볼 때 미술인들의 기본적 수요가 있다고 파악해볼 수 있으나, 12.5%가 1회 방문에 그치고 재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재방을 유인할 매력 포인트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아르코아카이브 열람 시기에 대해 1인이 여러 시기를 방문한 경우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응답자중 37.5%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인사미술공간 아카이브 시절 방문하였으며, 아르코아카이브로 이관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아카이브 관련 사업 추진이 축소, 중단되었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기가 각각 동일하게 45.8%로 나타났음. 또한 2020년 이후는 16.7%로 급감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열람실 운영 중단 및 운영시간 대폭 축소[54] 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결과적으로 아르코아카이브의 열람시기 통계를 살펴봄으로써 아카이브 사업 추진 상황과도 열람실 방문시기가 연결 될 수 있음을 시사함

54) [기존 운영시간 : 화-토 10:00~19:00] -> [변경 운영시간 목, 금, 토 10:00~19:00],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로 열람실 운영 중단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방역지침의 강화에 따른 인원 제한으로 인해 사전 예약제 및 목-토 한정 운영.

■ 작가 포트폴리오

- 아르코아카이브 자료 중 작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 중 62.5%가 자료의 양과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그러나 현대미술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의견과 아카이브의 자료 구축이 '작가별'로 이루어진 데 대한 긍정적인 반응 또한 각각 37.5%로 나타났음. 또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33.3%로 나타남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카이브 이용객들이 작가 포트폴리오 자료의 가치 및 활용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사업 운영의 측면에서 자료의 업데이트, 작가 선별 기준 마련 등과 같은 양적, 질적 개선이 필요하며 검색서비스, 열람실 환경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미디어컬렉션

- 응답자의 81%가 미디어컬렉션에 관해서 자료의 양과 질, 열람 환경 불편 등 구성과 운영에 불만이 있었으나, 영상 작가들의 초기 작업을 볼 수 있어 유익하다는 의견도 52.4%에 달함으로써 컬렉션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향후 방향성과 책임감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다만 최신자료가 없어서 이용을 안 한다(4.8%)거나, 검색 접근성이 불편하다(4.8%)는 의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의 운영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

■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 싱글채널 비디오 영상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해서는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바, 유통 생태계나 저작자의 창작 의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접근성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배급 및 작가지원 서비스 형태

- 향후 아르코아카이브가 배급 및 작가지원 서비스 방향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스크리닝 피 등 영상 작업의 유통을 위한 담론의 조성과 매뉴얼 배포가 66.7%로 압도적이었고, 교육, 전시 등 비영리 목적의 배급 대행이 56.7%, 무빙 이미지 작업의 아카이브 요소(메타 데이터) 매뉴얼 제공이 43.3%, 신진 작가의 영화제 출품을 위한 가이드 제공이 23.3%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전문 미술인들이 각종 매뉴얼과 정보에 대한 니즈가 절실하며 아르코아카이브가 무빙 이미지 창작 생태계 및 작업 정보 DB 구축의 선제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지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향후 아카이브 전략 방향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제3절 SWOT 분석

[그림 4-12] SWOT 분석표



1. SWOT 분석

가. 내부강점(Strength)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 미술관으로서 공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

○ 공공기관으로서 타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의 수월성

○ 기관 내부 다양한 예술 지원사업부서와의 협업 가능성

○ 국내 미술 아카이브 형성 초창기 시절 선두주자로 타기관의 모델로 역할하며 한국현대미술을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 자료 보유

나. 내부약점(Weakness)

○ 인사미술공간에서 아르코미술관으로의 아카이브 업무이관에 따른 운영의 정체성 정립 미완 상태

○ 아르코아카이브의 비전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해 아르코미술관과 연계한 아카이브 활용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내부 조직 개편, 예산 부족 등 기관 차원의 내부 문제로 인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

○ 이에 따른 전문 인력 공백과 전담인력 부족으로 전문화 축적의 한계성, 사업의 점진적 축소 및 중단 등의 한계점 보유

○ 아카이브 소장자료(작가 포트폴리오/ 미디어컬렉션)의 큐레이션 및 사업 추진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소장 자료의 양적, 질적 부족 문제
○ 배급 유통을 통한 수익과 공공성추구의 균형점의 어려움
○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 손실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미흡
○ 작가와의 계약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계약서 유실 혹은 계약기간 만료, 아카이브 자료 활용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의 계약관련 법률적 제반 사항 미비에 대한 문제
○ 아카이브 소장 자료의 열람 환경 문제(장소의 협소함, 영상자료 열람 공간의 부재, 작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비활성화, 자료 열람 및 이용에 대한 서비스 부족 문제 등)
○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아르코아카이브 소장자료의 특성상 다수를 위한 공공기관 내 운영 시설로서의 기능수행 한계점을 보유
○ 전문가 대상에서도 예술인들의 아르코아카이브 이용률 감소를 보이며 이전의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위상의 하락을 나타냄

다. 외부기회(Opportunity)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유관기관의 신뢰도로 인해 형성되는 교류 기회와 관심도 보유
○ 새로운 매체와 융복합예술에 대한 예술계 안팎의 관심에 따른 활용 기회 확대
○ 다양한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질적 연구와 미디어아트에 대한 학제 간 연구 및 비평 활성화 필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 예술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이해도 확대
○ 아르코아카이브에 대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외부 기대
○ 배급 및 작가지원 서비스, 저작권 등 교육프로그램 니즈 확산
○ 타 기관 아카이브 영역과 협조 및 차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쟁과 협조의 공존의 가능성
○ 예술 아카이브 관련한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니즈 확산
○ 온라인 플랫폼 공유 및 아카이브 자료의 디지털화 확산, 싱글채널 비디오 영상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긍정적 의견과 여론 형성

라. 외부위협(Threat)

○ 영상 매체의 싱글채널(Single Channel) 방식의 퇴조와 다채널화 및 다양한 매체, 기술의 결합
○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매체의 패러다임 이동
○ 다양하고 빠른 대중의 니즈 변화 사이클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한계성
○ 작가 포트폴리오 주된 수집 자료(작가작품설명, 도록, 리플릿 등)의 디지털화로 인해 작가 홈페이지 출력본을 보유하는 경우 다수 발생, 실물자료의 기능 약화
○ 저작권 문제로 인한 디지털 서비스 범위의 제약
○ 외부 아카이브 플랫폼의 양적 질적 약진(ex: 주요 대학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전자도서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영상 자료원, 지자체 공공아카이브에서 고화질 작품 열람 서비스, 미디어열람실 및 최신 장비 보유 등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

2. SWOT MIX 전략

○ SWOT 분석결과는 추후 전략 과제 도출에 있어 핵심자료로 사용되지만, 한편 제한된 여건 안에서 수집 분석된 정보이기 때문에 각 부분에 대한 SWOT MIX 전략 도출을 선행함으로써 추후 종합 개선안 도출 및 종합적인 전략목표 추진 방향성의 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함

가. SO전략

○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앞세운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자료의 공유, 협력의 기회 확대
○ 학제간 연구 및 비평 주도로 아티스트 무빙이미지 생태계 육성 및 평론 문화 확산
○ 싱글채널 비디오 영상 및 관련 데이터 디지털 공유 서비스 시행
○ 각종 매뉴얼과 정보제공 등 작가지원 서비스 강화
○ 작가별 기관별 정보 공유를 통한 기관 비전 가시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 플랫폼 개설
○ 공적 영역 안에서의 간접 유통, 배급 지원 추진
○ 기관 키워드 설정 및 홍보를 통한 인지도 강화

나. WO전략

○ 소장 중심에서 상영, 웹 DB 구축(온라인 DB 플랫폼)
○ 비영리·비독점 배급 등의 활용 중심으로 정책 전환
○ 영상 예술(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미디어아트 등)에 대한 학제 간 연구 및 담론 형성의 역할 선점
○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아르코아카이브에 대한 일반인과 예술인들의 인식제고와 위상 확립
○ 아카이브 운영 및 조직 보강을 통한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열람 및 재방문율 제고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열람 공간, 운영시간, 서비스 방법 등을 개선
○ 작가와의 저작권, 소유권, 판매권 등 계약의 추가 갱신
○ 디지털 매체전환과 보급 활용 범위 확산에 따른 법률적 보완
○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 정기적인 운영 만족도 조사(설문)를 진행하며 아르코아카이브 운영방식에 대한 이용객의 피드백을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공청회 등을 통한 아카이브 운영 방향 및 역할의 공론화
○ 10년 주기의 장기적 육성 관점의 아카이빙 예산계획 전략 수립
○ 전문 전담인력의 조직구성과 장기비전 수립전략
  - 최소 필수 인력의 아키비스트 확보
  - 전담 책임자 배치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한 조직구성
  - 경험 축적을 위한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 제작 생태계 지원
  - 제작 생태계 구축 전략 수립
  - 소규모 프로덕션 지원

- 지원기관의 느슨한 개입으로 민간의 창조적 생태계 조성
- 작가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저작권, 초상권, 크래딧 표기법, 촬영의 법적 권한 등)

다. ST전략

○ 다채널 및 다양한 매체 중심의 상황 속에서 싱글채널 비디오 컬렉션에 대한 정체성 활용 전략 모색
○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도모 및 협력으로 서비스 양과 질의 보완
○ 다양하고 빠른 대중의 니즈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소통과 홍보 강화
○ 디지털화에 따른 미술관 출판물의 전자책(e-Book) 확산 경향에 적극 대응
○ 적극적 예산 확보로 사양 높은 장비 도입과 환경개선으로 서비스 경쟁력 제고
○ 보존과 유통을 고려한 컬렉션 전략 수립으로 작가 신뢰 구축
○ 비영리 학술 목적의 연구자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
○ 학생 및 연구자를 위한 아카이브 개방

라. WT전략

○ 싱글채널 비디오에서 다채널까지 다양한 영상 작품들의 경향에 따라 신구 매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체성 및 특화 방안 마련
○ 이용율 저조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탐색으로 대응전략 마련
○ 지자체 공공아카이브 등의 아카이브 서비스 약진에 대비한 근원적인 경쟁전략 수립
○ 국내외 타 기관 대비 예산과 운영의 실태 파악을 통한 벤치마킹과 대응전략
○ 작가 포트폴리오, 미디어컬렉션의 자료 서비스 양과 질, 열람 공간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수립
○ 행정 리더십 부재 등으로 서비스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적인 측면의 대응전략 마련
○ 작품 수집의 전략 수립
  - 메타데이터 설계를 통한 운영 시스템 구축
  - 카탈로깅의 범주 재수립
  - 자료들 간의 관계성 연결을 고려한 컬렉션
  - 데이터 손실에 관한 대비한 리스크 관리
  - 작품 수집의 방향성 (과거 작품 vs. 동시대 작품)

제4절. 개선안 및 전략과제 도출

1. 개선안 도출

○ 자문위원회운영, 설문조사, SWOT분석을 기반으로 개선안 및 전략과제를 도출함

○ 자문위원회는 기관의 운영자/공급자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았고, 설문조사는 사용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각을 정리하였음

[표 4-5] 현재/이슈 및 개선안/제안 도출 구조

AS-IS (현재/이슈)	TO-BE (개선안/ 제안)	구분
조직 전문성 및 연속성 부족	• 아카이브 전담 전문 인력의 필요성 • 필수 최소 인력 확보의 필요성(아키비스트/배급 및 사업 기획 담당인력 각 1인 이상) • 아키비스트 업무 특성을 고려한 업무 연속성 유지를 조직관리	단기
예산 부족 및 불안정한 예산배분 구조로 인한 업무 추진의 어려움	• 아카이브 사업에 대한 독립적이고, 지속적 예산 확보 계획 수립 • 장기적 관점의 컬렉션과 프로젝트 기획	중장기
아르코아카이브에 대한 최근 사용 경험	• 연도별 기관 키워드 설정 기획을 통한 적극적 홍보 • 어젠다 설정을 통한 홍보 및 활용계획 수립 • 보유 가치에 비해 대외적 홍보 미진에 대한 대응 필요(미술계 내부/일반대중 고려대상 설정 필요)	단기
소장 아카이브에 대한 큐레이션 부재	• 아카이브의 활용 방식에 대한 전향적이고 다양한 방법론 도출 및 시도 • 자료들 간의 관계성 연결을 고려한 활용 출판 기획 • 학생 및 연구자를 위한 아카이브 개방 및 활용	중기
배급 유통의 실질적 플랫폼 역할 미흡	• 배급 유통의 실질적 필요성 공론화 및 유인책 연구 검토 • 플랫폼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서 배급, 유통 모델 • 민간 영역에서의 배급 활동 생태계 조성 • 공공성을 갖춘 간접배급의 방식을 통한 생태계 확장 • 비영리 학술 목적의 연구자 육성차원의 배급	중장기
미디어 아카이브 수집의 세부 전략 부족	• 메타데이터 설계 • 데이터 손실에 관한 대비한 리스크 관리 • 보존과 유통을 고려한 컬렉션/ 키워드 컬렉션 등 특성화 필요	장기
아카이브 자료의 양과 질의 서비스 개선 필요	• 자료의 양과 질의 보완 필요 • 열람 공간, 운영시간, 불편사항 개선을 통한 재방문율 제고 • 특정 작가 편중 현상 개선 • 과거작품과 동시대 작품 등 시대편중 개선 • 매체의 디지털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e-Book, e도록화 등)	중단기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디지털 공유 등 추후 활용의 다양화를 위한 저작권 협의 및 적극적 대응 (비영리 목적의 대여권, 독점적 이용 허락권, 비독점적 이용 허락권, 공동저작권, 소유권, 전시권, 배포권, 저작권 등)	중단기
전시지원이 아닌 영상 작품 자체에 대한 제작지원의 필요	• 작가 작품의 적극적 제작지원을 위해 수집에서부터 활용까지 커미션을 병행하며 지원하는 방식 재검토	장기
아카이브 육성을 위한 생태계 지원 필요	• 촬영 윤리, 저작권 등 작가 교육프로그램 • 아카이브 관련한 연구 워크숍 진행 등 네트워크 형성의 이벤트 마련 •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는 공간 대여형 커뮤니티 • 공청회 등을 통한 운영 방향 및 역할의 공론화로 지원 방향성 피드백	중장기
대외 교류 협력 필요	• 작가별 기관별 정보 공유를 통한 기관 비전의 가시화 • 간접적인 형태의 배급, 지원을 위한 민간기관과의 협력구조 모색 •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앞세운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의 공유, 합작의 기회 확대 • 각종 매뉴얼과 정보제공 등 서비스 강화	장기
대외 경쟁력 약화	• 지자체 공공아카이브 등의 아카이브 서비스 약진에 대비한 근원적인 경쟁전략 수립 • 국내외 타 기관 대비 예산과 운영의 실태 파악을 통한 벤치마킹과 대응전략 • 내부적 요인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시스템적 보완책 마련	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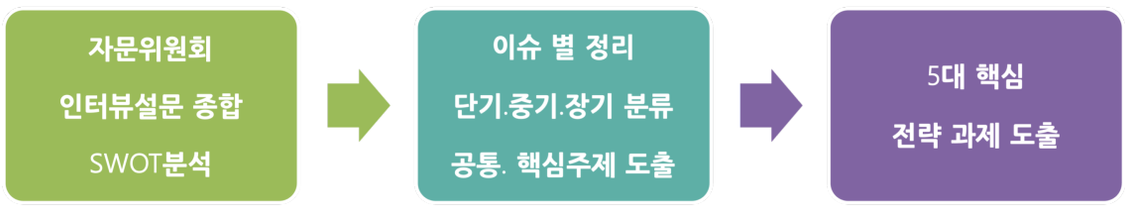
2. 전략과제 도출

가. 전략과제 도출

○ 각 이슈 별 단기, 중기, 단기 추진기간 별로 공통요소들을 구분하여 키워드를 재구성함

○ 공통요소들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어들을 도출하고 이를 아르코아카이브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전략의 핵심 주제로 선정함

[그림 4-13] 전략과제 도출 구조도



나. 5대 추진전략의 구조 및 주요 내용

1) 전략과제 구조

○ 5대 추진전략, 17개 전략과제, 22개의 실행과제로 구성함

○ 각 실행과제의 시급성, 실현 소요 기간, 중요도, 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함(5장)

2) 주요내용

○ 5대 추진전략 과제로 (1)아르코아카이브 비전 제시, (2)사업추진 기반확보, (3)커뮤니티 구축, (4)창작 생태계 육성, (5)비전 가시화 및 전문성 강화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아르코아카이브 중장기 발전을 위한 지향점으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17개 전략 과제를 세움

[표 4-6] 추진전략에 따른 과제 도출 구조

5대 추진 전략 목표	17개 전략과제
아르코아카이브 비전 제시	비전 키워드
	기관 아카이브 구축 체계화
	연구기능 확대
	고유 브랜드 구축
	인지도 강화

사업추진 기반확보	아카이브 재정비
	조직 전문성 강화
	안정적 예산 계획수립
커뮤니티 구축	기관 협력 체계 구축
	작가 커뮤니티 구축
	연구자 커뮤니티 구축
창작 생태계 육성	제작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례화 추진
비전 가시화 및 전문성 강화	아카이브 프로그램 상설화 추진
	소장작가 붐업 추진
	아카이브 자료 온라인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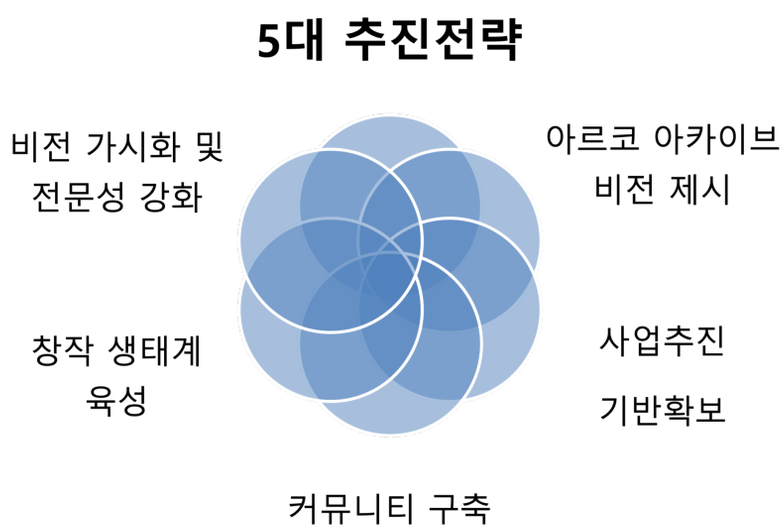
제5장

중장기 발전방안

제1절 전략목표 및 과제 추진 방안

1. 전략목표 및 과제 제시

[그림 5-1] 5대 추진전략



[표 5-1] 추진전략에 따른 목표 및 과제 도출 구조

5대 추진 전략 목표	17개 전략과제	22개 실행과제
아르코아카이브 비전 제시	비전 키워드	핵심 키워드 및 기관사 기반의 공공성 도출
	기관 아카이브 구축 체계화	기관 내 전시/프로그램 아카이브실 이관 매뉴얼
	연구기능 확대	연구 오픈콜 개설을 위한 단계별 연구안 설계
	고유 브랜드 구축	공청회 등을 통한 운영 방향 및 역할의 공론화
	인지도 강화	아르코아카이브 키워드 홍보
사업추진 기반확보	아카이브 재정비	미디어컬렉션 및 아카이브 자료 실태파악
		아카이브 자료 기록 보완
		필요 라이선스 항목 기재한 계약서 도출
	조직 전문성 강화	열람실 운영 및 아카이브 수집, 활용 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전담 배치 필요(아키비스트/배급 및 사업기획 담당인력 각 1인 이상)
	안정적 예산 계획수립	중장기적 관점의 아카이브 예산 확보를 통한 상설 활용 및 수집 계획 수립

커뮤니티 구축	기관 협력 체계 구축	AMI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 심포지엄 추진
	작가 커뮤니티 구축	아르코아카이브 컬렉션 작가 홈커밍 프로그램 추진(미디어 컬렉션, 작가 포트폴리오)
	연구자 커뮤니티 구축	아르코 + 오픈콜 선정 연구자를 통한 커뮤니티 구축 및 아카이브 자료 해석과 수집 보완 진행에 대한 프로그램화
창작 생태계 육성	제작 지원	작품 제작에 따른 제반 사항 지원 프로그램 마련(제작비, 기술지원, 전문가 자문, 공간제공, 배급지원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촬영, 윤리, 저작권 취득, 범위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례화 추진	AMI 제작, 기획, 배급의 네트워킹을 위한 교류 가능한 워크숍 상설화
비전 가시화 및 전문성 강화	아카이브 프로그램 상설화 추진	상설 교류 상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르코미디어 컬렉션 홍보 및 전문성 강화를 도모
		미디어컬렉션 보유 작가의 주요 작품 열람권의 점진적 확보 및 관내 열람 활성화 추진
	소장작가 붐업 추진	컬렉션 작가 전작 스크리닝 및 포트폴리오 자료 활용을 통한 주목도 제고 및 비평의 장 마련
	아카이브 자료 온라인 공유	작가 포트폴리오 보유 자료 검색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미디어컬렉션 작업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웹) 개설
		한국 싱글채널 비디오 작품 및 작가 정보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DB출범

가. 공공성을 보유한 시각예술 플랫폼 - 아르코아카이브 비전 제시

■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의 비전을 명확히 확립하고 대내외에 확산하여 앞으로의 운영 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집중할 수 있는 아르코아카이브 비전 구축 전략과제로서 **‘비전 설정 및 제시’, ‘기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설계’, ‘연구 기능 확대’, ‘고유 브랜드 구축’, ‘인지도 강화’**를 제시하고자 함

■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아르코미술관은 ‘문화예술현장의 파트너’라는 위원회의 비전 아래 사회적 전환기의 예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각예술의 가치 발굴과 공유를 위해 연구, 창작, 전시, 교류 활동이 선순환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공공성은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보유한 시각예술 플랫폼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함

■ 특히 ‘미술관 활용성 및 사회적 역할 확대’라는 아르코미술관 운영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아르코아카이브의 비전을 설정, 제시하고 더불어 내부적으로 기관 아카이브를 구축, 이를 통한 향유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브랜드를 공고히 하고 인지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확보

■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아카이브 재정비', '조직 전문성 강화', '안정적 예산 계획 수립'**이라는 전략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조직 운영 차원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재정비를 실행함으로써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의 소장자료 활용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자료를 파악하고 보완하는 재정비 과정은 이후 아르코미술관이 아카이브 소장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그리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는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의 방향성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음

다. 기관 비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구축

■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비전을 보다 확산시키고 다양한 이용자 및 외부 주체들과의 소통과 협력, 교류를 강화하여 열린 미술관으로서 참여형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기관의 비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구축을 목표로 두며 아르코미술관이 지향하는 '유용, 포용'의 가치와 '협업, 공유'의 방안으로 **'기관 협력 체계 구축', '작가 커뮤니티 구축', '연구자 커뮤니티 구축'**이라는 3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함

■ 기관 비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은 '학제 간 협업을 통한 미술관 담론생성'과 '공유와 소통을 위한 예술 공동체 형성'이라는 아르코미술관 운영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시각예술 아카이브 유관기관과의 협력구조를 만들고, 작가와 연구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선사함으로써 미술관의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음

라. 창작 생태계 육성을 통한 시각예술 플랫폼 위상 강화

■ 공공성을 보유한 미술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각예술 창작자의 안정적 창작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는 창작 생태계 육성을 통한 시각예술 플랫폼 위상 강화를 전략 목표로 설정함

■ 시각예술 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제작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례화 추진'을 전략과제로 제시하고자 함

■ 예술 창작부터 향유까지의 지원을 도모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 아래 시각예술 창작 제반 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 인프라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각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아르코미술관의 역할과 위치를 보다 공고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아카이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비전 가시화 및 전문성 강화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각예술 플랫폼’이라는 아르코미술관의 중장기 리브랜딩 추진방향에 의거하여 아카이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앞서 목표로 설정한 아르코아카이브 비전을 가시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설정함

■ 이를 위한 전략과제로 **‘아카이브 프로그램 상설화 추진’, ‘소장작가 붐업 추진’, ‘아카이브 자료 온라인 공유’**를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활용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아래 아카이브 프로그램의 상설화를 도모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미술관 내부 기관 및 전시,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2. 전략목표에 따른 과제 추진 방안

○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세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5대 전략 목표 하에 17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각 단계별 22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제안함

[표 5-2] 연도별 전략목표 및 과제 실행 구조도

전략목표	전략과제	실행과제	추진연도				
			단기		중기		장기
			22‘	23‘	24‘	25‘	26‘~
공공성을 보유한 시각예술 플랫폼-아르코아카이브 비전 제시	비전 설정 및 제시	핵심 키워드 및 기관사 기반의 공공성 도출	●				
	기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설계	기관 내 전시/프로그램에 대한 아카이브 이관 매뉴얼 수립	●				
	연구기능 확대	연구 오픈콜 개설을 위한 단계별 연구안 설계	●	◐			
	고유 브랜드 구축	공청회 등을 통한 운영 방향 및 역할의 공론화	●	◐			
	인지도 강화	아르코아카이브 키워드 홍보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확보	아카이브 재정비	미디어컬렉션 및 아카이브 자료 실태 파악	●	●			
		아카이브 자료 기록 보완		●	●	●	●
		필요 라이선스 항목 기재한 계약서 도출(법적자문 병행)	●	◐			
	조직 전문성 강화	열람실 운영 및 아카이브 수집, 활용 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전담 배치 확보(아키비스트/배급 및 사업 기획 담당인력 각 1인 이상)	●				
	안정적 예산 계획 수립	중장기적 관점의 아카이브 예산 확보를 통한 상설 활용 및 수집 계획 수립	●	●	●	●	●
기관 비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구축	기관 협력 체계 구축	AMI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 심포지엄 추진			●		
	작가 커뮤니티 구축	아르코아카이브 컬렉션 작가 홈커밍 프로그램 추진(미디어컬렉션, 작가 포트폴리오)			●		
	연구자 커뮤니티 구축	아르코 + 오픈콜 선정 연구자를 통한 커뮤니티 구축 및 아카이브 자료 해석과 수집 보완 진행 프로그램화			●		
창작 생태계 육성을 통한 시각예술 플랫폼 위상 강화	제작 지원	작품 제작에 따른 제반 사항 지원 프로그램 마련(제작비, 기술지원, 전문가 자문, 공간제공, 배급지원 등)					●
	교육 프로그램 지원	촬영, 윤리, 저작권 취득, 범위 등			●	●	●

		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례화 추진	AMI 제작, 기획, 배급의 실질적 정보를 나누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상설화			●	●	●
아카이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비전 가시화 및 전문성 강화	아카이브 프로그램 상설화 및 열람실 운영 활성화 추진	상설 교류 상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르코미디어 컬렉션 홍보 및 전문성 강화		○	●	●	●
		미디어컬렉션 보유 작가의 주요 작품 열람권의 점진적 확보 및 관내 열람 활성화 추진			●	●	●
	소장 작가 붐업 추진	컬렉션 작가 전작 스크리닝과 포트폴리오 자료 활용을 통한 주목도 제고 및 비평의 장을 마련	○	○	●	●	●
	아카이브 자료 온라인 공유	작가 포트폴리오 보유 자료 검색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			
		미디어컬렉션 작업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웹) 개설		●	●		
		한국 싱글채널 비디오 작품 및 작가 정보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DB 출범				●	●

가. 공공성을 보유한 시각예술 플랫폼 - 아르코아카이브 비전 제시

1) 비전설정 및 제시

■ 핵심 키워드 및 기관사 기반의 공공성 도출

- 예술 육성 기금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기회를 공유해 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산하 미술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공공성의 개념을 기관의 비전으로 확장
- 이른 시기부터 작가별 포트폴리오 구축 및 싱글채널 비디오 배급, 컬렉션 사업 운영을 통해 시각예술기관이 아카이브를 보유하는 선례를 가진 기관으로서 미래적인 아카이브 활용 시스템을 제안하고, 가치를 생산하는 비전 제시
- 인사미술공간의 자료가 이관되어 아르코미디어로 통합된 것 또한 기관사의 측면에서 특화하여 별도 컬렉션을 지정하고 해당 서사로 아카이브를 소개

2) 기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설계

■ 기관 내 전시/프로그램에 대한 아카이브 이관 매뉴얼 수립

- 아르코미술관 전시 관련 자료를 아카이브로 이관하는 과정에서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자료 구축 및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정확한 매뉴얼 수립이 필요함[55)]

55) 아르코미술관 및 인사미술공간 내 전시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아카이브실로 이관한다는 인식을 각 내부 담당자들이 지니고 있으나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 제대로 이관되지 않거나 각 담당자와 전시에 따라 자료의

- 전시 및 아카이브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운영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안정적인 아카이브 자료 구축을 지속하기 위해 매뉴얼 수립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내부 전시/프로그램 아카이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구축과 더불어 보관, 관리 체계를 함께 수립해나간다면 아르코미술관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산으로도 활용이 가능함
- 도록, 리플릿, 포스터 등 전시 제작에 있어 기본적인 자료 뿐 아니라 큐레이터가 전시를 준비하면서 생산되는 자료를 함께 기록, 공유할 수 있다면 추후 기관사 아카이브 구축 및 연구와도 연계될 수 있음

[참고 작성 : 매뉴얼 예시안]

1. 전시 시작일로부터 전시를 마친 1개월 후까지 전시 관련 자료를 정리, 공유, 이관한다.
2. 전시 관련 자료란 전시 제작의 과정에서 발행한 모든 문서, 생산 자료를 의미한다.
3. 전시 관련 자료는 내부 공유용과 외부 공개용으로 구분하며, 물질 자료 및 비물질자료를 포함한다.
   3-1. 외부 공개용 자료 : 대중 일반에 지식 정보의 차원으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
   ex) 전시포스터, 도록, 리플릿, 초대장(이상 물질자료), 전시포스터 시안, 웹 포스터, 현수막 시안, 도록(e-book), 전시장 설치 전경 및 작품 개별 사진, 월 텍스트, 작품별 설명, 참여작가 프로필(이상 비물질 자료)
   3-2. 내부 공유용 자료 : 업무의 효율을 위해 기관 내 인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자료 및 추후 기관사 아카이브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
   ex) 전시 참여 작가 작업실 방문 사진, 인터뷰 및 회의록, 그래픽 디자인 작업 시안, 전시장 설치 구성안(도면) 등
   3-3. 물질 자료와 비물질 자료는 인쇄물, 비치물 등의 실물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물질 자료는 물질 자료와 관련한 모든 파일 형태의 자료를 의미한다 .
4. 담당 큐레이터는 내부 공유용 자료와 외부 공개용 자료를 구분하여, 외부 공개용 자료를 아르코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물질 자료를 아카이브실로 이관한다. 내부 공유용 비물질 자료의 경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공유한다.
   4-1. 전시 인쇄물의 경우 단행본은 5권 이상, 리플릿은 10매 이상을 아카이브실로 이관한다.
5. 아카이브실에서는 기관사 자료를 방문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설 비치하여 관리한다.

■ 매뉴얼 수립 이후 아르코미술관의 기록, 보관 및 활용으로서 연계 방안

- 기획전의 경우 내 외부 큐레이터의 자료 수집 단계는 물론, 전시 제작 및 성과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기록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구축함. 기존 내부 자료로만 활용 되어오던 것을 넘어, 외부에 교육 자료로 확장시켜 동시대 미술에서의 큐레이터십 강화
- 개인전의 경우 해당 작가의 기존 연구 자료(도록, 리플릿, 평론, 논문 등)와 아울러 출품작, 특히 신작의 경우 메타데이터 등 상세 내용 기재 후 기록 보관하여 향후 아르코아카이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구축

3) 연구기능 확대

■ 연구 오픈콜 개설을 위한 단계별 연구 안 설계

- 아르코아카이브 자료를 외부 연구자의 시선을 통해 들여다봄으로써 동시대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해석과 다양한 입장에서의 비평적 관점을 보충하여 해석을 다각화하기 위한 연구 오픈콜을 개설

양적,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시 기간 이후 1개월 이내 전시와 관련한 자료를 아카이브실로 이관하는 기관 내 매뉴얼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의 비전 키워드와 아르코아카이브 보유 자료를 분류하여 하위 컬렉션을 구성할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 오픈콜의 단계적 설계 및 추진
- 먼저 싱글채널 비디오-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창작의 지형을 10년 단위로 일괄하여 비평적 해제를 생산하고, 후속 연구로 동시대 창작의 지형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적, 매체적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르코아카이브의 컬렉션을 입체화하고 추가 수집을 위한 어젠다를 도출할 수 있음

4) 고유 브랜드 구축

■ 공청회 등을 통한 운영 방향 및 역할의 공론화

- 아르코가 핵심적으로 도출한 과제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아티스트무빙이미지 관련 현안을 선도하는 기관이라는 인상을 구축하여 다음 단계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 아르코아카이브의 탄생부터 앞으로의 계획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른 시기부터 시각예술 전반 작가들의 1차 자료와 싱글채널 비디오의 상영과 배급의 가치에 주목하여 자료와 컬렉션을 구축하고 전시, 배급, 출판 사업을 유지해 온 기관으로서 구축해 온 신뢰도를 기반으로 위상을 제고하고 미래적인 아카이브 활용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시각예술 아카이브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

5) 인지도 강화

■ 아르코아카이브 키워드 홍보

- 아르코아카이브 관련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르코가 보유한 다양한 채널에 홍보. 모두의 기억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아르코아카이브를 현재로 소환
- 전시 부대 프로그램의 SNS 라이브 중계, 유튜브 영상 업로드 시 아르코아카이브 키워드를 병행 표기하여 아르코아카이브가 아르코미술관 기획 사업과 연계되어 있음을 가시화

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확보

1) 아카이브 재정비

■ 미디어컬렉션 및 아카이브 자료 실태파악

- 미디어 자료의 재생 가능 여부, 실물 보유 상황에 관한 실태 파악

■ 아카이브 자료 기록 보완

- 미디어컬렉션 리스트 작업의 기록 보완을 위한 메타데이터 설정 및 기록 보완
  ex) 타이틀, 매체, 장르, 제작년도, 길이, 풀 크레딧(스태프), 추가 정보(레퍼런스, 삽입곡 등), 시놉시스, 수상 이력 및 소장처, 주제어(해시태그)
- 작가 포트폴리오 보유 자료 목록화
  ex) 자료 구성(포스터, 리플렛, 도록), 단행본의 경우 서지정보 기재 및 공유

■ 필요 라이선스 항목 기재한 계약서 도출(법적자문 병행)

- 사업 방향에 따라 검토해야할 권리 사항을 기반으로 차기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서 도출 및 이에 따른 법률 자문과 검토
- 아카이브 활용, 비영리 열람, 간접 배급 등 다양한 방안으로 차기 사업 방향성을 검토하고 관련하여 기관이 획득해야 할 권리를 명시한 계약서를 도출한 후 법률 자문을 진행하여 사업 추진 효율화
- 전시의 제작과 기록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생산하고 획득한 전시 홍보물 및 기록물에 대한 영구적 활용 권한 확보

2) 조직 전문성 강화

■ 열람실 운영 및 아카이브 수집, 활용 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전담 배치 필요 (아키비스트/배급 및 사업 기획 담당인력 각 1인 이상)

- 자문을 통해 각 기관 및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전문가가 아카이브 운영의 난제로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음
- 특히 테크니션의 부재는 미디어 관련 작품을 수집, 활용하는 기관의 중요한 문제로 꼽을 수 있음
- 최소 인원으로 소장 자료를 관리하는 아키비스트 1인과 활용 안에 대해 기획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 역할의 1인은 필수적인 인원임

[자문 심층 인터뷰 발췌 : '조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카이브 전담 인력 필요 및 업무 연속성 유지 필요]
〈아키비스트 업무 특성을 고려한 연속성 유지 필요성 〉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담당자나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사라지면 연결해서 진행할 수 없는데 아카이브의 경우 그런 연속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아키비스트
〈사례 :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담당 인력 구조〉 ○ 과천 미술 연구센터 : 소속 아키비스트 총 7인 • 열람 서비스 담당 아키비스트, 뉴미디어 아키비스트, 건축분야 아키비스트, 전시, 조사, 연구, 교육, 수집 등과 같은 미술관 기능에 따라 기록을 관리하는 미술관 기록 아키비스트, 비평가나 작가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같은 미술 일반 분야 담당 아키비스트 3인 ○ 서울관 디지털 정보실 : 아티스트 파일, 싱글채널 비디오, 미술관 기록 담당 3인 아키비스트 소속 "큐레이터가 전시를 할 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을 진행하듯 아카이브 역시 팀 단위의 인원이 움직여야 하지요. 사실 두 명 이상의 아키비스트가 기관에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와 함께 움직이는 인력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 때문에 항상 한 명의 인원은 전시 업무와 밀접하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획자가 양질의 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키비스트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기획자와 함께 전시를 위해서 움직일 경우, 확실히 아키비스트가 평상시에 해오던 업무를 지속하기는 어려워요. 적어도 두 명의 인원이 있어야 남은 인력이 아카이브 업무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이런 아카이브 연구를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산과 인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기관이든 이런 조건과 토대가 아카이브 업무에 선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기관 아키비스트

3) 안정적 예산 계획 수립

■ 중장기적 관점의 아카이브 예산 확보를 통한 상설 활용 및 수집 계획 수립

- 자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 중 안정적 사업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수행되어야할 전제 조건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문제를 제기함

- 거대한 규모의 예산이 일시적 수립이 아닌 아카이브 자료를 유지,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함

다. 기관 비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구축

1) 기관 협력 체계 구축

■ AMI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 심포지엄 추진

- 배급, 상영, 소장, 활용에 있어 동일한 고민에 처한 기관들이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현안을 공유하는 공동 심포지엄을 추진
- 동시대 미디어의 환경에 적합한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배급과 열람 시스템의 부재, 스크리닝 피 기준 부재, 표준 메타데이터의 부재, 작가 및 작품 정보의 통합 DB의 부재, 등 현 생태계 주요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공동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기록 자료 발행
- 상생 프로그램 운영 : 오랜 시간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의 배급, 제작, 상영의 역할을 담당해 온 민간 단체를 초대하여 특별상영회를 개최하고 운영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등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주는 스크리닝과 토크의 결합 프로그램

2) 작가 커뮤니티 구축

- 아르코아카이브 컬렉션 작가 '홈커밍 프로그램' 추진(미디어컬렉션, 작가 포트폴리오)
  계약이 이루어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초창기 작가들부터 최근 포트폴리오 유입 작가까지 한 자리에 초청하고 기관의 비전을 바탕으로 아르코의 비전에 공감하는 작가 커뮤니티를 조성
- 홈커밍 프로그램에서 조성된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추후 아카이브 활용을 위한 계약 갱신 원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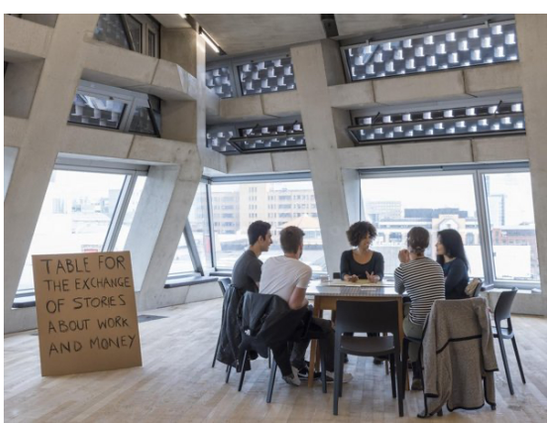
3) 연구자 커뮤니티 구축

■ 아르코 + 오픈콜 선정 연구자를 통한 커뮤니티 구축 및 아카이브 자료 해석과 수집 보완 진행에 대한 프로그램화

- 외부의 커뮤니티를 초청하고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하여 현재적이고 다각적인 해석적 관점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미술관의 아카이브로 유입

[참고 사례 : 테이트 익스체인지(Tate Exchange)]

- 사회 시스템 속 예술의 역할을 질문하는 것을 목표로 당대 이슈를 공개 토론하기 위해 실제적, 가상적 차원의 공동의 공간(common space)을 만들고 누구나 참여해 미술관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개방(Openness)', '관대(Generosty)', '도전과 신념(Risk and Trust)'를 기본 가치로 설정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년도 별 키워드를 별도 선정함.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키워드는 '교류(Exchange)', '제작(Production), '이동(Movement)', '힘(Power)', '사랑(Love)'이었음
- 해마다 리드 작가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함으로써 창작자의 예술 창작 방법론을 교류의 방법으로 풀어내며 이는 아르코의 비전을 외부 커뮤니티를 통해 가시화하는 방법으로 참고점이 있음
- 테이트 익스체인지는 테이트 모던과 테이트 리버풀에 위치한 공간 이름을 프로그램명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며 아르코의 경우 인사미술공간과 스페이스 필룩스의 활용에 있어 참고할 만함



[그림 5-2] 테이트 익스체인지 활동 장면
(테이트 홈페이지 발췌: www.tate.org.uk/tate-exchange)

라. 창작 생태계 육성을 통한 시각예술 플랫폼 위상 강화

1) 제작 지원

■ 작품 제작에 따른 제반 사항 지원 프로그램 마련 (제작비, 기술지원, 전문가 자문, 공간 제공, 배급지원 등)

- 동시대 아카이브의 화두 중 하나인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를 육성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자, 해외 사례 연구로 분석 결과 미디어 분야 기관이 설정하는 마스터플랜의 최종 단계로서, 작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프로덕션으로의 역할 모색
- 기관의 비전을 기반으로 주제를 도출하여 작품을 커미션하는 방식, 특정 매체적 실험을 중심으로 제작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기관의 비전을 작품 제작을 통해 가시화할 수 있으며, 제작지원 작

품은 아르코아카이브의 기관 비전 컬렉션으로 별도 운영이 가능함

- 아르코아카이브의 비전과 동시대 미술계의 니즈가 교차되는 지점으로서, 기관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계기
- 5개년 계획 수립에 있어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실행과제에 있어 가장 장기적인 시각을 요하는 계획으로 설정할 수 있음

2)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촬영, 윤리, 저작권 취득, 범위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카메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이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촬영윤리, 촬영한 영상에 대한 권리 취득 방법 등에 관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진행

[자문 심층 인터뷰 발췌 : '기획자, 창작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논의]
〈기획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어떤 면에서는 작가 지원보다 무빙 이미지 자체를 연구할 수 있는 큐레이터에게 수혜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개인들이 생태계를 만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큐레이터의 교육이라는 게 책상에서 세미나하고 워크숍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큐레이터를 위한 전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주목받은 영상 작업을 모아서 스크리닝 해주는 것도 연구자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전시 관객과는 그 대상을 달리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연구자들이 해외의 영상 작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 작가
〈창작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영상작업은 파운드 푸티지도 그렇지만 렌즈 기반 작업을 할 때는 뭔가를 찍어야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데이터화된다는 자각과 그 권리 취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대한 문제예요. 신진작가한테 이런 교육을 해 주면 좋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카피라이트나 초상권, 영상을 퍼블릭한 공간에서 찍는 것에 대해서 영화 쪽에서는 이제 인식을 하는데 미술 쪽에서는 아직 개념이 부족해요. 어떻게 이 법적 권한을 갖고 촬영 할 수 있는지, 소스를 쓸 수 있는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촬영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요." - 작가

3)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례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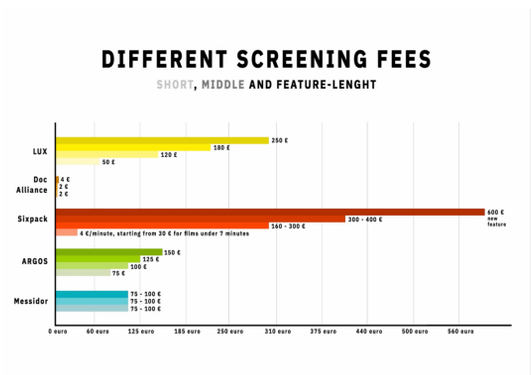
■ AMI 제작, 기획, 배급의 실질적 정보를 나누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상설화

- 계획 중인 영상 작업을 위해 기금을 찾는 창작자부터 다양한 영상 작업을 전시하기를 원하는 기획자, 배급에 관심 있는 기관 모두가 모여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는 정기적 네트워킹 프로그램 상설화
- 피칭 프로그램 : 행위자별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정보 교류를 기획할 수 있음. 창작자가 구상하고 있는 작품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고 제작 기금, 프로듀서나 테크니션 등의 스태프, 전시 등의 필요한 자원을 교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는 피칭 프로그램
- 정보 교류 프로그램 : 전시, 영화제, 상영회, 각종 이벤트, 온라인 스크리닝 등 다양한 목적에서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상영의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초청하여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스크리닝 피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 신진 작가 부스트업 프로그램 :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분야 활동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진입한 신진 작가, 프로듀서, 큐레이터에게 영화제 출품, 배급사 컨택, 기금 마련, 장비 대여 등의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생태계 입문을 돕기 위해 유관 기관 종사자를 초빙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고 사례 : 온앤포 배급과 제작(On&Fo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분야 육성과 제작, 유통, 커미션, 큐레이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아티스트, 프로듀서, 배급사, 큐레이터, 조직, 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제작과 배급에 관한 지식을 교환하는 공개 워크숍, 사례 연구 세미나, 심포지엄을 운영함
- 2019년에 진행된 <디스트리뷰션 포 모델즈>는 데이터스왑, 디스트리뷰션 포 더미, 워크세션의 3 섹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데이터스왑'의 경우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의 배급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서로의 인력 현황, 배급 현황과 수익 등의 실제적인 정보를 서로 공개하고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였음



[그림 5-3] 온앤포 배급과 제작에서 공유된 유럽 AMI 배급사별 상영료 정보

마. 아카이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비전 가시화 및 전문성 강화

1) 아카이브 프로그램 상설화 추진

■ 상설 교류 상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르코미디어 컬렉션 홍보 및 전문성 강화

- 보유 자료 중 컬렉션을 분류하여 외부와 자료 교류 프로그램 정례화
- 매년 주제를 설정하여 컬렉션 상영 프로그램을 추진, 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 체계 활성화 도모

■ 미디어컬렉션 보유 작가의 주요 작품 열람권의 점진적 확보 및 관내 열람 활성화 추진

- 컬렉션 작가의 컬렉션 작품 이외의 주요 작품의 열람권을 획득해서 관내 열람이 가능하도록 상설 열람실 활성화 추진

2) 소장작가 붐업 추진

■ 컬렉션 작가 전작 스크리닝 및 포트폴리오 자료 활용을 통한 주목도 제고 및 비평의 장을 마련

- 포트폴리오 자료 활용[56] : 인사미술공간 및 아르코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작가 교육프로그램 및 아티스트 토크 등을 진행하며 아르코아카이브의 책장을 옮겨오는 '이동하는 책장'프로젝트를 진행함

으로써 기존 아르코아카이브 보유 자료를 활용하면서 해당 작가와 아르코아카이브와의 연결지점을 마련, 대외적으로 홍보 및 작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아카이브로서의 위상 강화

- 미디어컬렉션 자료 활용: 미디어컬렉션 리스트 내 작가에 주목도를 더해 줄 수 있도록 전작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 아르코아카이브에 유입되었던 시기와 해당 스크리닝 프로그램 사이의 시차에서 출발하여 한 작가의 작업 의 전체 주기 안에서 창작의 변화, 탐구 주제의 변화 등을 짚어내고 이를 한국 싱글채널 비디오의 역사 속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록화 추진
- 해마다 새롭게 선정 및 유입하는 작가의 리스트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스크리닝, 아티스트토크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아르코 선정 작가라는 명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3) 아카이브 자료 온라인 공유

■ 작가 포트폴리오 보유 자료 검색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 작가 포트폴리오의 표지 이미지와 작가 명, 자료 타이틀, 발행연도, 전시 기관, 전시 기간 등의 정보를 담아 아르코아카이브가 보유한 자료의 목록 제시함으로써 자료 접근성 강화
- 작가 포트폴리오의 주를 이루는 작가별 자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전 도록의 경우 ISBN 등록을 거치지 않은 일시적 성격이 강하기에 희소성이 짙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자체의 가치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작가 포트폴리오의 자료들의 표지 이미지 스캔과 서지정보의 텍스트 입력을 통해 메타데이터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을 모두 진행한다면, 추후 정보간의 연계와 이를 통한 비평 및 연구의 자료로 확장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출 수 있음

■ 미디어컬렉션 작업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웹) 개설

- 아카이브 재정비 사업을 통해 기록을 보완한 작품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개설
- 작품의 주제 해시태그를 작가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오픈하여 작품 정보를 다각화
- 미술관 주최의 각종 프로그램(강연, 토크, 포럼)의 영상, 사진, 녹취 기록하여 상설 공유화

■ 한국 싱글채널 비디오 작품 및 작가 정보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DB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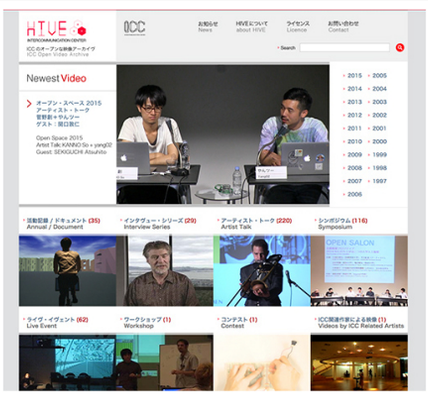
- 실물 작품이 아닌 작품에 관한 정보를 포괄하는 통합 DB를 출범하여 저작권 이슈로부터의 안전과 다음 시대의 활용을 준비
- 작품에 관한 메타데이터의 입력을 정교하게 하여 작품이 소장된 작가의 전체 작업의 정보를 정리하면서 외부 링크를 연계를 통해 이미 존재하는 포털과도 연계함으로써 기존 생태계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

56) 본 실행과제는 단계별 추진전략 표에 따르면 2024년부터 실행 제안 된 사안이지만, 아르코미술관이 계획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한 범위 아래 선행 과제로 제안하고자 함.

[참고 사례 : ICC의 개방형 아카이브 플랫폼 '하이브'(HIVE)'의 사례]

HIVE는 ICC의 영상 아카이브로, 2004년 개설 이후 ICC 기관 내 단말기 열람만이 가능했으며,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HIVE의 공개 웹 버전을 출시하여 유저들이 ICC의 리소스에 보다 개방적으로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1997년 개관시기 부터 2014년까지 ICC에서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전시, 심포지엄, 아티스트 토크, 라이브 이벤트, 워크샵 및 예술가와 지식인의 인터뷰 시리즈)의 녹화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기관사 아카이브의 역할을 함
- 아카이브의 영상 콘텐츠는 개인 및 교육 기관이 교육 및 비영리 문화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ce)를 통해 리소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도록 함
- 이러한 정보를 재순환하고 웹사이트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 'HIVE의 추천'이라는 기획을 선보임. ICC와 관련 있는 몇몇 인에게 HIVE의 게시물 중 추천의 컨텐츠를 선택하도록 제안하고 관련한 기획 기사를 연재함. HIVE의 영상의 재조명의 측면에서도, 추천인 각각의 활동과 그 배경의 생각을 엿볼 수 있도록 한 측면에서도 참고점이 있음
- Hive와 더불어 ICC X 미디어아트 연대기(ICC x Media Chronology) 페이지를 오픈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디어 관련 주요한 사건과 뉴스, 주요 미디어아트 작품과 전시 정보를 연도별, 월별 수록함으로써 기관 차원에서 미디어와 미디어아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대중에 공개함



[그림 5-4] HIVE의 메인 화면



[그림 5-5] HIVE의 추천 페이지



[그림 5-6] ICC x 미디어아트 연대기

제2절 중장기 로드맵

1 단계 (-2023)	2 단계 (-2025)	3 단계 (-2026)
설계	**연구와 활용**	**상설 운영**
기관 비전 설정, 아카이브 재정비	**기관 비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구축, 협력 연구 프로그램 운영**	**상설 프로그램 운영, 아카이브 자료 온라인 공유**
아르코 비전 설정 및 외현화 방안 설계 -기관사 기반의 공공성 도출 -아르코 아카이브 중심 기능 설정 -연구 오픈콜 **아카이브 재정비** -자료와 계약 실태 파악(필요시 법률 자문) -아카이브 수집 자료의 메타데이터 기록 보완 -필요 라이선스 항목 기재 계약서 도출 -웹(미디어 컬렉션) / 앱(작가 포트폴리오) 서비스화 추진	**연구 커뮤니티 구축** -오픈콜 선정 연구 커뮤니티 + 아르코 공동연구 아카이브 자료 해석과 수집 보완 **작가 커뮤니티 구축** -작가 포트폴리오, 미디어 컬렉션 작가 홈커밍 -홈커밍 이후 재계약 추진(라이선스) **기관 교류 프로그램** -열람과 대여를 위한 상영료 기준 제시 -AMI 제작 배급 유통을 위한 국내 이니셔티브 결성	**교류 프로그램** -상설 교류 상영 (ex: 아시아 연계 상영 프로그램) **내부 프로그램** -컬렉션 상영 (ex: 올해의 컬렉션 스크리닝) -제작, 상영, 배급을 위한 네트워크 -소장작가 붐업 프로그램 아카이브 자료 온라인 공유 -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웹 개설 - 미디어 컬렉션 정보 통합 DB 출범 **아카이브실 상설 운영 (열람/대여/배급)**

-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의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1단계(~2023년), 2단계(~2025년), 3단계(~2026년)의 중장기 기본 활용 방향을 도출하고, 5개년 세부 설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2023년까지 1단계 과정에서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의 비전을 설정하고, 아카이브 내부자료 및 조직의 재정비를 진행하여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활용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를 추진함
-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비전의 외현화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연구 오픈콜에 앞서 단계별 연구안을 기획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한 문제를 외부로 공론화하여 아르코아카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약점을 함께 해결해나갈 방안을 찾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약점을 강점화할 수 있는 방향 추구
- 2025년까지 2단계 과정에서는 앞서 1단계에서 설정한 기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아르코의 기관 비전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 연구 커뮤니티 및 작가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시각예술 플랫폼으로 자리할 수 있는 아르코미술관의 역할을 공고히 자리매김하며 전시, 교육프로그램, 출판 등 기존 다양한 아르코미술관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국내 시각예술 및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아카이브를 보유, 활용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간다면 현재 많은 미술관 및 아카이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각예술 생태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
- 2026년까지의 3단계 과정에서는 앞서 마련한 아르코아카이브의 비전과 이를 공유하는 단계를 거쳐 비전을 공고히 다지고 가시화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상설 프로그램을 제안함
- 2024년 아르코미술관의 50주년 기념으로 진행될 다양한 전시 및 행사를 통해 활성화된 아르코미술관의 전시 및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결을 맺어가며 전시로 풀어내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보완점이 될 수 있도록 함. 매년 주제를 설정하여 미디어컬렉션 내 작가의 상영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더불어 컬렉션 작가의 전작 스크리닝을 통해 주목도를 제고하고 비평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컬렉션 신규 수집에 대한 부담을 덜고, 소장이 아닌 활용의 방식에서의 아카이브 개념을 수립하고자 제안함

참고문헌

1. 권인철·권희홍, “뉴미디어 아트의 보존 전략을 통한 보존처리 방법 연구.” **국립현대미술관 연구논문** 9(2017): 95-112.
2. 김신재, “기후와 관측: 아티스트 무빙 이미지 제작과 배급을 위한 실천과 모델.” 프로젝트 비아 2019 결과보고서.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1-11.
3. 김신재,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 **미디어챕터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2018.
4. 김연진, **유휴공간 활용 미술품 보관시설 조성방안 기초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5. 마르흐르트 셰버마커르, “판을 바꾸며: 미술관 연구와 포용의 정치.” **큐레토리얼 사이와 변주.** 곽재은 외 역.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2018.
6. 미팅룸, **셰어미: 공유하는 미술, 반응하는 플랫폼.** 서울: 스위밍꿀, 2019.
7. 배수빈, 한경순. “뉴미디어 아트 보존에 대한 고찰: 국내 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33(2018). 137-147.
8. 베릴 그레이엄, “새로운 물질성과 새로운 소장: 뉴미디어 아트 이후 전시와 관객의 미래.” **미술관은 무엇을 수집하는가.** 김실비 외 역.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2019.
9. 심혜영, “미디어아트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10. 에밀리 퓨, “아카이브가 형식이 될 때: 소장품, 정보, 접근.” **미술관은 무엇을 수집하는가.** 김실비 외 역.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2019.
11. 이셋별, “뉴미디어 아트 보존을 위한 기술적 보존 전략과 기록관리 연구 : 가변적 미디어 네트워크(VMN), 도캄연구협회(DOCAM), 미디어 아트의 문제들(MMA)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17.
12. 이임수, “공유경제 시대 미술관의 문화논리.” **한국예술연구** 25(2019): 91-112.
13. 이호신, “미술관 기관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과 정리에 관한 사례연구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2018): 1-24.
14. 조정욱,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의 소장자료 온라인 공개 활성화 방안 연구-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5.
15. 클레어 비숍, **래티컬 뮤지엄-동시대 미술관에서 무엇이 ‘동시대적’인가?.** 구정연 김해주 윤지원 우현정 임경용 현시원 옮김, 서울: 현실문화, 2016.
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2009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2009.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2010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애뉴얼 리포트 2010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2010.
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2011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애뉴얼 리포트 2011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비디오 + 캐스트.**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2011.

참고문헌

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2012 아르코미술관 미디어 프로젝트 : 언바운드 아카이브.**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2012.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미디어챕터2.**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2019.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미디어펑크: 믿음 소망 사랑.**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2019.
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인미공아카이브 2007.**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2008.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인미공아카이브 2007-2008.**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2008.
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인미공 공공이공 IAS 2000-2020.** 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2020.

참고문헌

[참고 웹사이트 : 사례조사 기관 공식 사이트]

-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sia Art Archive, AAA) http://aaa.org.hk.
- 이니바(INIVA) https://iniva.org.
- 테이트 리서치(Tate Research) https://www.tate.org.uk/research.
- 스테델릭 미술관(Stedelijk Museum Amsterdam) https://www.stedelijk.nl/en.
- 카디스트(Kadist) https://kadist.org.
- 필름&비디오 엄브렐라(film and video Umbrella) https://www.fvu.co.uk.
- 시티 프로젝트(City Projects) http://www.cityprojects.org.
- 오귀스트 오르츠(Auguste Orts) https://augusteorts.be.
- 스파이크 아일랜드(Spike Island) https://www.spikeisland.org.uk.
- 리좀(Rhizome) https://rhizome.org.
- 럭스(LUX) https://lux.org.uk.
- 일렉트로닉 아츠 인터믹스(Electronic Arts Intermix, EAI) http://www.eai.org.
- 비디오 데이터 뱅크(Video Data Bank, VDB) https://www.vdb.org.
- 리마(LIMA) https://www.li-ma.nl/lima.
- 루프 바르셀로나(LOOP Barcelona) https://loop-barcelona.com.
- 아르고스 센터(ARGOS Center) https://www.argosarts.org.
- 아스날 필름 앤 비디오 연구소(Arsenal Institute for Film and Video Art)https://www.arsenal-berlin.de/en/home.html.
- AV-아르키(AV-arkki) https://www.av-arkki.fi.
- 식스팩 필름(Sixpack Film) https://www.sixpackfilm.com.
- 닥 얼라이언스 필름(Doc Alliance Film) https://dafilms.com.
- 브이드롬(Vdrome) https://www.vdrome.org.
- 워치 앤 칠(Watch&Chill) https://watchandchill.kr.
- 하버드 필름아카이브(Harvard Film Archive) https://harvardfilmarchive.org.
-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http://www.igong.or.kr.
- 우부웹(Ubu Web) https://ubuweb.com.
- NTT 인터커뮤니케이션 센터(InterCommunication Center, ICC)https://www.ntticc.or.jp/en/archive/hive.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https://www.kmdb.or.kr/main.
- 더스트림(THE STREAM) http://www.thestream.kr.

참고문헌

[기타]

- 국립현대미술관 https://www.mmca.go.kr.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아카이브 운영 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99507.
-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정의: 팩트 시트(The museum definition: A fact sheet) https://icom.museum/wp-content/uploads/2021/01/10-07-29_fact-sheet-museum-definitie_ENG.pdf.
- 문성경, “우리가 몰랐던 작고 소중한 다큐 영화제.” http://www.dockingmagazine.com/contents/17/125.
- 마을가게미술관 https://altmuma.kr.
- 송지현, “루프 바로셀로냐: 프로듀스, 프로듀스, 프로듀스(드).” https://www.okulo.kr/2019/04/review-001.html.
- 아트베이스 위키의 사용자 가이드 https://artbase.rhizome.org/wiki/User_Guide.
- 아트베이스 게시글 https://rhizome.org/community/36369/.
- 아르코미술관 https://www.arko.or.kr/artcenter.
- 인사미술공간 https://www.arko.or.kr/insa.
- 지가은, “아카이브/기관 024. 럭스(LUX Artist's Moving Image).” https://blog.naver.com/meetingrooom/220083748099.
- INDEX-에디션 https://vimeo.com/indexedition.
- Kadist Video Library-VIDEOCLOOP https://www.arteinformado.com/guia/o/kadist-video-library-videocloop-129359.
- “Politics of production.” https://www.cityprojects.org/wp-content/uploads/2020/01/The-Politics-of-Production_2020_web.pdf.
- Rob baker, “The Museum, Brand and Society.” https://www.britishcouncil.org.br/sites/default/files/apresentacao_robbaker.pdf.
- “The Condition for Artists’ Moving Image Production in London Today.” https://www.cityprojects.org/wp-content/uploads/2019/04/Conditions-for-producing-artists-moving-image_Kate-Parker-2016.pdf.

〈부록 1〉 설문조사 질문지

아르코아카이브 활용 경험 수집 및 제안 모집

아르코 미술관은 2006년 인미공 <IASmedia>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싱글 채널 비디오의 배급 공모 및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르코 아카이브를 구성했습니다. 본 설문은 미디어콜렉션과 작가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한 아르코 아카이브의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에 사용됩니다. 창작자와 비평가, 기획자를 비롯한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 분들의 연구와 창작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을 위한 제안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 필수항목

1. 1. 주로 활동하시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 창작
- ◯ 기획
- ◯ 연구
- ◯ 비평
- ◯ 행정
- ◯ 기타: _____

2. 2. 귀하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 10대
- ◯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이상

3. 3-1. 활동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외부의 자원을 얻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 학술데이터베이스
- ◯ 기관 아카이브 이용
- ◯ 직접 컨택 (작가 미팅, 연구자 미팅 등)
- ◯ 온라인 플랫폼 검색
- ◯ 기타: _____

4. 3-2. 위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 대학 도서관 아이디를 통해 학술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기관 자료 열람신청 후 이용 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4. 아르코 아카이브 열람 경험이 있습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 작가 포트폴리오(전시 카탈로그 열람)
- ◯ 미디어콜렉션(싱글채널비디오 열람)
- ◯ 이용 경험 없음(6번 문항으로 이동)

6. 4-1. 열람 경험이 있다면 그동안의 이용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 1회
- ◯ 2-3회
- ◯ 다수 이용 해본 경험

7. 4-2. 열람 경험이 있다면 이용했던 시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 ] 2006-2008 (인사미술공간 아카이브)
- [ ] 2009-2015
- [ ] 2015-2019
- [ ] 2020- 현재

8. 5-1. 아르코 아카이브-작가 포트폴리오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 ] 작가별로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 편리하다
- [ ] 한국현대미술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유익하다
- [ ] 자료의 양과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 [ ]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큰 규모의 아카이브가 많으므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 [ ]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불편하다.

기타: [ ] _____

9. 5-2. 아르코 아카이브-미디어 콜렉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 ] 영상 작가들의 초기 작업을 볼 수 있어 유익하다
- [ ] 한국 싱글채널 비디오 작업의 시기별 특징 등 기관 차원의 개괄 속에서 자료에 접근하면 좋겠다
- [ ] 자료의 양과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 [ ]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큰 규모의 아카이브가 많으므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 [ ]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이 불편하다

기타: [ ] _____

10. 6. 평소 싱글채널 비디오 영상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 ]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편리하다.
- [ ] 영상 작업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법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 ] 무빙이미지 작업의 유통 생태계나 저작자의 창작 의도를 해칠까 우려된다.
- [ ] 창작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기타: [ ] _____

11. 7. 아르코아카이브가 배급 및 작가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면, 어떠한 형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하세요.

- [ ] 교육, 전시 등 비영리 목적의 배급 대행
- [ ] 신진 작가의 영화제 출품을 위한 가이드 제공
- [ ] 무빙이미지 작업의 아카이브 요소(메타 데이터) 매뉴얼 제공
- [ ] 스크리닝 피 등 영상 작업의 유통을 위한 담론의 조성과 매뉴얼 배포

기타: [ ] _____

12. 8. 아르코 아카이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십니까? (자료 구축 및 배열에 관한 제안,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제안, 열람, 상영의 편의성에 관한 제안 등 자유로이 제안주세요)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3. 9. 아르코아카이브에 관한 더 많은 제안이 있으십니까?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 본 설문을 통해 충분히 전달했음
- ◯ 추가 인터뷰 가능

14.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추가 인터뷰 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은 추가 인터뷰 연락시 사용되며 그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소장자료 활용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발행인 : 박종관
발행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

인쇄일 : 2022.1.24.
발행일 : 2022.1.28
인쇄처 : 태산인디고